

(IV)

이케다 SGI 회장 강의 승리의 경전 ‘어서’에서 배운다

- ❖ 제 1 회 사도어서 (상)
- ❖ 제 2 회 사도어서 (중)
- ❖ 제 3 회 사도어서 (하)
- ❖ 제 4 회 형제초 (상)
- ❖ 제 5 회 형제초 (중)
- ❖ 제 6 회 형제초 (하)

사도어서 (상)

‘사자왕(師子王)의 마음’으로 제자여, 승리하라!

본문(사도어서956쪽1행~957쪽12행)

이 서신(書信)은 도키 씨의 편인 사부루자에몬전 오쿠라토의 쓰자주로입도전등 사자키의 이부인(尼夫人) 일일이 보셔야 할 분들에게 보내는나라.

교토(京都) 가미쿠리의 접전(接戰)에서 죽은 사람들을 작어 보내 주시기 바라나이다. 외전초(外典抄) 문구(文句)의 이(二), 현(玄)의 사(四)의 본말(本末), 감문(勘文), 선지(宣旨) 등을 이곳으로 오는 사람들에게 들려 보내시도록 하사다.

세간(世間)에서 사람이 무서워하는 것은 화염(火炎) 속과 도검(刀劍)의 섬광(閃光)과 자신(自身)의 죽음이나. 우마(牛馬)조차도 몸을 아끼는데 하물며 인신(人身)에 있어서랴. 나인(癡人)도 또한 명(命)을 아끼는데 하물며 건강(健壯) 한 사람에 있어서랴.

부처가 설(說)하여 가로되 “칠보(七寶)로써 삼천대천세계(三千大千世界)에 꼭 차게 갈자라도 손의 새끼 손가락을 가지고 불경(佛經)에 공양(供養)하느니라만 못하나라.” 취의(取意). 설산동자(雪山童子)가 몸을 던지고 요법법지(樂法樂志)가 몸의 가죽을 벗긴 신명(身命)보다도 더 아끼는 것이 없으므로 이것을 보시(布施)로 하여 불법(佛法)을 배우면 반드시 부처가 된다. 신명을 버리는 사람이 다른 보물(寶物)을 불법에 아끼겠느냐. 또한 재보(財寶)를 불법에 아끼는 자가 더한 신명을 버리겠느냐.

세간(世間)의 법(法)에도 중은(重恩)은 목숨을 버려 보답(報答)하는 것이나. 또한 주군(主君)을 위해 목숨을 버리는 사람은 적은 것 같지만 그 수(數)는 많다. 남자(男子)는 수치(羞恥) 때문에 목숨을 버리고 여인(女人)은 남자를 위해 목숨을 버리나. 물고기는 목숨을 아끼는 고로 연못에 사는데 연못이 얇은 것을 한 단(恨嘆)하여 연못 바닥에 구멍을 파고 살지만 미끼에 속아 낚싯바늘을 삼키고 새는 나무에 사는데 나무가 낮은 것을 겁내어 나무 윗 가지에 살지만 딱이에 속아 그물에 걸린다. 사람도 또한 그와 같아서 세상(世上)의 얇은 일에는 신명(身命)을 버리면서도 대사(大事)인 불법(佛法) 등에는 버리기가 어려운 고로 부처가 되는 사람도 없나.

불법(佛法)은 섭수(攝受). 절복(折伏)을 시(時)에 따라야 하며, 비유컨대 세간(世間)의 문무(文武) 이도(二道)와 같다.

그러므로 옛날의 대성(大聖)은 시(時)에 따라서 법(法)을 행하였으니, 설산동자. 살타왕자(薩垂王者)는 몸을 보시(布施)로 하면 법을 가르치겠노라, 보살의 행이 된다고 책(責)하니 몸을 버렸으며, 인육(人肉)을 원하지 않을 때 몸을 버리겠느냐. 중이 없는 세상에는 몸의 가죽을 중으로 하고 붓이 없을 때는 뺨을 붓으로 할자나. 파계(破戒). 무계(無戒)를 헐뜯고 지계(持戒). 장법(正法)을 쓰는 세상에는 제계(諸戒)를 굳게 지켜야 하느니라. 유교(儒敎). 도교(道敎)를 가지고 석교(釋敎)를 제지하려는 때에는 도안법사(道安法師), 해원법사(慧遠法師), 법도삼장(法道三藏) 등과 같이 왕과 논하여 목숨을 가버리 할자나. 석교(釋敎) 중에서 소승(小乘) 대승(大乘) 권경(權經) 실경(實經)이 집란(集難)하여 명주(明珠)와 와류(瓦礫)과 우려(牛糞)의 이유(二乳)를 분별하지 못할 때는 천대대사, 전교대사 등과 같이 대소(大小) 권실(權實) 현밀(顯密)을 강성하게 분별해야 하느니라.

축생의 마음은 악함을 위협하고 두려워하느니라. 당세(當世)의 학자들은 축생과 같다. 지자(智者)가 악함을 깔보고 왕법(王法)의 사(邪)를 두려워하니 유신(諛臣)이라 함은 이것이나. 강적(強敵)을 굴복시켜야 비로소 역사(力士)임을 안다.

악왕(惡王)이 장법(正法)을 파하는데 사법(邪法)의 승들이 한편이 되어 지자(智者)를 살해하려 할 때는 사자왕(師子王)과 같은 마음을 가진 자 반드시 부처가 되느니라. 예컨대 나치렌(日蓮)과 같다. 이것은 교만(驕慢)함이 아니라 장법을 아끼는 마음이 강성함이나.

교만(驕慢)한 자는 반드시 강적(強敵)을 만나면 두려워하는 마음이 나타나 예컨대 수리(修羅)의 교만이 제석(帝釋)에게 공격당하여 무열지(無熱地)의 연못 속에 소신(小身)이 되어 숨은 것과 같다.

장법(正法)은 일자(一字). 일구(一句)일자라도 시기(時機)에 맞으면 반드시 득도(得道)하며 천경(千經). 민론(萬論)을 습학(習學)한다 해도 시기에 상위(楷體)하면 이루어지지 않나. ■

강의

‘어서(御書)’는 ‘승리의 원천’

어서는 ‘승리의 경전(經典)’입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승리하고, 사회에서 승리하고, 숙명에 승리하고, 마성(魔性)에 승리하는 원동력이 어서입니다. 니치렌 대성인 불법은 ‘인간’을 가장 강하고 현명하게 하며, ‘마음’을 풍요롭게 단련하는 ‘생명변혁의 철리(哲理)’입니다. 어서 한 글자 한 글자는 인간의 근원적인 힘을 이끌어내기 위한 부처의 금문자(金文字)입니다.

어서 한편 한편에서 “우리 제자를, 민중 한 사람 한 사람을 어떻게 해서든 승리하게 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라는 어본불(御本佛)의 자애로운 외침이 울려 퍼집니다. 어서는 민중이 영원히 승리하고 번영하기 위한 ‘승리의 원천’입니다. 그러므로 학회는 ‘어서근본’으로 나아가는 한 반드시 만대(萬代)에 걸쳐 계속 발전합니다. 2009년 ‘청년·승리의 해’가 개막했습니다. 나도 더욱 건강합니다. ‘청년을 위해, 승리를 위해’ ‘어서근본’으로 한층 더 힘차게 세계 광선유포를 지휘하겠습니다. 미래를 위해 불법의 정수(精髓)인 ‘사제(師弟) 정산’을 이야기하고, 써서 남기겠습니다. 부디 여러분도 올 한 해 창가학회의 ‘영원한 성전(聖典)’인 어서를 함께 배독하며 연속 승리는 위대한 민중 스크립을 더욱 구축하고 확대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사도어서〉는 학회정신의 근본

그런데 이번 “승리의 경전 ‘어서’에서 배운다.”에서는 초창기 이래 삼대에 걸친 사제정신의 가등을 이루는 어서를 깊이 배독하려고 합니다. 가장 먼저 배독할 어서는 〈사도어서〉입니다.

〈사도어서〉는 이른바 ‘창가학회의 어서’라고 말씀드려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대성인이 타오르는 정의 불길로 집필해 후세에 남기고 제자들 마음에 다져 넣은 신이 어서를 학회의 삼대에 걸친 스승과 제자가 불식신명(不食身命)의 신심으로 색독(色讀)했기 때문입니다.

마키쿠치 쓰네사부로 선생님은 이 어서 마지막에 나오는 “까치가 난봉(鸚鵡)을 비웃음과 같으니라, 비웃음과 같으니라.”(어서 961 쪽)는 구절을 때때로 배독하며 증상 만에 빠진 제자에게 주의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절복행에 매진하는 학회의 커다란 사명을 선양하셨습니다.

도다 조세이 선생님이 이 〈사도어서〉를 우리 생명에 새겨 넣듯 거듭해서 강의하셨습니다. 1956년 ‘오사카투쟁’ 무렵에는 오사카 나카노시마에 있는 중앙공화당에서 제자가 승리할 수 있도록 간사이 회원에게 강의하셨습니다.

내게도 〈사도어서〉는 젊은 날에 신앙의 근원이 된 어서입니다. 나는 폐병을 앓았고, 도다 선생님의 사업은 차질이 생겼습니다. 참으로 절체절명의 궁지에 처한 상태에서 〈사도어서〉를 거듭 배독하고, 용기를 불러일으켜 투쟁했으며 하루하루 헤쳐 나가며 승리해 나아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샌다이와 기와고에 그리고 가쓰시카 등, 가는 곳마다 전심전력을 다해 〈사도어서〉를 강의했습니다. 도다 선생님이 서거하신 이듬해인 1959년, 그리운 은사의 추억이 담긴 도쿄 도시마에 있는 공화당에서 강의를 할 때에 〈사도어서〉를 택했습니다. 나는 “제자들이여, 총괄기하라!”는 은사의 외침을 불이(不二)의 분신이 되어 동지의 가슴속 깊은 곳을 향해 외쳤습니다.

또 미래를 짊어지는 봉추(鳳雛)와 같은 고등부에게도 어른을 대하듯 똑 같은 자세로 심혈을 기울여 〈사도어서〉 전편(全篇)을 강의했습니다. 이때 모인 봉추들도 이제는 세계 광선유포의 훌륭한 지도자로 성장했습니다.

현대어역

이 편지는 사부로부터 온 답과 오쿠리토 쓰시의 주요입도담을 비롯한 여러분, 사자키의 이부인, 그밖에 이 글을 보셔야 할 여러분 한 분 한 분 앞으로 써서 도기념에게 보냅니다. 교토와 가마쿠리에서 일어난 전투에서 돌아가신 여러분의 이름을 써서 보내 주세요. 이쪽으로 오는 분은 외전초와 법화문구 제2권 그리고 법화현의 제4권과 그 주석서, 또 감문(勘文)이나 선지(宣旨) 등을 가져 오시기 바랍니다. (사도어서 956 쪽 1행-3행)

모든 문하에게 ‘사자(師子)의 정산’을 전한다

이 구절은 편지 본문과 별도로 서둘러 전하고자 하는 사항을 쓰셨지만, 마치 문하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씀 건네듯 쓰신 대성인의 심정을 알 수 있습니다. 〈사도어서〉는 대성인이 사도에 유배 중이던 1272년 3월, 받는 사람을 “니치렌제자 단나등어중이라고 쓰셨듯이 모든 문하에게 보내신 편지입니다. 또 이어서 말미에는 “이 서신을 뜻있는 사람들은 함께 모여서 보시고 사색하시어 마음을 위로하시라.”(어서 961 쪽)고 쓰셨습니다. 당시 가마쿠리에 있는 문하들에게도 탄압의 폭풍이 몰아쳤습니다.

그러나 그런 속에서도 뜻있는 문하가 연계를 잘 취하고, 대성인 지도를 근본으로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단결해서 곤란을 극복하라고 강조하셨습니다. 도다 선생님은 〈사도어서〉를 배독하고라는 논문이 이렇게 쓰셨습니다.

“이 어서를 배독하며 대성인 당신조차 목숨이 위태롭고 생활이 팍박할 때인데도 제자들을 자식처럼 여기시는 자애로운 애정이 절절히 나타난 점에 정말 감동했다. 마치 봄날 바다 한가운데 큰 바위가 의연하게 우뚝 서 있고, 그 밑에서 따뜻한 햇빛을 띤 잔물결이 어리광부리는 풍경과 비슷한 느낌이 든다.”

대성인은 목숨이 위태로운 유배 중에 귀양살이를 하는 몸으로 문하에게 자애를 쏟으실 만큼 정말 위대한 경애를 지닌 분이었습니다. 도다 선생님은 그 경애를 ‘봄날 바다에 우뚝 선 큰 바위에 비유하셨습니다.

선생님은 제2차 세계대전 중에 탄압을 극복하고, 암굴왕(巖窟王)처럼 끝까지 투쟁하셨습니다. 은사 자신이 그런 분이었기 때문에 대성인의 웅대한 경애와 자비로운 행동을 배독하고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는 ‘의연한 바위로 표현하셨을 것입니다.

인간의 경애는 대난(大難)을 통해 비로소 무한히 열립니다. 그런 궁극적인 법리를 가르치는 존재가 불법의 스승입니다. 스승은 얼마나 고마운 존재인지. 이런 사(師恩)에 보답해야 비로소 ‘제자의 길’입니다. 이 어서는 참으로 ‘사제불이(師弟不二)’라는 신앙의 깊은 뜻이 응축된 ‘서원(誓願)’의 편지라고 배독해야 합니다.

태연자약한 어본불의 대경에

교도와 가미쿠리의 전란으로 돌아가신 분의 이름을 써서 보내 달라는 말씀은 추선(追善) 제목을 부르시기 위함이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삼세에 걸친 행복을 기원하시는 대성인의 대자비를 엿볼 수 있는 구절입니다.

그리고 사도를 찾아오는 사람에게 외전초와 법화문구 등을 비롯한 문헌을 가져오게 하도록 부탁하셨습니다. 대성인은 변방에 있는 유배지에서 더욱더 커다란 정열을 쏟으며 말법의 증생을 구하기 위해 중요한 사색과 집필을 거듭하셨습니다. 책을 부탁하는 이 구절에서도 있는 그대로 평소와 다름없이 태연자약한 어본분의 모습이 뚜렷이 드러납니다. 문하는 이렇듯 짧은 말씀에서도 커다란 용기를 받지 않았을까요.

현대어역

세간에서 일반적으로 사람이 두려워하는 일은 불길에 휩싸이는 일과 길로 습격을 받은 일 그리고 자기 몸이 죽음에 이르는 일입니다. 소나 말조차 몸을 아끼는데 하물며 인간이라면 더욱더 그러합니다. 불치의 병에 걸린 사람마저 목숨을 아끼는데 허물며 건강한 사람이라면 말할 나위도 없습니다.

부처는 이렇게 설합니다. “일곱가지 보배를 삼천대천세계에 가득 넘칠 만큼 길어서 공양해도, 부처와 법화경에 새끼손가락을 공양하는 일에는 미치지 못한다.” (익왕품, 취의) 설산동자는 귀신에게 몸을 던지고, 요법법자는 살가죽을 벗겼습니다. 목숨보다 더 아끼운 것은 없으므로 그 신명(身命)을 보시(布施)로 삼아 불법을 수행하면 반드시 부처가 됩니다.

신명마저 버리는 사람이 불법을 위해 다른 보배를 아끼겠습니까. 또 불법을 위해 재물을 아끼는 사람이 그보다 더 중요한 목숨을 버릴 수 있겠습니까.

세간의 도리에서도 높고 큰 은혜에는 목숨을 버리고 보답하는 법입니다. 또 주군을 위해 목숨을 버리는 사람은 적게 보이지만, 실은 많습니다. 남성은 명예를 위해, 여성은 남성을 위해 목숨을 버립니다.

물고기는 목숨을 아끼기 때문에 사는 연못이 얕아도 한탄하며 연못 바위에 구멍을 파고 삽니다. 그러나 미끼에 속아 낚싯바늘을 삼키고 맵니다. 새는 사는 나무가 낮다고 두려워하며 나무 위의 가지에 삽니다. 그러나 먹이에 속아 그물에 걸리고 맵니다. 사람도 이와 마찬가지로 삽니다. 세간의 얕은 일을 위해 목숨을 잃는 일은 있어도 중요한 불법을 위해 신명을 버리는 일은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부처가 되는 사람도 없습니다. (사도에서 956 쪽 4행~957 쪽 1행)

‘생사’는 인간의 근본과제

대성인은 <사도어사> 서두에 “세간에서 사람이 무서워하는 것은”이라며 만인의 가슴을 울리는 글을 쓰셨습니다. 생명이 있는 것은 모두 죽음을 두려워하고, 목숨을 아끼는 법입니다.

‘화염 속은 사고나 재해를 말합니다. ‘도검의 섬광은 폭력이나 전란을 말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도 ‘자신의 죽음’만큼 두려운 일은 없습니다.

동물에게도 인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단지 죽음을 두려워하고 목숨을 아끼기만 하면, 정말 깊은 인생은 알 수 없습니다. 인간은 무엇을 위해 살고, 무엇을 위해 죽는가. 이렇듯 자신의 ‘생사’를 진지하게 직시하는 일은 깊은 삶을 살 수 있게 만듭니다.

대성인은 이 어서를 ‘생사’라는 인생의 근본문제부터 살리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대난으로 괴로워하는 문하에게, 불법은 인간의 근원적인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있으므로 대난의 폭풍이 휘몰아쳐도 근본인 ‘신심’을 결코 잃지 말아야 한다고 지도하셨습니다.

더없이 소중한 ‘생명’을 무엇에 쓰는가

그렇다면 이 더없이 소중한 신명을 무엇에 사용해야 하는가. 이 어서에서는 불법을 위해 바쳐야 비로소 부처가 될 수 있다고 가르치셨습니다.

대성인은 먼저 법화경 익왕품을 들어 불법을 위해 신명을 바치는 일이 얼마나 심원한 의미가 있는지를 알려 주셨습니다. 그리고 석존이 과거세에 수행하던 때의 모습인 설산동자와 요법법자를 들어 불석신명(不捨身命)이 바로 불도수행을 성취하는 핵심이라고 밝히셨습니다.

또 대성인은 불석신명을 각오한 사람이 다른 보물을 아끼지 리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소령몰수 등 여러 가지 난에 두려움을 느끼며 무서워하는 문하들에게 “지금이 바로 자기 몸을 바꾸어 부처가 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가 아닌가.” “성불이 눈앞에 있으니 아무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지 않은가.”라는 굳이 엄하고도 자애로운 지도라 할 수 있습니다.

또 이 말씀에는 현대인이 배워야 할 중요한 정신이 담겨 있습니다. 그 중 하나는 단지 신명을 아끼기만 한다면 진실한 행복을 얻을 수 없다는 점입니다. ‘무엇을 위해서’라는 근본목적을 정하고, 노고를 아끼지 않을 각오로 올바른 ‘인생의 갈’을 구해야 비로소 깊은 기쁨과 충실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저급한 욕망에 빠져 중요할 때 몸을 아낀다면, 생명이 위축되고 후회하며 불행하게 됩니다.

또 하나는 불도수행으로 얻을 수 있는 경지는 금세의 목숨이라는 유한성을 초월한 영원성을 지닌 경지입니다. 불법을 위해 존귀한 생애를 바친다면 반드시 생생세계 공덕과 행복으로 감싸인 인생을 걸을 수 있습니다.

‘삼세(三世)의 생명관’ ‘영원한 행복관’에 눈뜨는 일이 바로 인생과 사회의 다양한 문제를 타개하기 위한 근본적인 전환점입니다. 올바른 생사관을 지니면 인류의 경에도 높아집니다. 생사관의 알고 깊음을 구명하는 일이 21 세기 문명을 개척하는 철학의 급소라 해도 좋습니다. 그런 선각자의 길을 걷는 존재가 바로 우리 동지 여러분입니다. 부디 이 점을 확신하고 공지에 가득 차 나아가기 바랍니다.

최고로 존귀한 생명을 불법을 위해 바치다

대성인은 <사도어사> 서두에서 예상치 못한 사고나 사건을 비롯해 전란 등에 휩쓸려 목숨을 잃는 일을 통해, 다시 한번 누구나 자신의 신명을 소중히 여기는 점을 설하셨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세간의 윤리관과 가치관에 따라 일부러 자기 목숨을 버리는 일도 적지 않다고 지적하셨습니다.

또 목숨을 소중히 여기고 있는 듯하지만, 결과적으로 어리석게도 버리고 마는 경우도 많습니다. 여기에서 말씀하신 물고기와 새의 습성은 대성인이 읽으신 정관정요 등에도 나오는 선인(先人)의 통찰입니다.

“미끼에 속아” 라는 말씀은 모처럼 자신을 위해 이것저것 조심하면서, 눈앞의 욕망에 충동을 일으키거나 좁은 소견으로 판단을 잘못하거나 해서 결국 몸을 망치는 일을 비유합니다. 현대도 이러한 ‘인간의 어리석음’은 전혀 변함이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대성인은 ‘세상의 얕은 알을 위해 목숨을 버리지 말고, ‘대사(大事)인 불법을 위해 가장 소중한 ‘신명’을 바쳐야 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불석신명’이라고 해도, 진실한 불법은 결코 쓸데없이 목숨을 버리는 ‘순교주의’가 아닙니다.

마키구치 선생님과 도다 선생님 그리고 나는 ‘존귀한 학회원 중에서 순교자를 한 사람도 내지 않고 광선유포를 추진하자. 그러기 위해 내 몸이 희생된다면 더 바랄 것이

없다'는 각오로 행동했습니다.

앞으로 이 각오가 대대로 이어지는 창가학회 회장의 정신이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존귀한 목숨을 절대로 헛되이 해서는 안 됩니다. 청소년 여러분도 아무리 힘들고 괴로운 일이 있을지라도 그것에 저서 자신과 타인의 목숨을 소홀히 하는 일이 있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여러분의 목숨은 무엇보다 가장 존귀하고 불가사의한 부처의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소중한 생명을 '대사인 불법에 바치는 일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하면 좋을까요.

대성인은 말법에 범부가 성불하는 본연의 자세를 이렇게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나 부처가 된다는 것은, 범부(凡夫)는 지(志)라고 하는 문자(文字)를 심득(心得)하여 부처가 되는데.” (백미일표어서 1596 쪽)

이 말씀에 궁극적인 불석신명론이 있습니다. 말대의 범부는 설산동자처럼 몸을 내던지지 않더라도 ‘심지(心志)’가 어떠한가에 따라 ‘불석신명’을 실천하는 것과 같은 공덕을 얻을 수 있다고 함차게 단언하셨습니다.

‘마음만이 중요’합니다. 불법을 위해, 정의를 위해 ‘알념에 억겁(億劫)의 신로(辛勞)를 다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불석신명’은 두려워하지 않고 남무호렌게교(南無妙法蓮華經)를 끝까지 부르는 일이며, 세계와 미래를 위해 그리고 사람들을 위해 힘껏 신심의 실증을 확고히 나타내는 일입니다.

마키구치 선생님은 이런 삶의 자세를 ‘부처석신명의 대선생활법(大善生活法)’이라고 부르셨습니다. 대선생활법은 독선이나 겁쟁이의 마음을 극복하고, 자타(自他) 함께 행복을 위해 온 힘을 다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한번 의식적으로 실증해 누구나 할 수 있다고 알게 되면 이미 누구든지 만들고 싶어 어쩔 줄 모르고 만들어야 하는 평범한 생활법이며 보통인 인간도(人間道)”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마키구치 선생님은 ‘창가교육학회(창가학회)는 곧 대선생활의 살아 있는 실증’이라고 주장하셨습니다. 즉 불석신명은 ‘누구나 할 수 있는 평범해 보이는 일상생활 속에 있습니다.

요컨대 우리가 나날이 광선유포를 위해 몸과 마음을 써서 수많은 사람을 격려하며 마음을 다해 불법의 훌륭한 함을 이야기하는 행동 속에 바로 ‘불석신명의 실상이 있습니다.

현대어역

불법에서 섭수(攝受)와 절복(折伏) 중 어느 쪽을 실천하느냐는 ‘시(時)’에 따라 결정됩니다. 이를테면 세기에서 말하는 문무(文武)의 두 갈래 길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과거의 위대한 성인(聖人)은 때에 따라 불법을 수행했습니다.

설산동자와 살타왕자는 “몸을 보시하면 법을 가르쳐주겠다. 그 보시행이 보살의 수행에 해당한다.” 라는 요구에 몸을 버렸습니다. 인욕을 버리지 않을 때 몸을 버리겠습니까. 종이가 없는 시대에는 살기죽을 종으로 삼고, 붓이 없을 때는 뼈를 붓으로 삼아야 합니다.

계율을 어기는 사람이나 지켜야 할 계율을 지키지 않는 사람을 비난하고, 계율을 지키며 정법을 행하는 사람을 존중하는 시대에는 여러 계율을 굳게 지켜야 합니다. 국왕이 유교나 도교를 믿어들어 불교를 탄압하려 할 때는 도안법사, 해원법사, 법도삼장처럼 목숨을 돌보지 말고 국왕을 간호해야 합니다.

불교 중에 소승과 대승, 권교와 실교가 뒤섞여 마치 보석과 깨진 기와조각, 소젖과 당나귀젖의 차이를 알 수 없을 때는 천태대사와 전교대사처럼 대승과 소승, 권교와 실교, 현교와 밀교의 차이를 엄연히 구분해야 합니다.

축생의 마음은 약한 지를 위협하고, 강한 지를 두려워합니다. 지금 세상의 승들은 축생과 같습니다. 지지(智者)의 약한 처지를 알고, 왕의 사악한 힘을 두려워합니다. 아첨하는 신하는 아첨 지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강한 적을 쓰러뜨려야 비로소 힘있는 자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익왕이 정법을 파괴하려 들고, 사법의 승들이 같은 편이 되어 지지를 없애려 할 때는 사지왕의 마음을 지닌 사람이 반드시 부처가 됩니다. 예를 들면 나치렌과 같습니다. 거만해서 이렇게 말씀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정법을 어기는 마음이 강성하기 때문입니다.

거만한 자는 강한 적을 만나면 반드시 두려워하는 마음이 나오는 법입니다. 예를 들면 거만하게 잘난 척하던 이수리가 제석의 공격을 받자 무열지라는 연못의 연꽃 속에 몸을 작게 만들어 숨은 모습과 같습니다.

정법은 한 글자, 한 구절일지라도 시(時)와 기(時)에 맞게 실천하면 반드시 성불합니다. 아무리 많은 경문이나 그에 관해 논하는 글을 많이 악하고 배운다 할지라도 시와 기(時)에 어긋나면 결코 성불할 수 없습니다. (사도어서 957 쪽2행-12행)

“말법에는 절복밖에 없다”

이 부분부터 말법이라는 ‘시(時)’에 맞는 불법의 실천에 관해 밝히셨습니다. ‘섭수는 사람들의 기(時)에 맞춰 법을 살하는 모습입니다. ‘절복은 궁극적인 법이던 남무호렌게교를 철두철미하게 살하는 모습입니다.

“시에 따라야 하며” 에서 ‘사는 시대와 중생이 무엇을 구하는지를 깊이 통찰해야 파악할 수 있습니다. 경전에서는 ‘사를 세가지, 즉 정법(正法), 상법(像法), 말법(末法)’ 으로 크게 구별했습니다. 대성인이 “불안(佛眼)을 빌어서 시와 기(機)를 생각할 것이며” (어서 258 쪽) 라고 말씀하셨듯이, 지금이 어떤 때인지는 부처의 지혜로 통찰할 수 밖에 없습니다.

도다 선생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라는 글자를 잘못 읽어서는 안됩니다. ‘섭수, 절복을 시에 따라야 하며’ 라고 말씀하셨다고 해서 지금은 세간이 떠들썩하니 섭수를 하지든지, 모두 아무것도 모르니 절복을 하지든지 하며 자기가 생각해서 시를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말법에는 절복밖에 없습니다.”

어느 때에 어떤 실천을 할지라도 항상 ‘절복 정산’을 잊지 않고 행동해야 합니다. 그것이 절복의 스승을 잇는 진정한 제자의 길입니다.

“절복의 깃발을 결코 내리지 마라!”

과거의 대성(大聖)과 보살들은 모두 ‘사에 맞게 수행하고 부처가 될 수 있었습니다. 불법에서는 ‘사에 맞는 실천을 가장 중시합니다.

불교가 탄압하기 전에 선도자들은 목숨을 걸고 끝까지 ‘법’을 구했습니다. 또 정법이 널리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질 때는 불법자가 사람들이 더욱 올바르게 정법을 수지하도록 모범적인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반대로 불교를 부정하고 탄압하려는 왕이 있을 때는 신명을 잃을 각오로 왕에게 간해야 합니다.

그리고 불교 안에서 여러 종파가 한데 뒤섞여 사람들이 혼란스러워 할 때는 무엇보다 먼저 가르침의 우열을 명쾌하게 구분하는 일을 서둘러야 합니다.

지금 어떤 때인가. ‘사에 맞는 실천을 알아야 비로소 불법을 올바르게 전할 수 있습니다.’

대성인이 ‘옛날의 대상’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사를 올바르게 알고, 필요할 때 필요한 행동을 하는 사람이 바로 불법에서 말하는 ‘성안이며 ‘지자(智者)’입니다. 이러한 불법의 선도자나 지도자들의 처유에는 부처의 올바른 가르침을 무엇보다 소중히 여기며 목숨을 걸고 민중에게 전하려는 ‘불법의 호지(護持)하는 마음’이 합치게 흐릅니다. ‘대상’들은 철두철미하게 불석신명을 했기 때문에 지금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명료하게 알 수 있었습니다.

‘사를 알고 ‘사에 맞게 통통하는 일이 불법의 지도자가 지녀야 할 근본조건입니다. 창기학회는 초대 회장 마키구치 선생님과 제2대 회장 도다 선생님이 항상 ‘사에 맞게 지도하셨기 때문에 크게 발전했습니다. 나도 이제껏 마음속으로 도다 선생님과 대화를 나누며 끊임없이 ‘사에 맞는 광선유포의 길을 기원하고 개척했습니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승리했습니다.

나는 1980년 봄에 제5차 중국방문을 마치고 상하이에서 규슈로 직행했습니다. 나는 전해에 어쩔 수 없이 창기학회 회장을 사임해야 했기 때문에 규슈방문은 내게 첫 지방지도가 됐습니다. 나가사키에서 후쿠오카로 간 나는 깊은 결의를 품은 규슈의 사랑스런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절벌의 깃발을 내려서는 안 됩니다. 신심의 불길을 꺼서는 안 됩니다.”

중문문제로 심하게 괴로움을 겪는 규슈 땅에서 니치렌 불법의 ‘불석신명’이라는 깃발을 단호히 계속 내걸자며 ‘반전공세의 봉화를 올렸습니다. 규슈동지는 지금 이 ‘때를 놓치면 화회의 미래 영원한 승리를 구축할 수 없는 심정으로 나와 함께 일어섰습니다. 때에 맞는 사제의 실천이 있으면 반드시 승리합니다. 규슈는 그 역사를 엄연히 구축하였습니다.

다음은 뒤를 잇는 청년부 여러분이 이 중대한 창가사제정신을 영원히 계승해야 할 때를 맞았습니다.

정의를 질투하고 탄압하는 ‘축생의 마음’

정의를 질투하고 탄압하는 말법의 사회적 양상을 밝히신 구절입니다. 다쓰노구치 법난과 사도유괴는 막부 권력(악왕)과 고쿠리쿠사 료칸 등 (사법(司法)의 승들이) 결탁해서 대성인과 그 일문을 없애려고 한 종교탄압이었습니다.

‘축생의 마음’은 고쿠리쿠사 료칸을 비롯한 여러 종파의 승들이 지닌 본질을 가리킵니다. 그 승들은 ‘지자(대성인)’을 깔보고 ‘왕법의 사(사악한 권력)’을 두려워했습니다. 이것이 대성인 일문을 크게 탄압하게 된 당시 일본사회의 정신적 토양이었습니다.

그러나 대성인은 “강적(強敵)을 굴복시켜야 비로소 역사(力)임을 안다.” 즉 강한 적을 쓰러뜨려야 정말 힘이 있는 장사라고 말씀하며, 이 대난을 엄연히 받아들이고 일어서셨습니다.

악왕과 사악한 승을 물리치는 정의의 사자후

“악왕(惡王)이 정법(正法)을 꾀하는데 사법의 승들이 한편이 되어 지자를 살해하려 할 때”라는 말씀은 정치적 권력과 종교적 권위의 아합을 말합니다. 정의를 억누려는 ‘탄압의 구조’는 어떤 세상에도 변하지 않습니다.

박해의 폭풍은 요란스러웠습니다. 대성인은 이 ‘때에 한 걸음도 물러 서지 않고 ‘사자왕의 마음’으로 맞섰습니다.

‘사자왕의 마음’은 ‘축생의 마음’을 유연히 내려다보며 물리칩니다. 불법에서 말하는 ‘사자왕’은 다름 아닌 부처의 이명(異名)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일어서는 사람은 반드시 부처가 됩니다. “예컨대 니치렌과 같다.” 즉 “나를 보라. 이렇게 말하는 까닭은 결코 오만하기 때문이 아니다. 정법을 아끼는 마음이 강성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 하셨습니다.

이 정의로운 대화신을 아주 잘 배독해야 합니다. 자기 목숨보다 더 ‘정법을 아끼는 마음이 강성하기 때문에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정의를 주장하는 용기를 낼 수 있습니다. 이 점에 신심의 매우 깊은 뜻이 있다고 해도 좋습니다.

나는 은사 도다 선생님을 만난 이래 60여년 동안 한 걸음도 물러서지 않고 창가의 정의를 외치며 세계로 확대했습니다.

그 힘을 낼 수 있었던 까닭도 ‘내 목숨보다 더 존귀한 광선유포의 스승을 위해서라는 일념에 철두철미했기 때문입니다. 창기학회는 불의불칙(佛意佛勳)의 단체를 단연코 수호하고, 스승의 대원처럼 세계적으로 발전시키겠다는 정신으로 일어섰기 때문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불석신명’의 정신과 이 ‘사자왕의 마음’은 포리일체입니다. 즉 ‘밥을 아끼기 때문에 자기 신명을 아끼지 않는 일과 ‘뉘를 아끼기 때문에 ‘법화경의 작에 맞서 ‘사자왕’처럼 투쟁하는 일은 전적으로 똑같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불석신명하는 사제불이의 ‘사자왕’이야리! 이것이 <사도어사> 전반부의 요점입니다. 대성인은 이 점을 문하에게 강하게 가르치셨다고 배독해야 합니다.

“예컨대 니치렌과 같다.”는 “스승이 모든 미성을 무찔렀듯이 제자도 사자왕의 마음을 끄집어내어 미를 무찔러라. 스승과 같은 마음으로 투쟁해야 한다! 스승과 함께! 스승과 같은 각오로 일어서라!”는 말씀입니다. 대성인은 ‘불이(不二)의 제자가 일어서기를 대망하며 제자의 마음 깊숙이 외치셨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중에 일본불이 지닌 이 ‘사자왕의 마음’을 이어받은 분은 마키구치 선생님과 도다 선생님뿐이었습니다. 중문은 비열하게도 도망쳤습니다. 창기학회만이 불석신명하는 사자왕의 활맥을 계승했습니다.

우리 학회는 대성인의 ‘사자왕의 마음’을 조금도 틀림없이 이어받아 세계 광선유포의 길을 개척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공덕은 틀림없습니다. 이 커다란 확산에 불타서, 더욱더 창가사제의 정의를 끝까지 이야기합시다.

‘정법을 아끼는 마음’에 무한한 용기가

대성인이 외치는 ‘정의는 결코 오만함이 아닙니다. “교만한 자는 반드시 강적을 만나면 두려워하는 마음이 나타나” 라는 말씀은 단순히 허영을 부리거나 오만한 자는 정작 강적을 만나면 겁을 내고 만다는 뜻입니다. 정말 맞는 말씀입니다. ‘교만한 자’의 정체는 ‘이기주의’입니다. 자기중심적이므로 강적을 만나면 자기 몸을 염려합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는 마음’이 나옵니다. 이에 비해 ‘사자왕과 같은 마음을 지닌 자’는 어디까지나 ‘법근본’으로 삽니다. 불석신명이므로 법을 꾀하는 자에게 엄연히 정면으로 맞서는 용기가 더욱 샘솟습니다.

‘사와 ‘기에 맞는 실천이 성불의 길

절복은 ‘사지왕의 마음’으로 악을 책하고, 정의를 끝까지 이야기하는 일입니다. 그런 ‘사지왕의 마음’이 있으면 한 글자, 한 구절을 말하는 것만으로도 반드시 성불할 수 있는 공덕이 있다고 단언하셨습니다. 이 근원의 정신 즉 ‘장법을 아끼는 절복정산’이 없으면 설령 아무리 많은 경문이나 그에 관해 논한 글을 배워도 성불은 할 수 없습니다.

영국의 작가 체스터턴은 이렇게 썼습니다.

“순교자는 자기 이외의 무엇인가를 매우 강하게 생각하는 결과, 자기 생명 하나쯤은 잊어버리는 사람을 말한다.”

우리 학회에서 ‘자기 이외의 무엇인가’는 ‘묘법’이고 ‘스승’입니다. ‘동자’이며 ‘민중’입니다. ‘창가’학화며 ‘광선유포’입니다. ‘자기 생명 하나쯤은 잊어버린다.’는 ‘불석신명’이며, ‘신경법중(身輕法重)’의 정신에 통하는 잠언이라고 생각합니다.

도다 선생님은 법화경 경문인 ‘부자석신명(不自惜身命)’을 이렇게 강의하고 지도하셨습니다. “부자석신명의 마음이 없다면, 제목을 부를 수 없습니다.”

“여러분도 절복하러 가서 칭찬받은 기억은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자신이 신명을 아끼지 않겠다는 마음이 없다면 광선유포는 할 수 없습니다. 남에게 험담을 듣거나, 언어맞았다고 해서 물러설 정도라면 처음부터 하지 않는 편이 낫습니다.”

이것이 위대한 절복의 스승 도다 선생님이 지닌 정신입니다. 학회 동지는 초창기부터 이 정신대로 용감하고 다기진 실천을 관찰했습니다.

이 사제혼을 가슴에 새기고 ‘법을 위해’, ‘사회를 위해’, ‘벗을 위해’ 밤낮으로 착실하게 투쟁하는 동지 여러분이 바로 불법사에 영원히 빛나는 ‘불석신명’, 즉 ‘사지왕의 마음’을 지닌 투사라고 진심으로 찬탄하고 싶습니다.

학회는 사제혼을 계승하는 한 영원히 승리하고 번영합니다. 이 점을 우리 문하에게, 그 중에서도 직계 제자인 청년부 여러분에게 강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지왕의 마음’을 지닌 스승의 뒤를 이어라!

‘사지왕의 마음’으로 제자여, 승리하라!

이것이 바로〈사도어사〉를 신독(身讀)하는 창가 사제가 부르짖는 상승의 외침입니다. ■

사도어서 (중)

‘대난즉숙명전환’이라는 성불의 직도를 !

강의

우리는 왜 이 세상에 태어났는가. 그 이유는 ‘행복해지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려면 ‘자기에게 승리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신앙은 무명(無明)에 이기고, 숙명에 이기고, 장애(障礙)에 이기고, 삼류(三類)의 강적에 이기기 위해 존재합니다. 불법(佛法)에서는 누구든지 모든 것에 승리하는 ‘지혜와 ‘합을 엄연히 갖추고 있다고 가르칩니다. 불법은 승리의 철학을 가르치는 법입니다. 이 회망의 철리(哲理)를 배우고, 연전연승하는 모든 원천이 ‘불법은 승부라는 교학입니다. 일찍이 도다 선생님은 숙명에 정면으로 맞서는 어느 여자부원을 격려하셨습니다. 그 여자부원은 어려서 아버지를 여의고, 믿고 의지하던 어머니마저 여의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힘든데 투병까지 하고 있었습니다. 도다 선생님은 지도를 구하는 그 여자부원에게 자애로운 표정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문제에 관해 얼마만큼 고민하고 있나. 이 신심(信心)은 고민해야 하는 신심일세. 고민하고 해결하는 신심이라네.” 불법의 급소를 찌르는 지도였습니다. 나도 도다 선생님에게 이렇게 들은 적이 있습니다. “다이사쿠, 인생은 고민해야 한다. 고민해야 비로소 신심도 알 수 있다. 위대한 사람이 된다.” 1956년 역사적인 ‘오사카투쟁에 임하기 직전에 들은 말씀입니다. ‘고민한다는 말은 진정으로 생로병사(生老病死)라는 숙명과 격투한다는 뜻입니다. 숙명에 반통되어 한탄하며 울고만 있으면 이를 부술 수 없습니다. 숙명은 이겨서 극복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불법의 눈으로 보면, 숙명은 묘법의 위대함을 증명하기 위한 방편입니다. 그 여자부원은 스승에게 격려를 받고, 자기를 비하하는 비애(悲哀)에 찬 마음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미혹은 자기가 지닌 사명을 망각했을 때 생긴다고 깨달았습니다. 머지않아 그 여성은 여자부 리더로서 또 부인부 리더로서 활약하고, 인생을 마감하는 마지막 순간까지 ‘사제의 갈 ‘보은의 갈을 끝까지 걸었습니다. 존귀하고 승리한 그 모습은 지금도 수많은 동지의 마음에 계속 희망을 보내고 있습니다. 니치렌 대성인은 사도유좌라는 대난을 겪는 와중에도 제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반드시 승리하는 신심을 가르치셨습니다. <사도어서> 첫머리에서는 제자의 승리를 위해 ‘불석신명(不積身命)의 신삼과 ‘사자왕(師子王)의 마음을 쓰셨습니다. 헤아릴 수 없는 ‘불석(不積)의 회알을 설해 밝히셨습니다. 이번 범위에서는 악왕과 사범의 승을 물리치는 대성인의 사자왕과 같은 행동을 밝히셨습니다. 그리고 숙명전환을 실현하는 신심의 핵심을 직접 ‘보보가가 되어 제자에게 삼어주셨다고 삼가 볼 수 있습니다. “후회없이 사제의 정도(正道)를 걸어라!” “불이(不二)의 대도(大道)를 장악하라!” “제자여! 오직 연속 승리하라!” 이상이 이번 범위에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주제입니다.

[본문] (사도어서 957쪽 13~16행)

보치(寶治)의 합전(合戰)아래 이미 이십육년(二十六年) 금년(今年) 이월(二月) 십일일(十一日)과 십칠일(十七日)에 또 합전(合戰)이 있었느니라. 외도(外道). 악인(惡人)은 여래(如來)의 정법(正法)을 파(破)하기 어려우나 불제자(佛弟子) 등이 반드시 불법(佛法)을 파하느니라. 사자신중(師子身中)의 충(蟲)이 사자를 먹는다 등 운운. 대과보(大果報)의 사람을 다른 적(敵)은 파하기 어렵지만 친밀한 자가 파하느니라. 약사경(藥師經)에 가로되 자계반역난(自界叛逆難)이란 이것이니라. 인왕경(仁王經)에 가로되 “성인(聖人)이 떠날 때 칠난(七難)이 반드시 일어남” 운운. 금광명경(金光明經)에 가로되 “삼십삼천(三十三天)이 각각 진한(眞汗)을 생(生)함은 그 국왕(國王)이 악(惡)을 떼대로 하며 다스리지 않는데 연유(緣由)함” 등 운운.

[현대어역]

보치 전투가 일어난 지도 벌써 26년이 지났고, 올해 2월 11일과 17일에 또 전투가 있었다. 외도나 악인은 여래가 설한 정법(正法)을 무너뜨릴 수 없다. 반드시 불제자들이 불법을 무너뜨린다. “사자 몸 속에 있는 벌레가 사자를 인부터 먹는다.” 는 말과 똑같다. 마찬가지로 대과보(大果報)를 받는 사람을 외부에 있는 적이 쓰러뜨릴 수 없다. 내부에 있는 사람이 쓰러뜨린다. 약사경에서 자계반역난(自界叛逆難) 즉 “국토에 내린 일어난다.”고 설하는 까닭은 이런 이유 때문이다. 인왕경에서는 “성인이 나라를 떠날 때 반드시 칠난이 일어난다.”고 설하고, 금광명경에서는 “삼십삼천의 제천이 각각 분노와 원망을 나타내는 까닭은 국왕이 악을 범하지 않고, 퇴치하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설한다.

<입정안국론>의 예언적중

보치 전투는 보치 원년인 1247년에 셋켄(執權) 직에 있던 호조도키요리가 막부요직에 있던 마우라 씨의 일족을 멸망시킨 전란입니다. 이로써 호조 일문은 최대 맞수를 쓰러뜨리고 독재권력을 확립했습니다. 그러나 26년이 지나 이번에는 호조 일문 내부에서 권력쟁쟁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이 ‘2월 소동입니다. 여기에서 니치렌 대성인은 이 ‘2월소동이 바로 약사경에서 설한 ‘자계반역난(自界叛逆難)’의 모습이고, <입정안국론>에서 예언한 일이 적중했다고 분명히 밝히셨습니다. 내란을 비롯해 삼계칠난이 일어나는 근본원인은 정법을 소홀히 하는 데 있습니다. 불교는 ‘사범(邪法)의 승들이 출현해 가르침을 왜곡하면 내부부터 파괴됩니다. 대성인은 방법의 악승이 바로 불교를 파괴하는 ‘사자 몸 속의 벌레와 같은 존재라고 잘라 말씀하셨습니다. 사상이 흐트러져 생긴 가치관의 혼란으로 사람들이 지니고 있는 삼악도(三惡道) 사악취(四惡趣)가 유발되고 조장됩니다. 그런 까닭에 분노나 탐욕 그리고 우치와 질투 때문에 정법을 흉통하는 지지를 박해하고 사회에서 몰아내려고 합니다. 그런 시대가 말법입

나다. 악왕과 사법의 승이 결탁해서 지자가 사라지면, ‘축생의 마음’이 가득한 사회로 변하고 맙니다. 내린이 일어나고 민중이 괴로워잡니다. 불안(佛眼)과 법안(法眼)으로 보지 않으면, 정법을 박해하는 사건의 핵심과 사회에서 동란이 일어나는 근본원인을 알 수 없습니다. 불법은 승부입니다. 그러므로 사지왕의 마음으로 일어나 승리해야 합니다.

[본문] (사도에서 957쪽 16행~18행)

니치렌(日蓮)은 성인(聖人)이 아니지만 법화경(法華經)을 설(說)과 여(如)히 수지(受持)하니 성인(聖人)과 같다. 또 세간(世間)의 상황(狀况)을 미리 앞으로 해서 써 놓은 것이 틀리지 않는다. 현세(現世)에 말해둔 말이 틀리지 않음을 가지고 후생(後生)을 의심하지 말지어다.

[현대어역]

니치렌은 성인(聖人)이 아니지만, 경문에서 설하는 대로 법화경을 수지하고 있으므로 성인(聖人)과 같다. 또 세간의 실상도 일이 일어나기 전에 알고 있었으므로 써두었는데, 그대로 되지 않을 리 없다. 현세에 관해 말한 일이 틀림없다는 점에 비추어 후생(後生)에 관해 말한 일도 의심(疑心)을 일으켜서는 안 된다.

지자(智者)는 사회현상의 본질을 안다

‘성인(聖人)이나 그렇지 않느냐 하는 문제는 겉보기나 지위로 판단하지 못합니다. 판단기준은 몸가짐, 즉 행동입니다. “법화경을 설과 여히 행하다.” 즉 여설수행(如說修行)하는 행자(行者)가 바로 진실한 성인(聖人)입니다. “일체의 법은 모두 이는 불법” (어서 1366쪽)입니다. 불법을 규명한 성인(聖人)은 세법도 숙지합니다. 사회현상에 내포된 본질을 예리하게 간파하기 때문에 미래를 정확히 전망할 수 있습니다. 대성인이 <사도에서>에서 예언이 적중했다고 강하게 선언하신 일은 탄압을 받으며 투쟁하던 문화에게 가장 큰 희망과 격려가 됐습니다. “현세에 안전(眼前)의 증거가 있는 사람이 이 경을 설할 때는 믿는 사람도 있으리라. (어서 1045쪽)는 말씀처럼 ‘눈앞의 증거가 있으면 광선유포는 크게 발전합니다. “현세(現世)에 말해둔 말이 틀리지 않음을 가지고 후생(後生)을 의심하지 말지어다.” 대성인은 삼세를 아는 참된 지자임이 틀림없습니다. 문히들은 그 점을 다시 한번 깊이 확신했을 것입니다. 차원은 다르지만, 이제껏 창기의 사제(師弟)도 대성인이 말씀하신 대로 ‘눈앞의 증거’를 소중히 여기며 사회에서 하나하나 승리의 현증을 나타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계에서 신뢰를 구축할 수 있었습니다.

[본문] (사도에서 957쪽 18행~958쪽2행)

니치렌은 이 간토의 일문(一門)의 동량(棟梁)이 아니라. 일월(日月)이며 귀경(龜鏡)이고 안목(眼目)이 아니라. 니치렌을 버리고 말 때 칠난(七難)이 반드시 일어난다고 지난해 구월(九月) 십이일(十二日) 감죄(勘罪)를 받았을 때 큰 소리로 외친 것은 바로 이것이다. 불과 육십일(六十日) 내지 백오십일(百五十日) 만에 이 일이 일어났는데 이는 화보(華報)가 아니라. 실과(實果)가 이루어졌을 때 얼마나 한탄(恨歎)할 것인가.

[현대어역]

지난 해 9월12일에 막부에 체포됐을 때, “니치렌은 간토의 호조 일문에게 대들보이고, 태양이며 달이고, 거울이며 안목(眼目)이다. 니치렌을 버릴 때 칠난이 반드시 일어날 것이다.”하고 큰 소리로 외친 까닭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그 일이 일어난 후 불과 60일 내지 150일 만에 이 일이 일어났다. 그러나 이것은 정조다. 정밀로 과보가 나타났을 때 얼마나 한탄스러워할까.

민중구제를 위한 불석의 간호

“니치렌은 이 간토의 일문의 동량(棟梁)이 아니라. 일월(日月)이며 귀경(龜鏡)이고 안목(眼目)이 아니라.”고 말씀하신 데는 더할 나위 없이 중대한 뜻이 담겨 있습니다. 이 ‘일문’은 호조 씨 일문을 가리키며 막부의 중추, 더 나아가서 일본국 전체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량’은 ‘주덕(主德)’을, ‘일월’ 귀경, 안목은 ‘사덕(師德)’을, 그 다음에 말씀하시는 ‘부모’는 ‘친덕(親德)’을 나타내며, 대성인 당신이 주사친의 삼덕을 구비하신 말씀의 어본불임을 시사하셨습니다. 그리고 앞 문단에서 인용하신 “성인(聖人)이 떠날 때 칠난(七難)이 반드시 일어남”이라는 인왕경 경문에 맞춰, “니치렌을 버리고 말 때 칠난이 반드시 일어난다.”는 확신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일어난 일은 징조에 지나지 않는다. ‘실과(實果)’ 즉 참된 과보가 나타나기 전에 진실에 눈뜨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절대로 전란을 일으켜서는 안 된다, “권력자여, 사람들이여, 때를 놓치지 전에 민중의 안운을 위해 각성하라.”고 불석신명(不捨身命)으로 계속 간호 하셨습니다.

[본문] (사도에서 958쪽 2행~4행)

세간(世間)의 우자(愚者)가 생각하여 가로되 니치렌이 지자(智者)라면 어찌 왕난(王難)을 당하느냐고 하는데 니치렌은 이전부터 알고 있는 터이니라. 부모를 친 자식이 있으니 아사세왕이요, 부처와 아라한(阿羅漢)을 죽이고 피를 흘리게 한 자가 있으니 제비달다(鷓鴣)이니라. 육신(六臣)이 이를 칭찬하고 구가리(瞿伽梨) 등은 이를 기뻐하였다.

[현대어역]

세간의 우자(愚者)가 생각하여 말하기를 “니치렌이 지자(智者)라면 어째서 왕난(王難)을 만나는가.”라고 한다. 그러나 니치렌은 일찍이 알고 있었다. 부모를 죽이려던 자식이 있었으니 아사세왕이다. 아라한을 죽이고 부처의 몸에 상처를 입혀 피를 흘리게 한 자가 있었으니 제비달다다. 그런 행동을 아사세왕의 중신(重臣) 여섯명은 칭찬하고, 구가리를 비롯한 제비달다의 제자들은 기뻐했다.

광대무변한 사덕의 은혜

이어서 세간에서 “니치렌이 지자라면 왜 왕난(王難)을 만나고, 유배를 당하는가?”라고 의심 받는 일을 드셨습니다. 이 의심은 두 가지 비판으로 성립합니다. 하나는 지자가 왜 자기에게 일어날 박해를 미리 예상하지 못했느냐는 비판입니다. 또 하나는 지자라면 세간에서 존경받아야 마땅하지 않느냐는 비판입니다. 그러나 대성인은 한마디로 ‘우자의 생각’이라고 일축하셨습니다. “이전부터 알고 있는 타이나라!” 즉 박해를 받는다는 사실을 처음부터 알고 있었다. 부처는 반드시 박해를 받는다. 이는 곧 불법의 도리라는 말씀입니다. 법화경 행자를 박해하는 일은 주위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지닌 내면의 경애를 뚜렷이 드러나게 만듭니다. 현자인지 우자인지, 온몸으로 박해를 받는 스승에게 감사하며 함께하려고 결심하는지 반대로 박해하는 자에게 가담해 도리에 어긋나는 극악한 행위를 조장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도다 선생님은 이 글월을 배독하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도 한 차례 왕난을 만났지만, 운이 좋으면 한번 더 만나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 정도쯤은 각오하고 있습니다. 각오하지 않으면 할 수 없습니다.” 도다 선생님은 내가 오사카사건에서 사실무근의 죄로 체포됐을 때도 최악한 몸으로 검사장에게 항의하기 위해 몸소 오사카지방검찰청까지 가셨습니다. “학회 파괴를 노리는 것이라면 나를 가둬라.” “왜 아무 죄도 없는 제자를 감옥에 가둬두느냐?” 참으로 고마우신 스승입니다. 이 광대무변한 스승의 은혜에 보답하는 일이 제자의 길입니다. 나는 62년간 제자의 정도(正道)를 관찰했습니다. 조금도 후회하지 않습니다.

[본문] (사도에서 958쪽 4행~7행)

니치렌은 당세(當世)에는 이 일문(一門)의 부모이고 부처 아라한(阿羅漢)과 같노라. 그러하거늘 유죄(流罪)에 처하고 주종(主從)이 함께 기뻐했으니 가련하고 무참(無慘)한 자로다. 방법(辯法)의 법사(法師)들이 스스로 화(禍)가 이미 나타난 것을 한탄하였으나 이렇게 됨을 일단은 기뻐할 것이로되, 후에는 그들의 한탄은 니치렌의 일문에 못지 않으리라. 예컨대 야스히라가 동생을 죽이고 구로관관을 죽이고서 기뻐한 것과 같다. 이미 일문을 멸망시킬 대귀(大鬼)가 이 나라에 들어왔으니 법화경에 가로되 ‘악귀입기신(惡鬼入其身)’이란 이것이니라.

[현대어역]

니치렌은 지금 세상에서 이 일문의 부모이고 부처나 아라한과 같다. 그런 니치렌을 유배 보내고, 주군도 자신도 함께 기뻐하고 있으니 가련하고 수치를 모르는 무리들이다. 방법승들이 이전에는 니치렌으로 밀미입아 자기의 화근이 분명히 밝혀진 일을 한탄했지만, 지금은 니치렌을 비롯한 문하가 이런 사정에 처한 일을 기뻐할 것이다. 그러나 나중에 그 방법승들의 한탄이 지금 니치렌 일문의 한탄보다 덜하지는 않으리라. 이를테면 후지오라야스히라가 동생인 다다히리를 죽이고, 또 미나모토노요시쓰네를 죽이고 기뻐한 경우와 같다. 이미 호조 일문을 멸망시킬 대귀가 이 나라에 들어왔음이 분명하다. 악귀입기신(惡鬼入其身) 즉 ‘악귀가 그 몸에 들어간다.’고 설한 법화경 경문은 이것을 말한다.

입정안국의 실천을 당당히!

“니치렌은 당세에는 이 호조 일문의 부모다.” 이 얼마나 당당한 선언입니까. 권세 따위는 털끝만큼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당신을 유배 보내고 사형에 처하려고 한 호조 씨 일문의 부모에 해당하는 존재라고 엄연히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어분들의 위대한 경애입니다. 그런 대성인을 박해하고 ‘주종이 함께 기뻐한’ 자들은 그 뒤에 어떻게 됐을까요. 대성인이 말씀하신 “후에는 그들의 한탄”이 엄연히 나타나고 말았습니다. 이 원리는 어떤 시대라도 변함없습니다. 창가의 삼대(三代)에 걸친 사제는 대난과 끝까지 투쟁했으며 그리고 승리했습니다. 이 준엄한 역사를 각인하며 영구히 잊지 말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성인은, “일문을 멸망시킬 대귀(大鬼)”가 이 나라에 들어왔다고 단언하셨습니다. 정의로운 사람이 박해당하는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기뻐하는 모습은 참으로 ‘악귀입기신(惡鬼入其身)’과 같은 사회입니다. 사물의 판단을 어지럽히는 악귀가 온 나라 안에 들어왔다는 말씀입니다. 사상이 혼란해지는 일만큼 두려운 일은 없습니다. 이런 사회를 바꾸는 방법은 우리가 입정안국을 실천하는 일입니다. 그것이 니치렌 불법의 정신입니다.

[본문] (사도에서 958쪽 8행~14행)

니치렌도 또한 이렇게 책(責)을 당함은 선업(先業)이 없지 않으리라. 불경품(不經品)에 가로되 ‘기죄필이(其罪罪) 등 운운. (중략) 또 과거의 방법(辯法)을 생각함에 누가 알리오. 승의비구(勝意比丘)의 혼인가, 대천(大天)의 혼인가, 불경(不經)을 경쾌(輕毀)한 유류(流類)인 것일까, 실심(失心)의 여잔(餘殘)인가, 오천상만(五千上慢)의 관속(眷屬)인가, 대통제삼(大通第三)의 여류(餘流)이더라도 한가. 속업(宿業)은 헤아리기 어렵다.

[현대어역]

또 니치렌이 이렇듯 박해당하는 까닭도 과거세부터 이어온 업이 전혀 상민없지는 않다. 불경품에서는 기죄필이(其罪罪), 즉 ‘과거에 지은 죄의 과보를 받아서 마치고 나사’라고 설한다. 불경보살이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방법(辯法)을 저지른 사람들에게 욕설을 듣고 얻어맞은 까닭도 과거세 업의 과보였다. 히물며 니치렌은 금생에서 가난하고 미천한 신분을 지닌 자이며 전다라 집안 출신이다. 미음으로는 조금 법화경을 믿는 듯하지만, 몸은 인간을 닮은 축생과 같은 몸이다. 물고기나 새를 먹는 부모의 적백이제(赤白二流, 난자와 정자)에서 태어났으며, 그 몸 안에 정신을 간직하고 있다. 그것은 마치 탁한 물에 달이 비치는 것과 같고, 분(糞)을 넣은 자루에 황금을 싸 넣은 것과 같다. 미음은 법화경을 믿고 있으므로 범천이나 제석마져 두려워지 않으나 몸은 축생과 같은 몸이다. 몸과 마음이 잘 어울리지 않으므로 어리석은 자가 업신 여기는 데도 일리가 있다. 미음도 몸과 비교하기 때문에 달이나 황금에도 비유할 수 있다. 또 과거세의 방법을 생각하면 누가 참된 진실을 알 수 있었는가. 내 미음은 승의 비구의 혼인가, 대천의 혼인가, 불경보살을 업신여기고 욕설한 자들의 부류인가, 법화경을 살법하는 곳에서 일어나 자리를 뜬 등성만에 찬 오찬명의 관속인가, 옛날 대통제삼불이 설한 법화경과 인연을 맺고도 발심하지 않은 자들의 여류(餘流)인가. 속업을 헤아릴 수 없다.

인류의 숙명전환을 위한 대투쟁

<사도에서> 는 대성인이 몸소 사자와왕과 같이 투쟁하신 모습을 밝히고, 이와 함께 문하에게도 “사자의 지식은 사자와왕이라!”하고 부르짖는 ‘사체불이’ 어서입니다. 지금

까지는 대난과 투쟁하는 사자왕의 실천을 밝히고, 박해자인 악왕과 사법의 승들이 사자후 앞에서 축생의 경애를 드러낸다고 쓰셨습니다. 그런데 지금부터는 사자왕이 성 불을 향해 정신투쟁을 한 궤적을 밝히셨습니다. 즉 성불은 다음인 자신의 숙명전환이며, 오직 대난에 맞서 투쟁함으로써 과거세부터 이어온 숙업을 타개할 수 있다고 밝히셨습니다. 불석신명하는 투쟁이 바로 영원히 행복해지는 길입니다. 대난은 즉 '숙명을 전환하기 위한 지름길'입니다. 그러므로 '투쟁하는 마음'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현실에서 숙명을 깨뜨리기는 그리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어디까지나 불법을 끝까지 지속하는 실천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대성인이 몸소 가르쳐주셨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의 숙명에 맞서 철저히 투쟁하겠다고 각오해야 한다고 촉구하셨습니다. “니치렌도 또한 이렇게 책(責)을 당함은 선업(先業)이 없지 않음이라.” 이 말씀은 박해의 사회적 배경이야 어찌됐든 대난을 받는 일 자체가 실은 과거세부터 이어온 죄업 때문이라고 가르치신 말씀입니다. 또 이것은 법화경에서 말하는 원리임이 분명하다고 불경보살의 '기좌필이(其罪畢已)'라는 법리를 통해 밝히셨습니다. 불경보살은 만인에게 갖춰진 불성을 예매하고, 개성불도(皆成佛道)라는 법화경 원리를 실천했습니다. 그 일 때문에 자광이나 몽둥이를 비롯해 기왓장이나 돌맹이 등으로 박해를 받았지만, 실은 그 모든 것이 불경보살의 선업(先業)에 따른 과보였습니다. 그러나 불경보살이 박해를 받으면서도 예매행을 관철함으로써 자신의 죄업을 소멸하고 나중에 부처가 됐다 법화경에서는 가르칩니다. 우리도 삼장사마(三藏四覽), 삼류(三類)의 강적과 투쟁하는 속에서 반드시 자신의 죄장(罪障)을 소멸하고, 절대적으로 행복한 경애와 영원한 행복을 확립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성불의 공덕입니다. 이어서 대성인은 “니치렌은 금생(今生)에는 빈궁하천(貧窮下賤)한 자로 태어나고 전다라(解達羅)의 집에서 출생(出生)하였노라.”고 당신의 출생에 관해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실은 말할 나위 없이 니치렌 불법은 서민편이며 진실한 민중불법이라는 증명입니다. '빈궁하천한 처지에서 출발했다는 점은 신앙자에게 가장 명예로운 일입니다. 그러므로 “창기학화는 영원히 민중편에 선다.” 이것은 절대 변하지 않는 정신입니다. 본문에서 대성인 자신의 몸은 '축생의 몸'이라고 강조하셨습니다. 마음은 법화경에 대한 신심을 관철하므로 존귀하게 빛난다. 무엇도 두려워하지 않는 가장 존귀한 혼을 지녔다. 그렇지만 '축생의 몸'과 가장 존귀한 마음은 정말 어울리지 않기 때문에 박해를 받아도 어떤 면에서는 일리가 있다. 아니 마음을 응시해보면 과거 박해자나 퇴전자의 생명경애에 통하는 무명도 있다. 이렇듯 대성인의 통찰은 이어집니다. 그리고 “숙업(宿業)은 헤아리기 어렵다.” 즉 숙업이 얼마나 무거운지 가늠할 수조차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조금도 타협하지 않고 엄하다고 할 정도로 생명을 응시하셨습니다. 이렇듯 대성인의 강인한 정신투쟁이 있었기 때문에 인류의 숙명을 전환하는 보편적인 길이 완성됐습니다. 니치렌 대성인이 계셨기 때문에 말법 만년에 걸쳐 일체중생이 구간지옥으로 떨어지는 길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대성인에게 직결하며 인류의 '숙명을 해방하는 선구적인 실증'이 우리 학회원이 만들어낸 무수한 숙명전환 드라마임이 분명합니다. '최고의 불법'과 '기적을 만들어낸 민중'이 인류의 숙명을 전환하는 길을 실현했다고 틀림없이 후세의 역사가 증명할 것입니다.

[본문] (사도아서 958쪽 14~15행)

쇠는 불에 달구어 두드리면 검(劍)으로 되고 현성(賢聖)은 매리(罵詈)함으로써 시험(試驗)되니라. 나의 이번의 감죄(勘罪)는 세간의 허물은 조금도 없으나 오로지 선업(先業)의 중죄(重罪)를 금생(今生)에 없애고 후생(後生)의 삼악(三惡)을 면(免)하기 위함이나니라.

[현대어역]

쇠는 달구어 두드리면 검이 된다. 현인과 성인은 욕설을 듣고 시험된다. 내가 이번에 처벌받은 이유는 절대로 세간에서 지은 죄 때문이 아니다. 오로지 과거세 업에서 비롯된 무거운 죄를 금세에서 없애고 후생에 겪을 삼악도의 괴로움을 면하기 위함이다.

생명의 단련이 최고의 공덕

숙명전환의 불법을 실천하는 급소를 가르친 구절입니다. 가장 큰 공덕은 자기 생명을 단련하는 일입니다. 완전히 단련된 생명이 영원한 행복을 약속합니다. “세간(世間)의 허물은 조금도 없으나” 즉 사회적인 죄는 전혀 없으며, 오직 금세에 숙명을 전환하기 위해서 유배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불법은 자기 생명을 단련하고, 변혁하기 위해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자기 행복의 대장장이” (솔로호프)입니다. 내 제자여, 강철이 되어라! 검이 되어라! 진실한 현인, 성인으로 일어서라! 대성인은 고투하는 문하의 어깨를 힘껏 흔들듯 이렇게 격려하셨습니다. “숙명을 전환하는 주체는 자기 자신이다. 자신 안에 그런 힘이 있다.” “고난을 피하지 마라. 진정한 승리는 자신에게 이기는 일이다.” “위대한 고뇌는 위대한 자신을 만든다. 영원한 승리가 될 수 있다”

[본문] (사도아서 958쪽 16행~959쪽 5행)

반나원경(般尼原經)에 가로되 “당래(當來)의 세(世)에 가령 가사(袈裟)를 입고 아(我)의 법중(法中)에 있어서 출가(出家) 학도(學道)하여 나타해태(懶惰懈怠)로서 이런 등의 방등계경(方等契經)을 비방(誹謗)하는 일이 있으리니 마땅히 알지아다. 이들은 모두 금일(今日)의 여러 이도(異道)의 도배(徒輩)이나니라.” 등 운은. 이 경문을 보는 자는 자신을 부끄러워할지니라. (중략) 단, 일천제인(一闍提人)이라 하여 방법자(謗法者)만이 지옥수(地獄守)에게 억류(抑留)되어 있었는데 그들이 날아 퍼뜨려 금세(今世)의 일본국의 일체중생(一切衆生)으로 되었느니라.

[현대어역]

반나원경에서는 이렇게 설한다. “다음 세상에, 걸로만 가사를 입고 불법 안에서 출가해서 불도에 뜻이 있는 듯하지만 수행을 게을리하며 정진하지 않고 대승경전을 비방하는 자가 나타날 것이다. 이 사람들은 모두 참으로 오늘날의 불법에 위배되는 자들이라고 알아야 한다.” 이 경문을 보는 자는 자기를 부끄러워해야 한다. 부처는 말법의 지금 승들처럼 출가해서 가사를 입었으면서 수행을 게을리하고 정진하지 않는 자는 석존시대에 있었던 육사외도(六師外道)와 같은 제자라고 써서 남겼다. 호넨 일파와 다니치보노넨 일파는 각각 염불종, 선종이라고 일컫는다. 염불종은 법화경에 “부려라, 단아라, 제쳐놓아라, 내던져라.” 라는 ‘사법각포(捨罪棄拋)’의 네 글자를 더해 정법을 버리게 하고, 권고인 이미타야래의 이름을 부르는 수행만 주장한다. 또 선종은 “석존의 깨달음은 경문과 별도로 전한다.” 즉 교외별전(敎外別傳)이라고 해서 법화경은 달을 가르키는 손가락이며 법화경을 독송하는 일은 단지 글자를 세는 일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웃는다. 이러한 자들은 육사외도(六師外道)의 말투가 불교 안에 나타난 것이다. 이 얼마나 한탄스러운 일인가. 열반경에서는 부처가 광명을 발하며 대지 아래 백삼십육 지옥을 비췌는 때 죄인이 한 사람도 없었다. 왜냐하면

법화경 수량품에서 모두 성불했기 때문이다. 다만 일천제인이라는 방법지만 지옥의 파수군에게 잡혀있었다. 그 방법자들이 근원이 되어 넓혀져서 현재 일본국의 일체중생이 됐다.

일본은 방법(說法)이 충만한 나라

이 부분에서는 방향을 완전히 바꿔 박해자측, 다시 말해 사법(邪法)의 승들과 독기심입(毒氣深入)으로 본심을 잃은 일본 사람들의 업보를 간파하셨습니다. 반니완경에 비춰보면 불교를 믿으면서 게으름을 피우고 법화경을 비방하는 악승들은 석존 재세에 불법을 비방한 외도의 말류에 해당한다고 지적하셨습니다. 또 대성인 재세시에 법화경을 거듭 비방하던 여러 종파 승려들의 주장을 파절하셨습니다. 그 승려들에게서 공통적으로 보이는 부분은 아무 근거도 없이 법화경을 비방하고 법화경을 버리게 하려는 독선적인 태도입니다. 대성인은 그 정체를 육사외도(六師外道)의 말류라고 갈파하셨습니다. 도다 선생님은 이 글월을 배독하고 이렇게 단언하셨습니다. 즉 대성인을 괴롭힌 악승이 이번에는 현대의 여러 종파에서, 더 나아가서 일련정종 안에서 출현할 것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광포를 적대하는 닛켄 일파가 사람들의 마음을 괴롭고 혼란스럽게 만드는 모습을 보면 정말 도다 선생님이 말씀하신 예견과 똑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본문에서는 대성인을 함담하고 비방하던 일본사람들도 법화경 수량품에서조차 성불하지 못한 일천제(一闍提)의 생명과 다름없다고 지적하셨습니다. 이른바 대성인이 투쟁하신 ‘법화경의 작’의 정체가 무엇인지 밝히셨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육사외도와 일천제는 법화경을 불신하거나 비방하는 생명을 일컫습니다. 그 뿌리에는 어떤 생명이 있는가, 바로 법화경에서 말하는 ‘만인을 존경하는 정상을 이해하지 못하는 무명(無明)의 생명입니다. 현대적으로 말하면 ‘생명존엄을 부정하는 알이며, ‘만인평등을 부정하는 알이고, ‘한 사람이 지닌 무한한 가능성을 부정하는 알입니다. 자기 자신을 제대로 볼 수도 없으면서 올바른 법을 구하려고 하지도 않고 태연히 올바른 사람을 업신여긴다고 말씀하신 대성인의 통찰은 현대 일본인이 지닌 ‘종교멸시, 사상경사 경향과 겹치는 면도 있는 듯합니다. 이틀대면 나카무라 하지메 박사는 이렇게 논했습니다. “일반적인 일본인은 형이상학적인 영역에서 생각하는 경향이 약하므로 불교를 믿는다 할지라도, 반드시 마음 깊은 곳에서 경외(敬畏)하는 마음으로 존경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부처를 업신여기며 놀리는 경우가 있다. ‘모르는 것이 부처 (모르는 것이 악이다)’라든지 ‘부처의 얼굴도 세 번(지랑이도 밟으면 꿈틀한다)’이라든지 하는 말처럼 부처를 아주 스스럼없이 대하고 있다. “진지한 뜻이 담긴 불교용어가 일상생활에서는 본디 뜻이 무너지져 농담으로 쓰이는 경우가 대단히 많다.” 생명의 근본적 대사(大事)인 불법질려에 관해 똑바로 배우려고 하지 않는다. 오히려 경멸하거나 야유하려 한다. 이렇듯 불신으로 뒤덮인 현대 일본사회의 정신도양을 바꾸려고 끈기있게 도전하며, 사람들의 경애를 끌어올리는 정신투쟁이 바로 우리가 실천하는 대화운동입니다.

[본문] (사도에서 959쪽 6행~959쪽 14행)

나치렌도 과거의 종자(種子)가 이미 방법(說法)의 사람이므로 금생(今生)에 염불자(念佛者)로서 수년 동안 법화경(法華經)의 행자(行者)를 보고는 미유일인득자(未有一人得者) 천중무일(千中無一) 등이라고 비웃었느니라. (중략) 가마쿠라의 염불자(念佛者)보다도 훨씬 어리석으니 무참(無慚)하다고 말할 수밖에 없다.

[현대어역]

나치렌도 과거에 방법의 종자를 지닌 자이므로 금세에는 염불자가 되어 수년간 법화경 행자를 보고도 미유일인득자(未有一人得者), 즉 “이직도 성불한 자가 한 사람도 없다.” 천중무일(千中無一), 즉 “천명 중 한 명도 없다.”고 비웃었다. 지금 그 방법이라는 술에서 깨어보니, 술에 취한 자가 부모를 때리고 기뻐하다가 술이 깬 뒤에 후회하는 일과 같다. 후회해도 어찌할 수 없다. 이 죄는 자우기가 힘들다. 허물며 마음속에 물든 과거의 방법은 더욱 힘들다. 경문을 보면, 까마귀가 검은 까닭도 백코가 흰 까닭도 과거세 업이 강하게 물들었기 때문이라고 한다. 외도(外道)는 그 사실을 모르고서 자절로 그렇게 됐다고 말하고, 지금 사람들은 나치렌이 경문에 따라 방법죄를 분명히 밝혀서 도우려 하면 자기 몸에는 방법이 없다고 강하게 우겨대며 호언이 “법화경의 문을 닫으라.”고 쓴 사실조차 아더궁자더궁 항변한다. 염불자는 차치하고, 천태종이나 잔안종을 믿는 사람들도 새삼스럽게 염불의 편을 든다. 올해 1월 16일과 17일에 사도지방에서 염불자를 비롯한 수백명 중에서 인소보리는 자가 염불자의 중심이었는데, 나치렌에게 와서 이렇게 말했다. “호년 상인은 법화경을 내던지라고 쓴 것이 아니다. 일체중생에게 염불을 부르라고 한 것이다. 히에야산의 승려이며 사도에 유배된 자들이나 온조사 승려들이 염불의 대공덕으로 반드시 극락정토에 태어난다고 쓴 내용을 ‘훌륭하다, 훌륭해.’하고 칭찬하는데 왜 당신은 염불을 파절하는가.” 이는 가마쿠라의 염불자보다 훨씬 더 어리석으며 부끄러움을 모른다고 할 수밖에 없다.

‘인간을 위한 종교’의 복권

이어서 대성인은 예전에 수학하던 시절을 예로 들며, 많은 일본 사람이 당시 염불이 얼마나 천박한지 깨닫지 못하고 미혹한다고 지적하셨습니다. 법화경을 적대하는 자와 또 그런 자를 신봉하는 자가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러나 ‘법화경의 작’을 보면서 방치하고 투쟁하지 않는 ‘법화경 수행자들의 존재가 더 문제였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건물을 비롯해 전통과 격식 그리고 사회적인 지위가 있어도 ‘정의를 위해 투쟁하는 마음’이 사라지면 타락, 쇠퇴, 권위화, 공동화(空團化)가 시작됩니다. 종교는 인간을 위해 존재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을 고쳐야 빠뜨리는 종교를 방치하고 민주군제를 망각하면, 바로 ‘민중의 작’이 되고 맙니다. 그런 민중의 적을 결코 용서해서는 안 됩니다. 나치렌 대성인이 실천하신 절복은 석존의 참된 자비정신을 부흥하고, 인간의 경애를 끌어올리는 종교의 복권을 위한 투쟁입니다. “위대한 인물일수록 조소의 표적이 된다. 소인배는 표적이 되지 않는다.” (히이네) 대성인은 모든 박해와 비판을 아랑곳하지 않고, 유연히 자신의 ‘숙명전환, 즉 ‘성불의 대도(大道)’를 걸으며 몸소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스승은 제자가 ‘나치렌과 동의(同意)’ ‘나치렌과 같아’라는 신심으로 일어나서 승리하기를 기대합니다. 우리 창가학회는 이 사제의 보광(寶光)을 계승했습니다. 21세기를 사는 오늘날 창가학회는 ‘나라의 기둥, 세계의 안목, 인류의 대선(大船)’으로서 찬연히 빛나고 있습니다. 마키구치 선생님과 도다 선생님 그리고 제 3대인 내가 불식산명으로 투쟁해 남긴 나치렌 불법의 ‘사제훈(師徒勳)’을 계승하는 한 학회는 영원히 번영합니다. 특히 뒤를 잇는 찬란부 여러분이 이 광천유포 승리의 방정식을 생명에 깊이깊이 새기기 바랍니다. ■

사도어서 (하)

한평생 ‘사제의 대도’를 꿋꿋이 살아라!

강 의

<사도어서>를 배독하면, 선명히 떠오르는 광경이 있습니다. 바로 도다 선생님이 경영하시던 사업이 가장 힘든 상황에 처했을 때의 일입니다. 선생님은 학회 이사장을 사임하고, 오로지 사업을 타개하려고 고투하는 중이었습니다. 어느 때가 <사도어서>를 배독하고 계셨습니다. 니치렌 대성인이 사도에서 온갖 힘담과 욕설을 들으며 웃이나 음식도 불편을 겪는 등, 경전에서 설한 대로 온갖 고생을 다하시는 내용이 나오는 부분이었습니다.

“아, 대성인도 이렇게 힘든 상황이었다. 지금 내 상황도 그렇다네.” “아무리 애를 써도 돈이 벌리지 않으니 말일세.” 선생님은 그렇게 말씀하며 웃으셨습니다. 어렵고 힘든 사업형편에도 웃음을 지으며 유연하게 행동하시던 선생님 모습이 언제까지나 마음속에 남아 있습니다.

또 어느 날의 일입니다. 당시 대장성(大藏省)에 가신 선생님이 진눈깨비가 내리는 한파 속에서 몸을 떨며 돌아오셨습니다. “세상은 차갑구나.” 하고 웃으시던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이사쿠, 나는 결코 패한 것이 아니다. 사업이 실패했을 뿐이다. 진정한 투쟁은 지금부터 시작이다.”

경제적으로는 실패한 것처럼 보이지만, 인생에서 신심에서 진 것이 결코 아니다. 내게는 진정한 제자가 있다! 지금부터 진정한 승부다! 그런 선생님의 기백을 접하고, 나도 ‘그누구도 함부로 선생님을 건드리지 못하게 하겠다.’ 는 각오와 투지를 더욱 불태웠습니다.

어서에는 고난의 열풍(烈風)이 휘몰아치는 속에서도 불굴의 투지를 불타오르게 하는 엄연한 힘이 있습니다. 니치렌 대성인의 정신이 내 몸에서 맥동한다면 무엇도 두려워할 것은 없습니다. 유념해서 어서를 배독하는 한 어떤 숙업에도 지는 일은 없습니다. 그리고 사제를 철저히 하는 한 어떤 장애(障礙)도 방해할 수 없습니다. ‘어서와 사제를 근본으로 하는 삶을 관찰하면 어떤 벽도 모두 부술 수 있음을 확신하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전 민중의 숙업전환을 실현하신 ‘사지왕의 대경애’를 배독하겠습니다.

[본문]

더욱더 니치렌(日蓮)의 선생(先生), 금생(金生), 선일(先田)의 방법(方法)이 두렵다. 이러한 자의 제자가 되어 이러한 나라에 태어났으니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노라. (사도어서 959 쪽 15 행)

[현대어역]

니치렌이 과거세와 금세 그리고 지난 날에 이르기까지 지은 방법(方法)은 더욱더 두렵다. 여러분은 어쩌서 이러한 자의 제자가 되셨을까. 어쩌서 이러한 나라에 태어났을까.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상상조차 할 수 없다.

“우리 문하여! 사지왕이여!”

‘인생의 스승’을 만나고, ‘사제의 갈’을 일관하는 일만큼 궁지 드높은 인생은 없습니다. 니치렌 불법은 ‘사지왕(師子王)의 종교’입니다. 대성인은 <사도어서>에서 제자들에게 한평생 ‘사제의 대도’를 꿋꿋이 살아야 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즉 스승은 사자의 경애로 끝까지 투쟁했다. 제자 또한 ‘사지왕의 마음’으로 투쟁하면 반드시 부처가 된다. “이 대난 속에서 비로소 위대한 숙업전환을 할 수 있다. 성불은 틀림없다. 그러므로 숙업을 전환한 내 투쟁을 보라! 모범으로 살아라!” 하고 말합니다. <사도어서>는 어디까지나 제자를 염려하는 ‘스승의 마음’이 전면에 걸쳐 가득 넘칩니다.

지난 강의에서 확인했듯이, 대성인은 숙업을 전환하는 법리를 밝히기 위해 불경보살의 실천을 언급하셨습니다. 목숨까지 위태로운 대난인 사도유죄를 당하는 까닭은 대성인의 ‘선업(先業)’ 때문이라고 밝히셨습니다. 그리고 “숙업은 헤아리기 어렵다.” (어서 958 쪽) 고 하며 조금도 타협하지 않고 자신의 숙업을 깊이 직시하셨습니다.

대성인은 또 이 문단에서 비단 과거세뿐 아니라 금세에 불교를 배우면서도 방법(方法)을 범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말씀하신 “방법이 두렵다.”는 일본의 불교계가 정법비방에 빠진 현실을 지적하신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말 ‘두려운’ 일은 불교를 배우면서 방법을 범하는, 당시 일본의 일국방법(一國方法)이라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와 함께 “이러한 자의 제자가 되어라”고 사제의 유대를 확인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스승과 함께 투쟁하는 인생의 기쁨’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하셨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성인의 제자로서 박해를 받고, 대난에 맞서 투쟁할 수 있는 경애가 얼마나 숭고하고 훌륭한가. 대성인은 문하에게 이 정신을 각인시켜 주셨습니다.

[본문]

반나원경에 가로되 ‘선남지여, 과거에 무량(無量)의 제죄(諸罪), 중중(種種)의 악업(惡業)을 지음에 이 모든 죄보(罪障) 혹은 경이(輕易) 당하고, 혹은 형상추루(形相 추루)하여 의복이 부족하고 음식 추소(欸少)하며 재(財)를 구하여 이(利)가 없고 빈천(貧賤)한 집 및 사견(邪見)의 집에 태어나며 혹은 왕난(王難)을 당한다.’ 등 운운(중략) 이 팔구(八句)는 오직 니치렌 한 사람만이 몸에 느꼈노라. (사도어서 959 쪽 16 행~2 행)

[현대어역]

반나원경에서는 ‘제자들이여, 과거세에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죄나 여러 가지 악업을 지었다면 그 죄의 과보로, 어느 때는 사람들에게 경시 당하고, 어느 때는 용모가 추해지고, 옷이 부족하고, 음식이 변변치 못하며 적고, 부유함을 원해도 얻지 못하고, 가난하고 신분이 낮은 집안이나 그릇된 사상을 믿는 집안에 태어나고, 어떤 때는 권력자에게 박해를 받는다.’고 설한다.

그리고 “또 인간이 과거세에 한 일에 대한 과보로 받는 다른 여러 가지 괴로움을, 현재 세상에서 가볍게 받는 까닭은 정법을 호지(護持)하는 공덕의 힘 때문이다.”라고 설한다.

나치렌이 존재하지 않았다면 틀림없이 부처의 이 말은 거짓이 되었을 것이다. 첫째는 ‘어느 때는 사람들에게 경시 당하고’, 둘째는 ‘어느 때는 용모가 추해지고’, 셋째는 ‘옷이 부족하고’, 넷째는 ‘음식이 변변치 못하며 적고’, 다섯째는 ‘부유함을 원해도 얻지 못하고’, 여섯째는 ‘가난하고 신분이 낮은 집안에 태어나고’, 일곱째는 ‘그릇된 사상을 믿는 집안에 태어나고’, 여덟째는 ‘권력자에게 박해를 받는다.’ 라고 설한다. 오직 나치렌 혼자서 여덟 구절을 한몸에 받고 있다.

‘팔중의 대난을 몸으로 읽으시다

대성인은 앞 문단에서 부처 멸후 악세에 정법을 비방하는 승들은 부처 재세 당시 외도의 말류였다고 밝힌 반나원경의 경문을 인용하셨습니다. 이 문단에서는 바로 그 다음 경문을 인용하여, 그런 무리가 날뛰며 정법을 소멸시키려는 위기의 시대에 ‘정법을 호지(護持)하는 공덕’에 관해 말씀하셨습니다. 즉 ‘전중경수(轉重輕受)’의 법리(法理)입니다.

여기에서는 과거의 무량한 죄나 악업으로 받는 과보를 여덟 가지로 예를 들고, 이러한 과보를 현재에 가볍게 받을 수 있는 까닭은 ‘호법의 공덕’ 때문이라고 밝히셨습니다. 대성인은 여덟 가지 과보를 모두 혼자서 받았고, 그렇기 때문에 불설(佛說)이 거짓이 되지 않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대성인이 몸으로 밝히신 ‘팔중의 대난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혹피경이(或被輕易), 대성인은 정법을 흥통하셨기 때문에 나라 전체에서 계속 악구매리(惡口罵罵)를 당하셨다. 둘째는 혹형상추루(或刑杖鞭撻), 유형(流刑)을 받은 사람으로서 오명(汚名)을 입은 점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다. 셋째는 의복부족(衣服不足), 극한의 땅에서 추위를 견딜 만한 의복도 없었다. 넷째는 음식추소(飮食糞糶), 유형지에서 음식물을 제대로 얻을 수 있을 리 없었고, 아사(餓死)를 각오하신 적도 있었다.

다섯째는 구제불리(求財不利), 주거 등을 비롯해 생활이 어려운 형편에 있었다. 여섯째는 생민천가(生餓賤家), 대성인은 “빈궁하천(貧窮下賤)” (어서 958 쪽) 한 태생이라고 말씀하셨다. 일곱째는 급사전가(及那見家), 정법을 호지하는 집안에서 태어나지 못했다. 여덟째는 혹조왕난(或遭王難), 이즈유뢰, 사도유죄등 권력의 박해를 받았다.

그리고 “이 팔구(八句)는 오직 나치렌 한 사람만이 몸에 느꼈느니라!” 하고 끝맺으셨습니다. <개목초>에서도 같은 취지를 설명하며 하나하나 “자신의 알” (어서 232 쪽) 이라고 밝히셨습니다.

보통이라면 사방팔방이 꼭 막혔다고 할만큼 곤궁에 처한 상태였지만 대성인이 그 상황을 한탄하는 모습은 전혀 찾아볼 수 없습니다. 당당하게 우뚝 솟은 바위가 부딪치는 파도를 엄연히 이겨내듯이 빙그레 웃으며 난을 받아들이셨습니다. 오히려 여기서는 경문을 몸으로 읽으신 기쁨이 전해집니다. 유연한 대성인의 경애를 밝힌 구절입니다.

[본문]

고산(高山)에 오르는 자는 반드시 내려오며 내가 남을 경시(輕視)하면 도리어 자신이 남에게 경이(輕易) 당하느니라. (중략) 이는 통상(通常)의 인과(因果)의 정(定) 해진 법(法)아니라. (사도어서 960 쪽 2 행~5 행)

[현대어역]

높은 산에 오르는 자는 반드시 내려온다. 남을 경시하면 오히려 자신이 남에게 경시 당한다. 용모가 훌륭하고 단정한 사람을 헐뜯으면 그 과보를 받아 추한 용모가 된다. 남의 옷이나 음식을 빼앗으면 반드시 아귀가 된다.

계율을 지닌 존귀한 사람을 비웃으면 가난하고 신분이 낮은 집안에 태어난다. 정법을 믿는 집안을 헐뜯으면 그릇된 사상을 믿는 집안에 태어난다. 십선계(十善戒)를 지닌 자를 비웃으면 한 나라의 백성으로 태어나 그 나라 왕에게 박해를 받는다. 이런 일들은 통상의 인과로서 정해진 법이다.

불교는 숙업에서 해방을 지향

대성인은 “높은 산에 오르는 자는 반드시 내려가야 한다.”고 말씀하며 누구든지 알기 쉬운 도리를 들어, 불교에서 일반적으로 설하는 ‘인과응보(因果應報)’의 원리를 밝히셨습니다.

본디 숙업의 ‘업은 불교가 생기기 전부터 고대 인도에서 쓰던 카르마라는 말이며, ‘행동이나 행위를 뜻합니다. 고대 인도에서는 인간이 악업에 따른 고타에서 해방되려면 특별한 ‘행위, 즉 성직자가 제사를 지내고, 여러 신이 구제해주기를 기다려야 한다는 사상이 있었습니다.

이에 비해 불교는 ‘업 사상을 크게 전환했습니다. 자신과 동떨어진 초월적인 존재, 이를테면 신 등이 자기 운명을 좌우한다고 보지 않습니다. 불교는 자기가 자기 업을 만든다는 ‘내도(內道)’적인 가르침입니다. 현재 자신은 과거세에 자기 생각과 행위가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또 미래를 향해 새롭게 ‘선업(善業)’을 만드느냐, ‘악업(惡業)’을 더욱 쌓느냐 하는 문제는 모두 현재 자신이 어떻게 행동하느냐로 결정됩니다.

이 점은 토인비 박사와 나는 대답에서도 초점이 되었습니다. 박사도 “우리에게는 자신의 행동으로 지금이라도 당장 자신이 지닌 숙명을 향상시킬 자유도 있습니다.”라고 강조하셨습니다. 박사가 주목하신 것처럼, 불교는 인간 자신의 행동과 일념을 최대한 중시한 사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과거에 악인(惡因)이 있었으므로 현재의 악과(惡果)가 있다.” “과거에 선인(善因)이 있었으므로 현재의 선과(善果)가 있다.”는 불교의 통상적인 인과응보에서 그

한다면 실은 숙명은 전환하는 원리가 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과거 악업에 따른 죄의 과보를 하나하나 받아서 소멸하기 위해서는 헤아릴 수 없이 긴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대성인은 이 어서에서 이러한 인과응보를 '통상의 인과'라고 말씀하신 후, 결국 니치렌 불법은 이 '통상의 인과'가 아니라고 단언하셨습니다.

[본문]

니치렌은 이 인과(因果)는 아니며, 법화경의 행자를 과거에 경인(輕易)한 고로 법화경은 달과 달을 나란히 하고 별과 별이 줄을 짓고 화산(華山)에 화산을 겹치고 옥(玉)과 옥을 줄지어 놓은 듯한 경(經)을, 혹은 높이고 혹은 낮추며 조롱(嘲弄)하였으므로 이 팔종(八種)의 대난(大難)을 만났느니라. (중략) 이는 호법(護法)의 공덕력(功德力)에 의하는 때문이라고 함은 이것이니라. (사도어서 960 쪽5 행~10 행)

[현대어역]

그러나 니치렌이 받는 여덟 가지 과보는 방금 말한 인과에 따른 것이 아니다. 과거에 법화경 행자를 경시했기 때문이며, 또 달과 달을 나란히 하고 별과 별을 줄지어 놓고 화산에 화산을 겹치고 보주와 보주를 줄지어 놓은 것처럼 존귀한 경전인 법화경을, 어느 때는 우리에게 너무 심원하다며 멀리하고 어느 때는 멸시하고 조소했기 때문에 이 여덟 가지 대난을 만났다. 이 여덟 가지 대난은 미래 영겁에 걸쳐 하나씩 나타날 텐데, 니치렌이 법화경의 적을 강하게 꾸짖음으로써 여덟 가지 대난이 한꺼번에 일어났 것이다.

비유하면, 백성이 항이나 군에서 살면서 지두(地頭) 등에게 많은 빚을 지더라도 빚을 갚으라고 심하게 독촉하지 않으며 다음 해로 계속 미룰 수 있다. 그러나 그 토지를 떠날 때는 빚을 모두 청산해야 하는 것과 같다. “정법을 호지하는 공덕의 힘에 따른다.” 함은 이를 말한다.

‘묘법의 인과’는 숙업을 전환하는 근본

여기에서는 더욱 근본적인 ‘생명의 인과’를 밝히셨습니다. 대성인이 금세에 여덟 가지 괴로움의 과보를 한 몸에 받은 까닭은 앞서 언급한 ‘통상의 인과’, 즉 인과응보 때문이 아니고, 과거 법화경 행자를 비방한 ‘방법’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법화경은 모든 경전의 왕이고, “달과 달을 나란히 하고 별과 별이 줄을 짓고 화산에 화산을 겹치고 옥과 옥을 줄지어 놓은 듯한 경”입니다. 대성인은 그런 법화경을 수지하고 흥통하는 ‘법화경 행자를 비방한 근원적인 악업’ 때문에 여덟 가지 대난을 만났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인간에게 괴로움을 초래하는 모든 궁극적인 업인(業因)이 ‘방법(謗法)’에 있다고 밝히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법화경의 적과 투쟁하고, 묘법을 흥통하는 법화경 행자의 실천을 관찰하면 반대로 궁극적인 악인을 깨부수고 근원적인 선업을 쌓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대성인은 근원적인 악을 멸하고, 불계 즉 근저의 제구식(第九識)을 함차게 나타내는 ‘성불의 인과’를 말씀하셨습니다. 이 인과가 바로 법화경 문저(文底)에 비침(秘藏)된 ‘묘법의 인과’, 즉 남묘호련계교(南無妙法蓮華經)입니다. 이 ‘묘법의 인과’를 근본으로 한 경우, 숙업에 따른 과보로 괴로워하는 생명에 즉시 불계의 대생명을 융현할 수 있습니다. 즉 구계즉불계, 불계즉구계로 생명을 변혁하는 인과구시(因果俱時)의 묘법으로만 정말로 숙업을 전환할 수 있습니다.

이에 비해 이전 권교에서 말하는 ‘통상의 인과’는 ‘인과이시(因果異時)’이며, 악업을 하나하나 소멸할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금세에 숙업을 전환할 수 없습니다.

대성인은 이 ‘통상의 인과’와 ‘묘법의 인과’가 얼마나 다른지, “이 팔종(八種)은 진미래제(盡未來際) 동안 하나씩 나타날 것을 니치렌이 강하게 법화경의 적(敵)을 가책(加責)함으로써 일시(一時)에 모여 일어나게 했느니라.” (어서 960 쪽) 하고 단적으로 표현하셨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근원적인 선인(善因)’이 되는 실천을 밝히셨습니다. 즉 ‘법화경의 적을 꾸짖는 절복행이 바로 ‘묘법의 인과’를 관찰하고 숙업을 전환하는 행동입니다.

“예전대 니치렌과 같다.” (어서 957 쪽) 즉 스승과 마찬가지로 사자왕의 마음을 끄집어내고 ‘불이(不二)의 실참을 근본으로 용감하게 투쟁함으로써 자기 가슴속에 대성인과 같은 부처의 생명이 역동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호법(護法)의 공덕력(功德力)에 의하는 때문이니라 함은 이것이니라.”는 즉 스승과 같은 ‘사자왕이 되는 ‘법화경의 적을 꾸짖는 호법의 실천 즉 절복으로 숙업을 전환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숙업에 따른 어떤 괴로운 과보도 “금방”(어서 1000 쪽) 소멸되고, 그뿐 아니라 성불이라는 경이를 확립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호법의 공덕력’은 ‘스승과 함께 투쟁하며 실천하는 공덕의 함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본문]

법화경에는 “여러 무지(無智)한 사람이 있어 악구매리(惡口罵詈) 등하고 도장와석(刀杖瓦石)을 가하며 내지(乃致) 국왕(國王), 대신(大臣), 바라문(婆羅門), 거사(居士)를 향하여 내지 사삭빈출(數擲毘盧) 당하리라.” 등 운운. (중략) 어찌하여 불경(不經)의 인(因)을 행하여 니치렌 일인(一人)만이 석가불이 되지 않았겠노. (사도어서 960 쪽 10~14 행)

[현대어역]

법화경에서는 “무지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 법화경 행자를 나쁘게 말하며 욕하고, 검이나 몽둥이로 치고, 기와나 돌을 던질 것이다. ... 국왕이나 대신, 바라문이나 유력자에게 거짓을 꾸며 법화경 행자를 헐뜯을 것이다. ... 법화경 행자는 반반이 그 토지에서 내쫓길 것이다.” (권지품 제 13)라고 설한다. 지옥의 악구가 죄인을 가책하지 않으면 죄를 멸하고 지옥을 나갈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을 것이다. 지금 국주나 그 신하가 없다면 과거 니치렌의 무거운 방법죄를 소멸할 수 없다. 니치렌은 과거 불경보살과 같은 처지고, 지금 세상 사람들은 마치 불경보살을 업신여기고 욕설을 퍼부은 자들과 같다. 사람이 비뚤어도 그 인은 마땅하다. 누구든 부모를 죽이는 사람은 똑같은 무간지옥에 떨어진다. 불경보살과 똑같은 실천하는데 어찌 니치렌만 혼자 석가불이 되지 않았겠는가.

법화경에서 설하는 ‘사제불이’ 원리

여기에서 다시 한번 법화경 행자가 가책해야 할 ‘법화경의 적’이라는 정체를 분명히 밝히셨습니다. 바로 법화경 권지품 제 13에서 설하는 ‘삼류(三類)의 강작입니다. “여러 무지(無智)한 사람이 있어 악구매리 등 하고”는 함담과 온갖 욕설을 퍼붓고, 위해(危害)를 가하려는 속중중상만(俗衆衆上慢)입니다. “국왕(國王), 대신(大臣), 바라문(婆羅門), 거사(居士)를 향하여”는 참성중상만(眞聖衆上慢)의 참언입니다. “사삭빈출(數擲毘盧) 당하리라.”는 ‘사법의 승과 ‘악왕이 결탁하고, 법화경 행자가 추방

등의 처벌을 받는다고 밝히셨습니다.

삼류의 강적이 출현한 일은 법화경 행자가 경문을 신독(身讀)했다는 증거가 됩니다. 강적이 박해하지 않으면 법화경 행자는 숙업을 전환할 수 없고 성불도 실현할 수 없습니다. “당세(當世)의 왕신(王臣)이 없으면 니차렌의 과거의 방법(謗去)의 중죄(重罪)는 소멸(消滅)하기 어려우니라.”입니다.

그리고 대성인은 이 ‘박해즉숙업전환’의 실천은 법화경 상불경보살품 제20에서 말하는 불경보살이 성불한 원리와 완전히 같다고 밝히셨습니다. 불경보살은 모든 사람을 존경하고 예배함으로써 증상면에 빠진 사중(四衆)에게 박해를 받았습니. 그런 대난으로 불경보살 자신의 ‘기죄필이(其罪畢已)’를 실현했습니다. 즉 불경보살은 난을 받음으로써 죄장을 소멸하고, 육근청정(六根淸淨)이라는 과보를 얻었으며, 부처 즉 석가불이 됐습니.

대성인은 이 원리에 비춰, “니차렌은 과거의 불경과 같고”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시대에 따라 행하는 ‘사람은 다를지라도 성불을 위한 ‘안’은 같습니다. 방정식은 마찬가지로 지입니다. 그러므로 불경과 같은 ‘안’을 행하면 반드시 부처가 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니차렌 일인만이 석가불이 되지 않았노”라는 말씀은 제자를 위해서 밝히신 것입니다. 대성인과 마찬가지로 난을 극복하고 절복행을 관철한다면 제자도 반드시 성불할 수 있다는 사제불이(師弟不二) 원리를 밝히신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앞 세대의 위대한 인물과 평범한 자신은 당연히 다른 ‘사람’입니다. 처지도 성격도 재능도 일치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안’이 되는 수행을 똑같이 실천하면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불법에서 말하는 ‘사제의 인과’입니다. 제자들이 도저히 스승의 자혜와 자비에 미치지 못한다고 생각할지라도, 스승과 ‘같은 서원(誓願)’, ‘같은 이상(理想)’, ‘같은 행동(行動)’을 관철하면 반드시 스승과 같은 경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법화경에서 말하는 성불을 위한 ‘사제불이’ 제도입니다.

[본문]

또 그 제인(諸人)은 발다바라(跋提婆羅) 등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노. 단 천겁아비지옥(千劫阿鼻地獄)에서 책(責)함을 당하게 될 일이야말로 측은하게 생각되니 이를 어찌해야 하겠노. (중략) 당세(當世)의 제인(諸人)은 개심(改心)할 마음이 없으니 비유품과 같이 무수겁(無數劫)을 경과할 것이고 삼오(三五)의 진점(塵點)을 보내야 할 것이니라. (사도어서 960 쪽14 행~16 행)

[현대어역]

또 오늘날 사람들을 발다바라(跋提婆羅) 등과 같다고 말하지 않을 수 있었는가. 다만 아비지옥에 떨어져 천겁 동안 가혹당할 일이 측은할 뿐이다. 이를 어찌겠는가. 불경보살을 업신여기고 욕설을 퍼부은 사람들은 처음에는 비방했지만, 나중에 신봉했으며 따르고 섬겼다. 죄를 많이 소멸하고 아주 조금 남았는데, 그것만으로도 부모를 천명이나 실해한 지만 큼 커다란 괴로움을 받았다. 지금 세상 사람들은 후회하며 뉘우치려 들지 않는다. 비유품에 있듯이 아비지옥에서 무수겁이라는 긴 세월을 보내게 되리라. 그리고 삼천진점겁이나 오백진점겁이라는 장원한 세월을 보내게 되리라.

준엄한 ‘인과이법’

한편으로 불경보살을 박해한 자들은 그 죄에 따라 이백억겁이라는 세월동안 부처를 만나는 일도 없이 천겁이나 되는 오랜 세월 동안 아비지옥에서 커다란 고뇌를 겪었습니다. 대성인은 측은한 생각이 들어도 어쩔 도리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인과이법은 누구도 조작할 수 없으며 준엄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래도 그들은 불경보살과 한번이라도 인연을 맺은 덕분에 마지막에 다시 한번 불경보살을 만나 교화받고, 최종적으로는 발다바라를 비롯해 석존의 제자가 될 수 있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에 비해 대성인을 비방한 ‘당세 제인’들은 뉘우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결과적으로 얼마나 오랜 세월 동안 괴로움의 유전(流轉)에 빠져야 하느냐며 탄식하셨습니다.

[본문]

이것은 차치(置置)하고 니차렌을 믿는 듯하던 자들이 니차렌이 이렇게 되자 의심을 일으켜 법화경을 버릴 뿐만 아니라, 도리어 니차렌을 교훈(敎訓)하고 자신이 현명하다고 생각하는 벽인(壁人)들이 염불자보다 더 오랫동안 아비지옥에 있게 될 것은 불쌍하다고 할 수밖에 없구나. (사도어서 960 쪽17 행~18 행)

[현대어역]

여기에서는 이 일을 차치하겠다. 그 일보다는 니차렌을 믿는 듯하던 자들이 내가 이런 처지가 되자 의심을 일으켜서 법화경을 버렸을 뿐 아니라 오히려 나를 가르치고 타이르며 자신이 영리하다고 생각한다. 이렇듯 어리석은 자들이 염불자보다 더 오래 아비지옥에 있으리라는 사실이 측은하다고 할 수밖에 없다.

사적대의 본질은 제육천 마왕의 작용

그러나 가장 큰 문제는 증상면에 빠진 제자들임을 지적하셨습니다. 처음부터 정법을 믿지 않고 비방하는 인간보다 일단 문하가 됐으면서 마음을 바꾸고, 게다가 “자신이 현명하다.”고 거만하게 떠나는 인간이 훨씬 더 죄가 무겁습니다. 과보도 엄합니다.

그뿐 아니라 무명(無明)의 생명이 깊어진 제자는 다른 문하에게 작용해 많은 문하를 퇴전시키려고 합니다. 그것이 제육천(第六天)의 마왕(魔王)이 작용하는 두려움입니다. 대성인은 “대마(大魔)가 붙은 자들은 한 사람을 교훈(敎訓)해서 퇴전시키면 그것을 계기로 해서 많은 사람을 설복(說伏)하느니라.” (어서 1539 쪽)고 말씀하셨습니다.

모처럼 신심을 하면서 제육천의 마왕에게 생명을 지배당하고 맙니다. 근본적인 이유는 ‘만심(慢心)’ 때문이고, 그 본성은 스승을 업신여기는 ‘질투’입니다. 대성인이 지적하신 “도리어 니차렌을 교훈하고 자신이 현명하다고 생각하는 벽인”이라는 교시는 니차렌 문하의 영원한 훈계입니다.

불법의 인과이법만큼은 틀림없는 영원한 법칙입니다. ‘묘법의 인과’를 기준으로 삼고 따르는 사람은 영원히 변영합니다. 말법만년 진미래제까지 일가 권속에게 복덕이 전해집니다. 반대로 사제(師弟)를 잇고 파회합승(破和合僧)으로 변한 사람이 “염불자보다 더 오랫동안 아비지옥에 있게 될” 것이라고 어분불은 단언하셨습니다.

부처는 모든 사람을 구하는 법을 깨달았습니다. 성불이라는 근본적인 길에서 어분불의 가르침은 절대적입니다. 또 스승은 목숨을 다 바쳐 제자를 훈육하려고 합니다. 그

라므로 스승의 가르침은 준엄합니다. 대성인은 그런 스승의 ‘마음조차 헤아리지 못하는 무리가 아무리 힘담을 할지라도 그런 ‘비뚤어진 자의 존재를 유연히 내려다보셨 습니다.

[본문]

수리(修理)가 부치는 십팔계(十八界) 나는 십구계(十九界)라 말하고 외도(外道) 가로되 부치는 일구경도(一究竟道) 나는 구십오구경도(九十五究竟道)라고 말하였듯이, 나치렌보(日蓮佛)는 사강(師匠)이긴 하지만 너무나 강경하니 우리들은 부드럽게 법화경을 흥통하라라고 말함은 반딧불이 일월(日月)을 비웃고 의총(義叢)이 화산(華山)을 알보고 정강(井江)이 하해(河海)를 갈보고 까치가 난봉(鸛鳳)을 비웃음과 같으니라. 비웃음과 같으니라.

남묘호련계교(南無妙法蓮華經)

문영(文永) 구년(九年) 태세(太歲) 임신(壬申) 삼월(三月) 이십일(二十日)

나치렌 화압(化印)

나치렌 제자 단나(檀那) 등어중 (사도어서 960 쪽 18 행-961 쪽 6 행)

[현대어역]

이수리가 ‘부치는 십팔계지만 우리는 십구계’라고 말하며, 외도가 ‘부치는 일구경도이지만, 나는 구십오구경도’라고 말한 것처럼, ‘나치렌 스님은 스승이시지만 지나치게 강경하다. 우리는 좀 더 유연하게 법화경을 흥통하자.’라고 말하는 것은 반딧불이 태양이나 달을 비웃고, 개뿔독이 화산을 알보고, 우물이나 사내가 큰 강이나 바다를 업신여기고, 까치가 난조와 봉황을 비웃는 것과 같다. 비웃는 것과 같다. 남묘호련계교, 1272년 3월 20일, 나치렌 화압, 나치렌의 제자 단나 귀중

‘제자의 승리를 기약하신 어서’

대성인은 마지막으로 사지왕의 화신을 말씀하고 <사도어서> 본문을 끝맺으셨습니다. 증상만에 빠진 인간은 부처의 가르침에 무엇인가 아견(我見)을 덧붙이려고 합니다. 석존이 ‘십팔계라고 설하면, 수리는 하나를 덧붙여 ‘십구계’라고 잘난 체합니다. 부처가 일구경도(성불하는 오직 하나뿐인 길)를 설하면, 외도는 “나는 구십오구경도를 설한다.”하고 의기양양합니다.

이런 어리석은 자들과 마찬가지로 스승을 업신여긴 자들은 “나치렌 스님은 스승이시지만 지나치게 강경하다. 우리는 좀 더 유연하게 법화경을 흥통하자.”라는 식으로 말했습니다. 언뜻 그들은 ‘법화경을 버리지 않았다.’고 생각했겠지만, 실은 가장 중요한 ‘법화경의 마음’을 완전히 잃었습니다. 그러므로 법화경을 흥통하는 스승의 위대함을 전혀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불법을 기준으로 판단하면 사도유죄를 비롯한 대난의 본질은 재육친의 마왕이 권력자들의 몸에 비취 들어가 대성인과 문하 사이의 ‘사제’라는 유대를 갈라놓는 데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제’의 유대로 묘법의 위광세력이 증가하고, 영법구주(令法久住)의 명맥(命脈)이 강력히 확대되고, 불법의 근본목적인 일체중생이 행복해지고 평화로워지는 길이 열리기 때문입니다.

그런 뜻에서 언뜻 보기에는 영리하게 움직이며 대성인을 비판하고 난을 피한 듯한 인간이 바로 실제로는 재육친의 마왕에게 ‘완패’를 당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사제정산’이라는 자리를 마성(魔性)에 내주고 말았기 때문입니다.

반딧불이 해와 달을 비웃고, 개뿔독이 화산을 갈보고, 우물과 사내가 강과 바다를 알보고, 까치가 난봉을 비웃는 것과 같다! 이렇듯 우렁차게 말씀하시는 대성인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으십니까. 삼대에 걸친 창가학회 회장은 대성인이 지닌 이 확산대로 투쟁했습니다.

<사도어서>는 목숨까지 위태로운 대난 속에서 어분불의 위대한 경애를 드높이 밝히고, ‘스승의 승리를 선언하신 어서’입니다. 그와 더불어 스승과 함께 대난을 극복하려는 용맹스러운 문하에게 반드시 승리하라고 사지후하고, ‘제자의 승리를 기약하신 어서’입니다.

[본문]

사도의 지방은 종이 없는 데다가 각인별(各人別)로 말하려면 번거로움이 있고, (중략) 명심하고 명심하여 보내주사라. (사도어서 961 쪽 7 행~11 행)

[현대어역]

사도지방은 종이 없는 데다가 좀처럼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편지를 보내기는 번거롭고, 또 한 사람이라도 빠지면 불만이 생길 것입니다. 뜻 있는 분은 모두 모여서 이 편지를 읽어보고 충분히 사색하며 마음을 위로하시기 바랍니다. 세간에서도 한탄할 만한 큰 일이 일어나면 그보다 작은 한탄은 별 것이 아니겠지요. 이번 싸움에서 사망한 사람들은 모반이 사실이나 아니냐는 차치하고, 얼마나 슬픈 일인지요. 이지와 입도, 사가베 입도는 어찌 되셨는지요. 가와노베이마시로도쿠고자젠 등은 어찌 되셨는지 적어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외전의 서적인 정관정요를 비롯한 외전의 이야기, 팔종(八種)의 상전서(相傳書) 등이 없으면 편지도 쓸 수 없으므로 부디 꼭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제자의 승리가 ‘창가의 승리’

추신에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문하 한 사람 한 사람을 배려하시는 깊은 자애가 느껴집니다. 문하의 소식을 물으시고, 편지를 더 쓰고 싶으니 자료를 보내기 바란다고 말 씀하셨습니다. 대성인은 바다 저 멀리 떨어진 사도라는 땅에서 대차비로 가득 넘친 정신투쟁을 멈추지 않고 지속하셨습니다. 스승은 얼마나 고마운 존재인가. 스승의 은혜를 조금이라도 느낀 사람은 혼신을 다해 보은행(報恩行)에 힘써야 합니다.

나는 은사이신 도다 선생님이 화장에 취임하시기 직전인 1951년 4월 말에 <사도어서>를 사제승리의 증명으로서 다시 한번 배독했습니다. 일기에도 이렇게 썼습니다. “<사도어서>에서 이르시기를, 악왕(惡王)이 정법(正法)을 파(破)하는데 사법(邪法)의 승들이 한편이 되어 지자(智捨)를 살해하려 할 때는 사지왕과 같은 마음을 가진 자 반드시 부처가 되느니라. 예컨대 나치렌과 같다. 운운.” (4월 27일) “나치렌보(日蓮佛)는 사강(師匠)이긴 하지만 너무나 강경(強硬)하니 우리들은 부드럽게 법화

경을 홍통(弘通)하리라고 말하는 반딧불이 일월(日月)을 비웃고 의총(蟻冢)이 화산(華山)을 알보며 정강(井工)이 하해(河海)를 깔보고 까치가 난봉(鸞鳳)을 비웃음과 같으니라. 운운.”(4월 28일) 내게 <사도어사>는 은사와 함께 배독하고 역경을 극복한 ‘사제승리의 어사가 됐습니다.

나는 이렇게 맹세했습니다. 스승의 구상을 실현하려면 먼저 나 자신이 분투해야 하고, 나 자신이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러기 위해 먼저 내가 소속한 지구(地畠)를 전진시키겠다고 결심한 다음, 가정방문을 하고 좌담회를 열고 커다란 절복의 물결을 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더없이 소중한 창가의 ‘사제’라는 세계를 내가 소속한 지구부터 확대하는 속에 비로소 미래의 광포승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제왕의 마음으로 위대한 사제의 길을 끝까지 말하는 정의로운 일대일 대화에 바로 <사도어사>를 실천하는 길이 있습니다. <사도어사> 강의 끝. ■

**우리 본문의 제자들이
삼대에 걸친 창가 사제의 뒤를 잇기를 기원하며**

형제초(兄弟抄)(상)

‘난을 극복하는 신심’을 관철하라!

강의

“광선유포라는 대업은 마(魔)와 싸우는 일이다. 주춤거릴 수 없다. 만일 꽤 한다면, 인류는 영원히 어둠에 싸이고 말 것이다.” 은사 도다 조세이 선생님의 유훈이라고 할 수도 있는 사자후(師子吼)입니다.

도다 선생님은 한결음도 물러서지 않고 광선유포를 가로막는 마와 투쟁하셨습니다. 아니 마를 몰아서 쫓아내고 추격하기까지 단호히 계속 싸우셨습니다. 그 까닭은 모든 사람의 행복을 실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땅 위에 비참과 불행이 없애기 위해, 사람들을 괴롭히는 모든 마성(魔性)을 물리치려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까지 광선유포의 총수로서 계속 지휘하셨습니다. 특히 마무리 단계에 들어간 1957년은 창기학회 전체에 노도(怒濤)와 같은 삼장사미(三障四魔)가 다투어 일어난 해입니다. 유바리탄광노조사건과 오사카사건이 거듭되고, 도다 선생님 건강에도 이제껏 없던 병마(病魔)가 심하게 덮쳤습니다. 그러나 선생님은 매사에 늘 불안(佛眼)과 법안(法眼)으로 본질을 파악하셨습니다.

“75만세대 달성을 눈앞에 둔 때다. 마가 다투어 일어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이번 병마는 마 중에서도 작은 악귀에 지나지 않는다. 이 정도의 마에 저서는 도저히 광선유포를 할 수 없다.” 선생님은 어디까지나 의연한 태도로 마군(魔軍)에 정면으로 맞서셨습니다.

“내가 이렇게 병을 앓는 일은 커다란 ‘전중경수(轉重經受)’다. 학회가 받을 대난을 이 병으로 가볍게 넘기는 것이다.” 하고 말씀하신 적도 있습니다.

도다 선생님은 이 엄연한 대확신대로 병을 완전히 극복하고, 이듬해 2월 11일 선어담을 맞은 생신에는 쾌유를 축하 받으셨습니다. 그렇듯 선생님은 병마를 물리치고 난 다음 3월 16일에 후계의 창년들에게 광포를 계승하는 인수(印綬)를 건네고, 4월 2일 편안한 모습으로 존귀한 사명을 지닌 금세의 인생을 모두 마치셨습니다. 올해는 불이(不二)의 제자가 보은사덕(報恩謝德)하겠다는 맹세를 세운 지 51주년이 되는 ‘4.2’를 맞았습니다.

‘학회의 영원한 5지침’

도다 선생님이 한창 투병 중이시던 1957년 12월에 있었던 일입니다. 선생님의 생애 원업(願業)인 75만 세대 절복을 드디어 달성했습니다. 서원 성취를 발표하는 본 부간부회에서 선생님은 사랑하는 동지를 위해 ‘학회의 영원한 3지침’을 제시하셨습니다.

- ‘일가화락(一家和樂)의 신심
- ‘각자가 행복을 획득하는 신심
- ‘난을 극복하는 신심

이 지침에는 간결한 표현 속에 ‘신앙의 목적은 무엇이고’ 신심의 자세는 어떠해야 하는지 그 본질이 빠짐없이 나타나 있습니다.

은사에게서 모든 구상을 위탁 받은 나는 제3대 회장이 되고 나서 처음 맞은 원단에도, 그 이듬해 원단에도 이 ‘영원한 3지침’에 관해 이야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스승이 제시하신 ‘무엇을 위해’라는 근본초점을 잊는 순간 마성에 패하고 정체하기 시작하며 신심이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나는 신세기가 시작되고 나서 도다 선생님의 ‘영원한 지침’이라는 원점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2003년에 새롭게 두 항목을 추가했습니다.

- ‘건강장수의 신심
- ‘절대승리의 신심

이들때면 도다 선생님과 나의 ‘사자후’라고 할 수 있는 ‘학회의 영원한 5지침’입니다. 이 지침은 전세계 동지가 단연코 장마에 지지 말고, 광선유포의 삶을 관철해 절 대적으로 행복한 경애를 열어 승리하기 바란다는 기원을 담아, 일상성불을 위한 핵심을 밝혔습니다.

스승인 도다 선생님과 제자인 나는 ‘신심의 자세를 배우는 귀중한 어서로 <형제초>를 배독했습니다.

“우리 문하여, 다투어 일어나는 삼장사미를 결연히 극복하라!”

“각자가 제육천(第六天)의 마왕(魔王)을 물리치고 성불이라는 경애를 확립하라.” 이렇듯 니치렌 대성인은 <형제초>에서 ‘사체불아’ ‘이체동삼’이라는 신심으로 모든 마 성을 당당히 극복하라고 문하에게 가르치셨습니다. 참으로 ‘학회의 영원한 5지침’의 원류가 되는 어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와 투쟁하지 않는 한 진정한 ‘화락도’ ‘행복도’ ‘건강장수도’ ‘절대승라도’ 있을 수 없습니다. 이월부터 세번으로 나눠 <형제초>를 배독하고, 니치렌 대성인이 모든 문하에게 밝히신 ‘원승하기 위한 방정식’을 배우겠습니다.

본문

대저 법화경(法華經)이라 함은 팔만법장(八萬法藏)의 간심(肝心) 십이부경(十二部經)의 골수(骨髓)이다. 삼세(三世)의 제불(諸佛)은 이 경(經)을 스승으로 하여 정각

(正覺)을 이루었고 사방(十方)의 불타(佛陀)는 일승(一乘)을 안목(眼目)으로 하여 중생을 인도(引導)하신다. (형제초 1079 쪽 1 행~2 행)

[현대어역]

법화경이라는 경전은 팔만법장(八萬法藏)의 간심(肝心)이고, 십이부경(十二部經)의 골수(骨髓)다. 삼세(三世) 제불(諸佛)은 이 법화경의 가르침을 스승으로 삼아 정각(正覺, 참된 깨달음)을 열고, 사방(十方)의 불타(佛陀)는 이 일승(一佛乘)의 가르침(법화경)을 안목(眼目)으로 삼아 사람들을 성불(成佛)로 이끈다.

대난은 속명전환, 즉 성불을 위한 지름길

먼저 이케가미 형제가 직면한 대난에 대해 확인하겠습니다.

이 어서를 받은 이케가미 무네나가, 이케가미 무네나가 형제가 신심을 언제 시작했는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초창기 때부터 대성인 문하였다고 전합니다. 이케가미는 유력한 장인(匠人) 집안으로 가마쿠라 막부에 출사(出仕)했는데, 아버지 야스미쓰는 형제가 믿는 신앙을 반대하고, 형인 무네나가를 의절했습니다.

무가사회(武家社會)에서 의절은 곧 가독(家督, 호주) 상속권을 상실하는 일이고, 경제적인 기반도 사회적인 신분도 박탈 당하는, 매우 심각한 압박이었습니다. 이와 동시에 형만 압박하는 일은 곧 동생이 신앙을 버리기만 하면 가독 상속권을 이어받을 수 있다는 뜻이므로 동생 무네나가의 마음을 흔들리게 만드는 음험한 속셈임이 명백했습니다. 대성인이 이 의절사건에 관해 이케가미 형제에게 보내신 어서가 바로 <형제초>입니다.

대성인은 <형제초> 전편을 통해 형제가 직면한 난은 법화경을 신앙하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일어나는 일이며, 법화경에서 설한 대로 마성과 싸우는 일이 성불을 위한 길 이 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래서 서두에서는 형제가 믿는 법화경이 얼마나 뛰어난 가르침인지를 강조하셨습니다.

법화경은 ‘팔만법장(八萬法藏)’이라 할 수 있는 방대한 불전(佛典)의 ‘간심(肝心)’이며, ‘십이부경(十二部經)’이라고 총칭하는 모든 가르침의 ‘골수’입니다. 또 삼세사방의 모든 부처도 이 법화경을 스승으로 삼아 자신이 성불했을 뿐 아니라 법화경의 가르침을 설해 일체중생을 성불로 이끕니다. 이상이 서두의 구절입니다.

대성인은 먼저 형제가 대난에 직면한 상황이기 때문에 법화경을 신앙하는 일이 본질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부터 차근차근 설하기 시작하셨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법화경을 수지하는 일이 얼마나 더할 나위 없는 가치를 낳는지 다시 한번 실감하고, 환희에 찬 마음을 불태우며 일어서는 일이 어떤 난도 극복하는 힘임을 가르치셨습니다.

이어서 법화경에서 퇴전하는 일이 얼마나 큰 죄인지를 여러 가지로 논하셨는데, 그 까닭은 “이 법화경은 일체의 제불의 안목(眼目)이요, 교주석존의 본사(本師)” (어서 1080 쪽)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퇴전은 근본적인 가르침을 버리는 일입니다.

말하자면 자신이 ‘일체중생의 성불’ ‘만민존경’ ‘민물공생’이라는 근본 법칙에 위배하기 때문에 근본법과 대극(對極)에 있는 탐진치(貪瞋癡)라는 삼독의 생명이 강해지고, 이욕과 악도를 유전하는 생명에 지배되고 맙니다. 법화경을 “글자 하나, 점 하나라도 버리는 마음을 일으켜서는 안 된다.”(어서 1080 쪽, 취의) 라는 대성인 말씀에서, 신심을 하며 중대한 고비에 처한 이케가미 형제를 ‘결코 퇴전시키지 않겠다’는 심정으로 엄하게 훈계하시는 어본불의 대자비가 절절히 느껴집니다.

본문

이 법화경은 차치(田置)하고, 또 이 경(經)을 경과 여(如)히 설(說)하는 사람을 만나기는 어려운 일이다. 가령 일인(一人)의 거북이가 부목(浮木)을 만날지언정 연사(蓮絲)를 가지고 수미산(須彌山)을 허공(虛空)에 걸지언정 법화경을 경과 여히 설하는 사람을 만나기는 어려우니라. (형제초 1080 쪽 16 행~18 행)

[현대어역]

이 법화경에 관해서는 일단 차치해 두겠다. 또 법화경을 경문대로 살하는 사람을 만나기는 어렵다. 설령 일인의 거북이가 부목을 만나는 일이 있을지라도, 연꽃 실로 수미산을 하늘에 매달 수 있을지라도 법화경을 경문대로 살하는 사람을 만나기 어렵다.

진실한 스승은 만나기 어렵다

서두에서 법화경이라는 ‘법’에 관해 언급하신 대성인은 이 부분에 이르러 법화경을 살하는 ‘사람’으로 착안점을 옮기셨습니다.

“법은 스스로 흥통되지 않는다. 사람이 법을 흥통하는 고로 인법(人法)이 함께 존귀하니라.”(아서 856 쪽)고 단언하신 것처럼, ‘법이 아무리 존귀해도 그 법을 실천하는 사람이 없으면 아무런 힘도 낳지 못합니다.

‘법화경을 경과 여히 설하는 사람을 만나’는 일은 정말 드문 일입니다. 대성인은 ‘일인의 거북과 ‘수미산을 매는 연꽃의 실’이라는 비유를 들어, 드물고 불가능한 일이 설령 실현될지라도 그보다 훨씬 어려운 일이라고 밝히셨습니다.

참으로 이 부분에서 설하는 ‘법화경 행자는 별(別)해서 니치렌 대성인이십니다. 오탁(五濁)악세인 사바세계에서 대성인을 만나는 일은 얼마나 드문 일인지 모릅니다. 그와 함께 대성인 멸후 후세 사람들에게 법화경의 진수인 묘법을 대성인의 어서대로 흥통하는 올바른 불법(佛法) 지도자를 만나는 일 또한 지극히 어려운 일입니다.

나도 이 세상에 태어나서 광선유포의 스승인 도다 선생님을 만나서 사제(師弟)라는 인연을 맺을 수 있었던 일보다 더 큰 기쁨은 없습니다. 이 묘법을 실천하려고 생각할 수 있었던 까닭도, 도다 선생님을 만나 뵈고 ‘이 분이려면 믿을 수 있다’고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나는 예전에 이노우에 야스시 씨와 편지를 주고 받으며 “도다 선생님을 알고 나서 불법을 알았지, 불법을 알고 나서 도다 선생님을 안 것이 아닙니다.” 하고 썼습니다.

이노우에 씨는 도다 선생님과 나의 운명적인 만남을 쓴 편지를 읽고, 이런 답장을 보내셨습니다. “읽고 대단히 감동했습니다. 카다란 한 인격을 만나 그 인간과 사상에 공명(共鳴)하고 심취해서 자신이 나아갈 인생의 길을 정하고, 게다가 평생 그 인격에 존경과 애정을 지닐 수 있는 일은 그리 흔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인생에서 사제는 얼마나 중요한 재보인지 모릅니다. 하물며 불법에서 보면, 사제는 얼마나 존귀하기 그지없는 생명의 결합인지 모릅니다. 어쨌든 니치렌 대성인 불법은 초대 마카구치 선생님과 제 2대 도다 선생님이라는 사제가 존재하지 않았다면 현대에 결코 소생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법은 사람의 생명 속에서 비로소 맥동하고, 사람의 행동을 통해 진기를 발휘하기 때문입니다. ‘법을 올바르게 수지하고, ‘법에 담긴 정신을 그대로 행하는 사람이 없는 한 가치를 창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불법을 실천하는 데에는 ‘스승’이라는 존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제자’가 ‘스승’과 똑같이 행동하는 속에 ‘법’이 계승됩니다. 불법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사제’입니다.

바이흐로 창가(創價) 네트워크는 전 세계로 확대되었고, 수많은 벗이 민족이나 언어의 차이를 초월해 ‘법화경을 경문대로 설하는’ 실천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이 창가사제의 혈액에 동참해 창가학회와 함께 나이기는 인생이 얼마나 위대한지 모릅니다. 무엇보다 대성인이 상찬하실 것임이 틀림없습니다.

본문

그러므로 법화경을 믿는 사람이 두려워해야 할 것은 적인(賊人), 강도(強盜), 아습(夜襲), 호랑(虎狼), 사자(師子) 등보다도 당시의 몽고(蒙古)의 공격보다도 법화경의 행자(行者)를 괴롭히는 사람들이다. (형제초 1081 쪽 14 행~15 행)

[현대어역]

그러므로 법화경을 믿는 사람은 도둑, 강도, 아습, 호랑이, 늑대, 사자 그리고 현재의 몽고내습보다 법화경 행자의 수행을 방해하며 괴롭히는 사람들을 더 두려워해야 한다.

‘악지식’을 두려워하라!

법화경을 믿고 행하는 우리가 정말 두려워해야 하는 존재는 무엇인가. 대성인은 도둑이나 강도 그리고 맹수 등이 아니라 “법화경의 행자를 괴롭히는 사람들이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신앙을 방해하는 ‘괴롭히는 사람들’은 구체적으로 누구를 가리킬까요. 이 글월 앞 문단에서는 자은(慈恩), 선무외(善無畏)라는 중국 당나라 시대 승려가 법화경이 아닌 권교(權教)에 집착한 일을 예로 드셨습니다.

대성인은 그들이 일단 법화경의 탁월성을 인정할 경우도 있지만 결국은 ‘법화경을 믿는 마음을 잃었다고 지적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원흉이 ‘악지식(惡知識)’, 즉 악연(惡緣)과 악사(惡師) 때문이라고 간파하셨습니다.

‘법화경 행자를 괴롭히는 사람들은 정말 다름 아닌 ‘악지식’입니다. 악지식이 두려운 까닭은 우리 ‘마음을 파괴하는 데 있습니다. 악연에 분동되고 악승에 속아 올버린 ‘마음을 잃어버리면 불도(佛道)를 성취하지 못합니다.

반대로 말해 ‘마음이 파괴되지만 잃는다면 결국에는 어떤 대난도 ‘신심의 함으로 극복할 수 있습니다. ‘마음만이 중요합니다. ‘악지식에 파괴되지 않는 마음을 구축하려면 총명한 지혜로 마를 마라고 간파하고, 악지식과 투쟁하는 용감한 실천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본문

이 세계는 제육천(第六天)의 마왕(魔王)의 소령(所領)이며, 일체중생은 무시(無始) 이래 그 마왕의 권속(眷屬)이다. 육도(六道) 중에 이십오유(二十五有)라고 하는 감옥을 짓고 일체중생을 들여보낼 뿐만 아니라, 처자(妻子)라고 하는 굴레를 씌우고 부모(父母) 주군(主君)이라고 하는 그물을 하늘에 치고 탐진치(貪瞋癡)라는 술을 마시게 하여 불성(佛性)의 본심(本心)을 어루퐁느니라. 오직 악(惡)의 인주(按酒)만을 권하여 삼악도(三惡道)의 대지(大地)에 엎드려 자게 하고, 간혹 선심(善心)이 있으면 장애(障礙)를 하나니라. (형제초 1081 쪽 15 행~18 행)

[현대어역]

이 세계는 제육천의 마왕이 지배하는 곳이고, 모든 사람은 한없이 먼 과거부터 이 마왕의 권속이다. 제육천의 마왕은 육도(六道) 안에 스물다섯 종류의 존재(삼계육도<三界六道>라는 미혹의 세계를 스물다섯가지로 나눈 것)라는 감옥을 만들어 모든 사람을 그 곳에 밀어 넣는 일에 그치지 않고 처자(妻子)라는 수갑과 족쇄를 채우고, 부모와 주군이라는 망을 하늘에 치고, 탐진치(貪瞋癡)라는 술을 마시게 해서 불성(佛性)이라는 본심을 미혹시키려 한다. 오직 악(惡)의 인주만 권하고, 삼악도(三惡道)의 대지에 누워 뒹굴게 내버려둔다. 그리고 가끔 선(善)한 마음을 일으키는 사람이 있으면 이를 방해한다.

신심은 제육천의 마왕과 싸우는 일

“이 세계는 제육천(第六天)의 마왕(魔王)의 소령(所領)이며, 일체중생은 무시(無始) 이래 그 마왕의 권속(眷屬)이다.” 마의 본질을 날카롭게 통찰하신 중요한 글월입니다. 나도 신심한 이후로 이 성훈을 거듭거듭 배독하며 마음에 새겼습니다.

대성인은 이 본문 다음 부분에서 우리가 가장 두려워해야 할 ‘악지식’의 정체는 ‘제육천의 마왕’이라고 밝히셨습니다. 먼저 ‘이 세계, 즉 우리가 사는 사바세계는 ‘제육천의 마왕이 지배하는 소령’이라고 갈파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삼계(육도)운회하는 세계 중 욕계(欲界) 맨 위에 군림하는 제육천의 마왕이 무시(無始) 이래 중생의 생명을 지배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육천의 마왕은 타자(他者)의 생명을 제멋대로 움직이고, 선을 방해하고 악으로 끌어내립니다. 미는 불도를 수행하는 사람의 공덕을 빼앗고, 지혜로운 생명을 없앱니다. 그리고 중생의 선근을 파괴하고, 삼계육도로 유전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마의 군세는 부처 세력의 전진을 방해하려고 여러 가지 책략을 부립니다. 대성인은 제육천의 마왕이 방해하는 작용에 관해 구체적인 비유를 들어 이렇게 밝히셨습니다.

‘처자라는 수갑과 족쇄를 채운다.’ ‘하늘에 부모와 주군이라는 망을 친다.’ ‘탐진치의 술을 마시게 해서 불성(佛性)이라는 본심을 잃게 만든다.’ 이 비유는 삼장사마(三障

四魔)의 삼장으로 말하면, 각각 ‘업장(業障)’ ‘보장(報障)’ ‘번뇌장(煩惱障)’에 해당합니다.

무릇 대성인이 그 수많은 대난을 이겨내고, 투쟁하신 상대는 과연 무엇이었을까. 그 상대는 다름 아닌 ‘제육천의 마왕’입니다.

“제육천의 마왕은 십군의 싸움을 일으켜서 법화경의 행자와 생사해(生死海)의 해중에서 동거예토(同居穢土)를 빼앗기지 않으려고 빼앗으려고 다투고 있다.” (어서 1224 쪽) 제육천의 마왕은 십군의 마군(魔軍)을 이끌고, 사바세계를 빼앗기지 않고자 또 빼앗고자 싸움을 일으킵니다.

대성인은 그 사실에 대해 결연히 선언하셨습니다. “니치렌은 그 당시자가 되어 대병을 일으킨 지 이십여년인데 니치렌은 한번도 물러설 마음이 없었노라.” (어서 1224 쪽) 즉 대성인은 제육천의 마왕이 이끄는 마군과 연속투쟁하는 생애셨습니다. 광선유포는 영원히 ‘부처와 ‘마’가 치열하게 싸우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학회는 니치렌 대성인의 정통교단입니다. 그러므로 정의로운 창가의 군세가 기세 있게 전진할수록, 제육천의 마왕과 그 권속이 더욱 세를 키워 학회를 공격했습니다. 은사는 이렇게 외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마와 싸워라! 마가 준동하지 못하게 하라! 결코 타협하지 마라!”

광선유포를 위해 사신홍법(死身弘法) 한 지도자이신 마키구치 선생님과 도다 선생님은 모든 난을 한 몸에 받으며 권력의 마성과 투쟁하고, 회원과 학회를 끝까지 지키셨습니다. 제 3 대인 나토 똑 같은 심정입니다. 삼대에 걸친 창가 사제는 삼장사바를 비롯해 삼문의 강직과 엄연히 투쟁하고, 모두 완벽하게 승리했습니다.

본문

법화경을 믿는 사람을 어떻게 해서든지 악(惡)에 떨어뜨리려고 생각하여 이루지 못하면 잠차 속이기 위하여 비슷한 회염경에 떨어 뜨렸는데 두순(杜順), 지엄(智嚴), 법장(法藏), 징관(淨觀) 등이 바로 이것이다. (중략) 또 관경(觀經)에 속여 떨어뜨리는 악우는 선도(善導), 호넨(法然)이다. 이는 제육천(第六天)의 마왕(魔王)이 지자(智者)의 몸에 들어가서 선인(善人)을 속이는 것인데 법화경 제 5 권에 ‘악귀(惡鬼)가 그 몸에 들어감’이라고 설해져 있음은 이것이다. (형제초 1081 쪽 18 행 ~1082 쪽5 행)

[현대어역]

법화경을 믿는 사람을 어떻게 해서든 악으로 떨어뜨리려고 생각하지만, 마음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서서히 속이기 위해 법화경과 비슷한 회염경으로 떨어뜨렸다. 두순, 지엄, 법장, 징관 등이 그런 악연이 된 무리다. 또 비아경으로 속여 떨어뜨리는 악인은 가상, 승전 등이다. 또 심밀경으로 속여 떨어뜨리는 악인은 현장, 자은이다. 또 대일경으로 속여 떨어뜨리는 악인은 선무외, 금강지, 불공, 고보, 지키구, 지소다. 또 선종에 속여 떨어뜨리는 악인은 달마, 헤가 등이다. 또 관무량수경으로 속여 떨어뜨리는 악인은 선도, 호넨이다. 이것은 제육천의 마왕이 이렇듯 지자(智者)의 몸에 들어가서 선인(善人)을 속이는 것이다. 법화경 제 5 권에 ‘악귀가 그 몸에 들어감(악귀입기신(惡鬼入其身))’ (권지품 제 13)이라고 설한 것은 이것을 말한다.

‘악귀입기신’의 ‘악우(惡友)’를 간파하라

“어떻게 해서든지 악(惡)에 떨어뜨리려고 생각하여”라는 말씀처럼, 제육천의 마왕은 사람들의 성불을 방해하기 위한 것이라면 수단을 가리지 않습니다. 대성인은 재종의 승을 예로 들어 ‘비슷한 것으로 서서히 속이려 하는 음모를 알기 쉽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제육천의 마왕이 지자의 몸에 들어가서 선인을 속이는 것인데” 대성인은 여기에서 ‘지자, 즉 여러 종파에서 존경받는 고승의 이름을 차례로 열거하셨습니다. 그리고 선인을 속이는 ‘지자’는 바로 악사(惡師)고 악지식이며, 바로 제육천의 마왕이 몸에 들어간 모습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이것은 법화경 권지품 제 13에서 설하는 ‘악귀입기신(惡鬼入其身)’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은 그들이 사회적으로 고승이기 때문에 정체를 간파하지 못합니다. 간파하기는커녕 ‘악귀입기신’의 ‘지자’들을 존경스럽게 여기며 가르침을 존중하기 때문에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독기심입(毒氣深入)으로 ‘본심을 잃고, 이욕과 법화경을 버리고 마침내 법화경을 비방합니다. 이것이 ‘악귀입기신’이 된 사회의 두려운 점입니다. 사람들은 어느덧 정상적인 감각이 마비되고, 사회는 도양이 부패합니다. 그래도 사람들은 무엇이 원인인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렇듯 독기심입한 사람들에게 독의 정체를 가르쳐주는 존재가 법화경행자입니다. 본심을 잃은 사람들에게는 진실을 설해 밝히는 법화경 행자가 오히려 악인으로 보입니다. 그래도 법화경 행자는 경문에 비취 언문의 힘으로 방법(諷法)의 추한 면을 부각해, 악지식의 정체를 만천하에 폭로합니다. 그것이 바로 ‘권지품 이십행의 계(偈)’에서 밝힌 투쟁입니다.

대성인은 <형제초>에서 당시 많은 종파의 개조(開祖)를 비롯해 고승들의 이름을 열거하고, 모두 사람들에게서 법화경을 믿는 신앙을 빼앗은 장본인이라고 통렬하게 파절하셨습니다. 대성인은 심지어 “일체의 사람은 미워하려면 미워하라.” (어서 1135 쪽) “좋다, 미워하려면 미워하라.” (어서 1308 쪽) 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의 비난중상마저 두려워하지 않고, 각오와 서원의 마음으로 일어섰기 때문에 진실한 법화경 행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확고부동한 마음이 없으면 제육천의 마왕과 싸우지 못합니다.

도다 선생님은 제육천의 마왕에게 지배된 악승과 악지식에는 가치없이 꾸짖으셨습니다. 그 ‘일홍(一泓)’은 부패한 종문의 중이었습시다. 도다 선생님은 열화같이 “마키구치 선생님을 욕한 중들이여! 불법을 버리고 선생님을 버린 못난 자들이여!”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불법의 파괴자만큼은 결코 용서해서는 안 됩니다. 이 정신이 바로 니치렌 불법의 정수(精髓)입니다.

본문

설사 등각(等覺)의 보살이라 해도 원품(元品)의 무명(無明)이라고 하는 대악귀(大惡鬼)가 몸에 들어가서 법화경이라고 하는 묘각(妙覺)의 공력을 장애함이니 어찌 하물며 그 이하의 사람들에 있어서라. (형제초 1082 쪽6 행~7 행)

[현대어역]

설령 등각이라는 최상위 보살일지라도, 원품의 무명이라는 대역귀가 몸에 들어가서 법화경이라는 묘각(부처의 최고 깨달음)의 공덕을 얻는 일을 방해한다. 하물며 그런 등각의 보살보다 더 아래 위(位)의 수행자들은 더욱 그러할 것이다.

‘원품의 무명’ 을 무찌르는 ‘신(信)의 이점(利劍)’

지금까지 법화경을 신앙하는 사람들을 방해하는 악지식은 ‘악귀입기산’의 ‘지자’라는 존재이고, 그 정체는 다름아닌 재육천의 미왕이라고 밝히셨습니다. 그렇다면 왜 지자인데 몸에 재육천의 미왕이 들어가는가. 왜냐하면 원인이 뉘이 아니라 생명 자체에 잠재하는 ‘원품(元品)의 무명(無明)’이라는 마성에 있기 때문입니다. 대성인은 “원품의 무명은 재육천의 미왕으로 나타났으나” (어서997 쪽)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원품의 무명은 모든 사람이 본연적으로 갖추고 있습니다. 대성인은 부처도 갖추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깨달음에서는 부처와 같은 지혜를 얻은 ‘등각(等覺)의 보살’일지라도 원품의 무명이 재육천의 미왕의 작용을 일으켜 최고 위(位)인 묘각(妙覺)에 이르는 것을 방해하는 경우가 있다고 설하셨습니다. 등각의 보살마저 그렇다면 범부는 두말할 나위도 없습니다. 이른바, 재육천의 미왕은 인간생명에 잠재하는 근원적인 악의 작용을 말합니다. 이 마성이 지배욕이나 살의(殺意)를 일으키고 파괴와 전쟁을 야기합니다. 이 마성을 물리치기 위해 중요한 점은 원품의 무명과 마찬가지로 만인이 갖춘 ‘원품의 법성(法性)’을 나타내는 일입니다. 그러려면 자행화타에 걸친 신앙을 꾸준히 실천하는 일이 중요합니다.

어느 날 도다 선생님은 어본존 상모(相貌)에 재육천의 미왕이 찍어 있는 점에 관해 이렇게 강의하신 적이 있습니다. ‘어본존에 재육천의 미왕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본존을 배알할 때, 재육천의 미왕은 어본존의 말씀을 듣습니다. 재육천의 미왕은 다른 마장(魔障)을 명령으로 말끔히 제압합니다. 본유(本有), 즉 본디의 훌륭한 모습으로 어본존에 나타납니다. 모두 남묘호련계교(南無妙法蓮華經)에 비춰져 본유의 존형(尊形)이 됩니다.’

선생님은 또 “비로소 사람을 돕는 재육천의 미왕으로 변하는 것입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신심의 오의(奧義)가 있습니다. “원품의 무명을 대치(對治)하는 이점(利劍)은 신(信)의 일자(一子)이다.” (어서 751 쪽) 는 말씀처럼 원품의 무명을 물리치는 것은 바로 ‘신심(信心)’이라는 이점입니다. 평생 신심을 관철하고 끊임없이 투쟁해야 합니다. 마를 마라고 간파하고, 원품의 법성을 끊임없이 나타내야 합니다. 늘 끊임없이 투쟁하는 ‘다달이 나날이 강성해지는’ 신심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비로소 본질적인 의미에서 생명속에 있는 무명의 작용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도 항상 올바른 길을 안내하는 스승이라는 존재가 필요합니다.

도다 선생님은 자주 “진정한 내 제자라면 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끝까지 지속하라. 단연코 저서는 안 된다.” 라고 지도하셨습니다. 나는 하루 또 하루 선생님이 말씀하신 대로 투쟁하며 이제껏 모든 마성을 물리쳤습니다.

‘사체는 어떤 마성도 물리치는 원동력입니다. 반대로 ‘사체를 잊고, 망은(忘恩)에 빠진 인간은 모두 무명의 생명이 강해져서 결국 재육천의 미왕의 권속으로 바뀌고 말았습니다.’

어쨌든 ‘무슨 일이 있어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절대 마성에 따라서는 안 된다.’는 자제가 마와 투쟁하는 신심입니다. 반드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인생의 오의(奧義)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문

또 재육천의 미왕이 혹은 처자(妻子)의 몸에 들어가서 부모(父母)나 남편(男團)을 속이고, 혹은 국왕(國王)의 몸에 들어가서 법화경의 행사(行齋)를 위협하고, 혹은 부모의 몸에 들어가서 효양(孝養)하는 자식을 책(責)하는 일이 있느니라. (형제초1082 쪽7 행~8 행)

[현대어역]

또 재육천의 미왕이 어느 때는 아내나 자식의 몸에 들어가 부모나 남편을 현혹하고, 어느 때는 국왕의 몸에 들어가 법화경 행자를 위협하고, 어느 때는 부모의 몸에 들어가 효도하는 자식을 책하는 일도 있다.

삼장사마를 극복해 성불을

재육천의 미왕은 ‘지자’뿐 아니라 처자나 국왕 그리고 부모의 몸에도 들어가 정법(正法)의 신앙을 방해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부모의 몸에 들어가서 효양하는 자식을 책하는” 이케가미 형제는 이 글월을 몸으로 실감하며 배독했음이 틀림없습니다.

형제를 박해하는 배경에는 분명히 악귀입기신의 고쿠라쿠사 료칸을 비롯한 악승의 획책도 있었습니다. 게다가 실은 재육천의 미왕이 이버지 아스미쓰에게도 비꾸어 들어가 신앙을 방해하려고 공격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단연코 따라서는 안 된다. 마의 본질을 간파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대성인은 ‘신앙’이나 ‘효양’이나 하는 선택의 기로에서 고민하고 괴로워하는 문하에게 <형제초>를 비롯한 많은 어서를 통해 ‘이 정도까지라고 할 정도로 지도와 격려를 거듭하셨습니다. 참된 효양은 최고의 불법철리로 자신이 성불하고, 부모를 삼체에 걸쳐 구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케가미 형제는 스승이 말씀하신 대로 신심을 관철해서 훌륭히 장마(障魔)를 물리치고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미증유의 경계위기 속에 삼장사마(三障四魔)도 맹렬히 다투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자기 마음에 이기는 일’ ‘창제를 철저히 하는 일이 가장 중요합니다.

‘난을 극복하는 신심을 평생 관철하면 반드시 번독위약(便毒爲藥) 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속명전환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일생성불이라는 경애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광선유포의 길이 크게 열립니다.

자, 깊은 신심을 바탕으로 ‘마음’에서 이겨서 ‘5.3’을 승리로 장식하고, 한 사람 한 사람이 대승리의 실증을 나타낸 모습으로 내년 창립 80 주년을 맞이합시다. ■

형제초(兄弟抄)(중)

난(難)은 곧 명예! 사제의 대도(大道)를 걸어라!

강의

“낮은 산에서 가장 높은 산에 오르는 도중에는 반드시 골짜기가 있다.”

어느 날 회합에서 은사 도다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불은 가장 높은 산의 맨 꼭대기에 비유하면, 초신(初信)의 공덕은 낮은 산을 오르는 일이다. 성불은 더욱 높은 산을 오르는 일이다. 여러분은 그 도중에 있는 골짜기에서 헤매면 안 된다.”

“그야말로 삼장사마(三藏四魔)가 분명히 다투어 일어나는 골짜기이므로 초신의 공덕에 취할 때가 아니다. 골짜기를 넘어 승리해야 하는 신심임을 깊이 생각해 여 날마다 신심을 게을리하면 안 된다.”

제2차 세계대전 후 거듭되는 혼란한 상황에서 대성인 불법(佛法)을 만나 신심을 시작하고, 초신의 공덕을 받은 학회원에게 주신 지도입니다.

신심의 진정한 공덕은 그 무엇에도 좌우되지 않는 절대적이고 행복한 경애를 획득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가장 높은 산에 오르려면, 반드시 불도수행이라는 ‘혼란과 단란의 골짜기를 넘어야 합니다. 이 점을 알기 쉽게 가르쳐 주신 말씀입니다.

그 골짜기에서 높은 산꼭대기를 향하는 도중에는 삼장사마가 다투어 일어납니다. 골짜기를 건너 몹시 험하고 가파른 길을 오르지 않으면 산꼭대기에 절대 다다르지 못합니다. 삼장사마가 나타나지 않으면 올바른 불도수행이 아닙니다.

초창기 학회원은 도다 선생님의 자애로운 표정과 스승의 격려를 떠올리며 용감하게 삼장사마에 맞서고, 무너지지 않는 행복한 경애를 확립했습니다. 니치렌 대성인 불법은 마(魔)에 맞선 투쟁에 일생성불(一生成佛)로 이어지는 곧은 길이 있다고 가르칩니다.

대성인은 <형제초>에서 난을 만난 이케가미 형제에게 장마(障魔)를 맞받아치고 성불에 이르는 신심의 핵심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왜 법화경을 신앙하는 사람에게 난이 다투어 일어나는지, 다시 말해 법화경 때문에 받는 고난의 의미를 세 가지로 설명하셨습니다.

첫째, ‘제육천(第六天)의 마왕(魔王)’이 법화경 행자의 성불을 방해하려고 지자(智者), 국왕, 부모, 처자의 몸에 들어가 법화경 행자를 괴롭히기 때문에 난이 일어납니다. 이 원리는 지난번 강의에서 확인했습니다.

둘째, 행자에게 ‘속업’이 있기 때문에 난을 받습니다. 다만, 법화경 때문에 받는 난은 다름 아닌 ‘전중경수(轉重輕受)의 공덕’입니다.

셋째, 난은 제천선신(諸天善神)이 신심을 시험하는 ‘시련’이며, 성불하기 위해 ‘생명을 단란’하는 의미가 있다고 밝히셨습니다. 이번 <형제초>강의는 둘째, 셋째에서 언급하신 법리를 중심으로 연찬하겠습니다.

본문

우리들이 과거에 정법(正法)을 행하는 자에게 원질(怨嫉)을 한 일이 있었는데 이제 도리어 신수(信受)하므로 과거에 타인을 장애(障蔽)한 죄로 미래에 대지옥(大地獄)에 떨어져야 할 것을 금생(今生)에 정법을 행하는 공덕(功德)이 강성하므로 미래의 대고(大苦)를 초래(招來)하여 소고(小苦)를 만났으므로 넘기느니라.

이 경문에 과거의 비방(誹謗)에 의하여 여러 가지 과보(果報)를 받는 가운데 혹은 빈가(貧家)에 태어나고 혹은 사견(邪見)의 집에 태어나며, 혹은 왕난(王難)을 만난다 등 운운. 이 중에 사견의 집이라 함은 비방정법(誹謗正法)의 집이며, 왕난 등이라 함은 출생(出生)하여 악왕(惡王)을 만나느니라. 이 두 가지의 대난(大難)은 각자가 자신의 몸으로써 느꼈으리라. (형제초 1083쪽2행~6행)

현대어역

우리는 과거세에 정법을 행하던 자를 적대했지만, 지금은 반대로 자신이 정법을 믿고 행하는 처지가 됐다. 그러므로 과거세에 다른 사람의 수행을 방해한 죄로 미래세에 대지옥에 떨어져야 마땅한데, 현재세에 정법을 행하는 공덕이 크기 때문에 미래세에 받아야 할 대고를 지금 불러일으켜 소고로 받고 있다.

이렇듯 만나원경을 비롯한 경문에서는 과거세의 비방죄로 받는 여러 가지 과보로써 어느 때는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고’, 어느 때는 ‘그릇된 사상을 믿는 집에 태어나며’, 어느 때는 ‘국왕의 박해를 받는다.’고 설한다.

그 중에서 ‘그릇된 사상을 믿는 집안은 정법을 비방하는 집안을 가리킨다. ‘국왕의 박해를 받는다.’는 악왕이 다스리는 세상에 태어나는 일을 가리킨다. 이 두 대난은 여러분 자신에게 해당된다고 느낄 것이다.

대난은 '전중경수'를 증명

대성인은 이 문단에서 정법을 수지한 사람이 받는 대난을 '전중경수(轉重輕受)', 즉 숙명전환(宿命轉換)의 공덕이라고 밝히셨습니다. 과거세에 정법을 행하는 자를 박해한 죄로 '미래에 대지옥에 떨어져야 할' 과보가 있는데, 금세에 '정법을 행하는 공덕'이 강하고 왕성하므로 '미래에 받을 대고'를 불러일으켜 현세에서 '소고'를 받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숙명전환을 설하는 니치켄 대성인 불법에서는 먼저 모든 악업(惡業)의 근원은 묘법에 대한 불신(不信)과 방법(謗法)이라고 통찰하셨습니다. '근본적인 악(惡)'을 분명히 하면, '근본적인 선(善)'도 명확해집니다. 왜냐하면 근본적인 선악의 인과가 명료해져야 비로소 본격적으로 숙명을 전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본악'인 방법(謗法)은 모든 사람에게 불성(佛性)이 있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므로 '만인성불'을 가르치는 법화경을 헐뜯는 일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의 불성을 열고자 끊임없이 행동하는 '법화경 행자'를 비방하는 일입니다. 따라서 '근본선'은 근본악과 정반대로 법화경을 호지(護持)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법화경 행자'와 함께, 모든 사람의 불성을 부정하는 근원악과 싸우는 일입니다.

이 '호법(護法)의 공덕'으로 미래에 받아야 할 괴로운 과보를 현세에 가볍게 받는 일이 '전중경수'입니다. "지옥의 괴로움은 금방 사라지고"(어서 1000쪽), 금세에 모든 "중죄(重罪)를 다 소멸하고" (어서 233쪽), 거리낌 없는 불계(佛界)의 경애를 열수 있습니다. 이른바 악에서 악으로 유전하는 경애가 선에서 선으로 이어지는 불계의 생사(生死)로 바뀌며 생명의 궤도를 방향전환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대성인 불법에서 설하는 숙명전환입니다.

그러므로 전중경수로 받는 난은 '호법의 공덕'으로 일어나며, 또 숙명전환을 증명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형제초>를 바탕으로 말씀드리면, 대성인은 금세 전중경수로 받는 '소고(小苦)'에 관해 구체적인 보기를 드셨습니다. 바로 반니원경(般尼垣經)에서 설하는 여덟가지 난 중에서 '사견(邪見)'의 집안에 태어난다. '왕난(王難)을 만나다'는 두 가지 난입니다. 이 두 가지가 이케가미 형제에게 해당하는 난이라고 지적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사견의 집'에 태어난다'는 정법을 비방하는 집안에 태어난다는 뜻입니다. 또 "왕난 등이라 함은 출생하여 악왕(惡王)을 만나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법화경 행자를 박해하는 권력자가 다스리는 곳에 태어나거나 법화경 행자를 박해하는 사회에 태어난다는 뜻입니다.

이렇듯 이케가미 형제가 '사견의 집'에 태어나고 '왕난을 만나'는 일은 대성인과 함께 묘법 흥통을 실천하기 때문에 일어난 난이며 사제불이의 실천을 관철하고 있다는 증명이기도 합니다.

본문

각자는 합껏 법화경(法華經)을 믿어 왔으므로 과거의 중죄(重罪)를 책(責)하여 끄집어냈느니라. 비유컨대 철(鐵)을 공들여 달구어 치면 흠이 나타나는 것과 같다. 돌은 태우면 재가 되고, 금(金)은 태우면 진금(眞金)이 된다. (형제초 1083쪽11행~12행)

현대어역

이케가미 형제가 지금까지 법화경을 열심히 믿고 있으므로 과거세 중죄를 책하여 끄집어내고 있다. 이를테면 철을 충분히 두드리고 치면, 내부의 흠이 표면에 나타나는 것과 마찬가지로. 돌을 태우면 재가 되고, 금을 태우면 진금이 된다.

숙명전환은 생명을 최고로 단련

철을 여러 차례 달구고 두드리면, 부러지는 원인이 되는 내부 불순물이 밖으로 나옵니다. 그 과정을 계속 반복하면 한층 더 강해집니다. 마찬가지로 형제의 신심이 강성하기 때문에 과거세의 중죄를 끄집어내어 책망하는, 금세에 고난이라는 과보를 받는다는 말씀입니다.

이렇듯 고난은 전중경수, 숙명전환하는 과정에서 의미가 심화되고, '신심 연마' '생명 단련'이라는 의미를 지닙니다. 대성인은 "쇠는 불에 달구어 두드리면 검(劍)으로 되고" (어서 958쪽)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신앙은 숙명에 정면으로 맞아야 비로소 단련되고 강해집니다. 고민이나 괴로움이라는 '업화(業火)'로 불태웠을 때, 인간으로서 진가를 발휘합니다. '신념이 약하면' 재로 변해 부서지고 흩어집니다. '신념이 강하면' 진금으로 변해 더욱 빛을 발합니다. 불법이 추구하는 커다란 목적은 우리 생명을 끝까지 연마하고 강하게 단련하는 일입니다.

연마하지 않으면 인재로 빛나지 않습니다. 단련하지 않으면 진정한 인물로 성장하지 못합니다. 광선유포를 위해 철저히 싸우면 과거세 숙업을 전환할 수 있고, 우리 인생을 금강불괴(金剛不壞)의 보검(寶劍)처럼 빛낼 수 있습니다. 단련이라고 말하면, 마키구치 선생님과 도다 선생님 그리고 도다 선생님과 나에 이르는 창가(創價)의 사제(師弟)도 생명을 연마하는 나날이었습니다.

열 아홉에 마키구치 선생님을 만나신 도다 선생님은 1920년4월 '젊은 날의 수기'에 이렇게 쓰셨습니다. "국가의 재목, 세계 지도자로서 대임을 받을 수 있도록 같고 다듬어야 하며, 대임을 원수할 수 있도록 연마해야 한다. (중략) 요즘 사람의 비난과 비웃음은 인중에도 없다. 최후의 목적을 달성할 뿐."

젊은 도다 선생님은 이 무렵 마키구치 선생님이 교장으로 근무하시는 니시마치진조소학교 임시교사로 채용되었습니다. 위대한 스승을 만나서 위대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같고 다듬는다.' 즉 인격, 실력, 몸과 마음을 단련하겠다고 깊이 결심하셨습니다.

나도 열 아홉 살 때, 운명적으로 은사 도다 선생님을 만났고 영광스러운 사제불이의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도다 선생님 사업이 좌절해 가장 어렵고 힘들었을 때도, 앞장서서 홀로 스승을 지키고 떠받쳤습니다. 1950년 12월에 쓴 일기에 당시 심경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고투여, 고투여.

너는 그 속에서 참된 인간이 될 수 있다.

너는 그 속에서 강철 같은 의지를 키울 수 있다.

너는 그 속에서 진실한 눈물을 알 수 있다.

너는 고투 속에서 인간혁명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라."

도다 선생님께서 이루 말할 수 없이 신세를 진 자들이 마치 손바닥을 뒤집듯 큰 은혜를 저버리고 선생님을 “이 자식”이라는 식으로 심하게 욕하며 떠났습니다. 그러나 나는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왜하면 도다 선생님과 함께 받는 고난은 곧 명예이고, 단련은 곧 승리를 위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도다 선생님이 반드시 제2대 회장으로서 광선유포를 지휘하실 수 있게 끝까지 기원하며 악전고투의 벽을 돌파했습니다.

본문

이번에야말로 진실한 신심(信心)이 나타나서 법화경의 십나찰(十羅刹)도 수호(守護)하시게 되리라. 설산동자(雪山童子) 앞에 나타난 나찰은 제석(帝釋)이며 시비왕(尸毘王)의 비둘기는 비사문천(毗舍門天)이었느니라. 십나찰이 시험해 보기 위하여 부모의 몸에 들어가서 책망(責望)하는 일도 있을 것이니라. (형제초 1083쪽12행~14행)

현대어역

이번에 직면한 난에서는 여러분의 진실한 신심이 나타나서, 법화경 회좌(會座)에 참석했던 십나찰녀도 반드시 수호할 것이다. 설산동자 앞에 나타난 귀신은 제석천이었다. 시비왕이 구한 비둘기는 비사문천이었다. 십나찰녀가 신심을 시험하려고 부모 몸에 들어가 책하는 일도 있을 것이다.

제천선신이 신심을 시험하는 난

이어서 대성인은 형제가 한 실천에 ‘참된 신심이 나타났기 때문에, 법화경 행자를 수호하겠다고 맹세한 ‘제천 선신이 틀림없이 지켜 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석천이 나찰로 변해 설산동자(雪山童子)의 구도심을 시험했듯이, 비사문천이 비둘기로 변해 시비왕(尸毘王)의 자비심을 시험했듯이 제천선신이 그 사람의 신심이 진실한지 아닌지 시험하는 경우가 있다고 밝히셨습니다. 대성인은 그 원리를 바탕으로 이번 의절은 십나찰녀가 형제의 신심을 시험하려고 부모 몸에 들어가 두 사람을 책했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대성인은 다른 어서에서도 ‘제천선신이 그 사람의 신심을 시험하려고 난을 일으킨다.’는 원리를 밝히셨습니다. 이를테면 아쓰하라법단 때 농민 신도들이 헤이노사에몬노조 요리쓰나 때문에 불합리한 심문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도 퇴전하지 않았습니다. 농민 신도들은 권력자에게 탄압을 두려워하는 마음 없이 계속 제목을 불렀습니다.

즉시 이 보고를 들으신 대성인은 바로 이렇게 쓰셨습니다. “필시 헤이노강고(平金吾)의 몸에 십나찰(十羅刹)이 들어가 대신하여, 법화경의 행자를 시험해 보십시오. 예전대 설산동자, 시비왕 등과 같고 아니면 또 악귀(惡鬼)가 그 몸에 들어간 것일까요. (어서 1455쪽)

대성인은 헤이노사에몬노조 몸에 십나찰이 들어갔거나 악귀가 들어갔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악귀가 들어가 법화경의 행자를 박해하는 일은 지난 강의 에서 배운 대로 제육천의 마왕이 지나나 국주 또는 부모 몸에 들어가 박해를 가하는 원리와 같습니다.

그렇지만 제천선신이 헤이노사에몬노조 몸에 들어가 아쓰하라 농민신도의 신심을 시험했다는 말씀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대성인이 그렇게 말씀하신 까닭은 ‘불퇴전의 신심이 곧 ‘성불의 인(因)’이 되기 때문입니다. 본디 정법(正法)이 법화경을 수지 하므로 난을 만납니다. 문제는 대난을 만났을 때, 겁쟁이의 마음이 생겨 퇴전하느냐 아니면 마음속으로 용기를 불러 일으켜 불퇴전을 관철하느냐 둘 중 하나입니다.

자기 마음이 약해서 퇴전하면, 이는 곧 제육천의 마왕이 가하는 모진 고통에 패하게 됩니다. 반대로 마음을 굳건히 해서 불퇴전을 관철하면, 제천의 시련을 물리치고 승리했다고 되돌아 볼 수 있습니다. 요컨대 어디까지나 자기 ‘마음’으로 결정됩니다. 제천선신의 가호라 해도 본질은 자기 신심에서 나오는 힘입니다.

도다 선생님은 이렇게 사자후하셨습니다. “대성인은 어서에서 끝까지 당신을 괴롭힌 극악(極惡)한 불적(佛敎) 헤이노사에몬노조를 ‘내게는 선지식(善知識)이다.’라고 말씀하셨다. 단연코 적을 두려워하지 마라! 모두 자기 자신을 완성해주고 부처로 만들어 주는 암흑의 열풍(烈風)에 지나지 않는다.” 이는 곧 니치렌 불법에서 살하는 사자왕(師子王)의 정신입니다. 중요한 점은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일념’입니다.

대성인은 묘락대사(妙樂大師)가 설한 “반드시 마음의 견고함에 따라서 신(神)의 수호(守護)는 즉 감함이다.”는 구절을 자주 인용하셨습니다. 신심이 진실하다면, 반드시 제천선신이 법화경 행자를 수호합니다.

또 대성인은 다음 문단에서도 석가, 다보, 시방의 제불, 제천의 가호는 법화경 회좌에서 한 맹세이며 결코 깨트리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변독위약(便毒爲藥)이라는 원리에서 곧 반드시 ‘상벌(賞罰)’도 나타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음만이 중요”합니다. 자기 신심이 어떠한가에 따라 미래의 승리가 결정됩니다. “자기 운명을 짊어질 용기를 지닌 사람만이 영웅이다.” 라고 말한 헤르만 헤세의 잠언이 있습니다. 모든 것은 자기 생명을 변혁하는 일부터 시작된다고 확신한 사람이 참으로 용감한 사람이며 영원한 행복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본문

이것으로 보더라도 신심(信心)이 약하면 후회(後悔)가 있으리라. 또 전차(前車)가 뒤집힘은 후차(後車)에 대한 훈계(訓戒)이다. 지금의 세상은 이렇다 할 일이 없어도 도심(道心)이 일어나는 것이다. 이 세정(世情)을 싫어하더라도 결코 싫어할 수 없으리라. 일본사람들은 반드시 대고(大苦)를 당하리라고 보이며 안전(眼箭)의 일이다. (형제초 1083쪽14행~16행)

현대어역

그와 관련해 마음이 약하면 틀림없이 후회할 것이다. 또 앞차가 뒤집힌 일은 뒤차를 훈계하는 일이 된다. 지금처럼 혼란한 세상에는 자기 몸에 특별한 일이 일어나지 않더라도 불도(佛道)를 구하는 마음이 일어난다. 세상일은 피하려 해도 결코 피할 수 없다. 일본사람들은 틀림없이 커다란 괴로움에 직면했다는 생각이 든다. 참으로 눈앞에 일어난 일이 그러하다.

‘필요한 때’에 퇴전하지 않는 신심을

“이것으로 보더라도 신심이 약하면 후회가 있으리라.” 이 말씀은 모든 문하에게 보내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법화경을 경과 여(如)히 설하는 사람” (어서 1080쪽)을 만날 수 있었다. 중요한 것은 이 ‘스승과 때를 같이 해 싸울 수 있는 복닥을 얼마나 자각하느냐에 달렸다. 모처럼 만난 중요한 때에 마음이 약하면 영원히 후회를 남긴다는 말씀입니다.

실은 난에 직면했을 때가 바로 자신이 성불하는 문을 영원히 열 수 있느냐 아니면 퇴전으로 행복해 지는 길을 막아 버리느냐 하는 가장 큰 갈림길에 선 때이며 가장 중요한 때입니다.

우리는 언제든 대난에 직면했을 때, <개목초>에 나오는 구절을 배독하며 꾀꾀이 싸워야 합니다. “나와 더불어 나의 제자는 제난(諸難)이 있을지라도 의심이 없으면 자연히 불계(佛界)에 이르리라. 천(天)의 가호가 없음을 의심하지 말 것이며 현세가 안온하지 않음을 한탄하지 말지어다. 나의 제자에게 조석(朝夕)으로 가르쳐 왔건만 의심을 일으켜서 모두 버렸으리라. 어리석은 자의 버릇이란 약속한 일을 필요한 때에는 잊어버리느니라.” (어서234쪽)

이 글월을 신독(身讀)하는 일이 창가학회의 영원한 생명선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신앙은 항상 이 글월로 되돌아가서 전진했을 때, 불멸의 빛을 발하기 때문입니다.

이 글월에 담긴 정신에 비춰보면, 우리가 난을 만났을 때는 모두 ‘필요한 때’입니다. 삼장사마가 다투어 일어날 때도, 자신이 숙명전환을 해야 할 때도, 광선유포 활동이 ‘절체절명(絶體絶命)’일 때도 ‘필요한 때’에 상황을 반전시켜 공세를 펼 수 있는 신심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그 신심을 대성인에게 배우고 있다는 자각으로 일어서야 합니다. 결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아야 합니다.

“신심이 약하면” “어리석은 자”라는 말씀대로, 그런 사람은 삶의 근본목적 지니지 못하고 부평초처럼 떠도는 인생을 삽니다. 인간은 ‘삶의 의미’를 추구하는 동물입니다. 그리고 그 의미를 시종일관 진지하게 탐구하면 얼마든지 저절로 심화할 수 있습니다. 학회원은 늘 인생의 의미와 신앙을 심화할 수 있습니다. 모두 인생의 철학박사이며 행복박사이입니다.

“지금의 세상에는 이렇다 할 일이 없어도 도심(道心)이 일어나는 것이다.” 라는 말씀은 불안으로 가득 찬 당시 사회사정을 토대로 하신 말씀입니다. 대성인 제세 당시는 기근이나 역병, 천재지변이 잇달아 일어나는 시대였습니다. 그런 시대이므로 보통이라면 사람들에게서 ‘도심’이 썩어야 마땅합니다. 혼미함이 심해 질수록 깊은 철학이 요청됩니다. 니치렌 불법은 참으로 약세말법이라는 시대의 어둠을 비추는 ‘태양의 종교’입니다.

그런데 일본은 그런 대성인을 정당하게 대우하기는커녕 박해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대성인 예언하신 내란과 침략이라는 경고가 적중했고, 어쩔 도리가 없게 됐습니다. 피할 길 없는 비참과 고뇌에 직면한 사실이 총별(總別)을 받은 모습입니다. 대성인은2월 소동과 몽고내습이라는 ‘안전(眼前)의 일을 보면, 그 점이 명료해 지지 않느냐고 갈파하셨습니다.

특히 1274년 ‘문영(文永)의 전역(戰役)’ (제1차 몽고내습)이 일어난 후, 일본 전체가 머지않아 거듭될 몽고내습에 대비하느라 정신이 없었고 커다란 불안감이 사람들 사이에 확산되고 있었습니다.

“(몽고토벌에 나선 사람들은) 연로한 부모, 어린 자식, 젊은 아내, 그리고 살고 있던 소중한 집을 버리고, 아무런 연고도 없는 바다를 지키며, 구름이 보이면 적의 깃발이 아닌지 의심하고, ‘낙숫배’가 보이면 군함이 아닌지 몹시 놀란다.”

전쟁으로 생기는 한탄은 어느 시대든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힘든 생이별을 해야 하고, 언제 목숨을 잃어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죽음과 마주하는 나날을 보내야 합니다. 어느 시대든 서민이 가장 괴로움을 겪습니다. 그러므로 절대로 전쟁을 일으키지 말아야 합니다. 이는 곧 불법자(佛法者)의 영원한 외침입니다.

당시 사회는 “현신(現身)에 수라도(修羅道)를 느꼈느니라.” (어서 1084쪽)는 상황이었습니다. 대성인의 싸움은 어느 면에서 보면 그런 ‘수라도의 사회’를 변혁하는 일이었고, 모든 민중이 행복과 평화를 누리는 세상을 실현하는 일이었습니다.

어쨌든 민중이 고통받는 사태를 초래한 책임은 사악에 가담해 가장 정의로운 대성인을 박해한 위정자에게 있습니다. 대성인은 이케가미 형제가 지금 아버지에게 책망 당하는 까닭은 결국은 악승들에게 부추김을 당한 국주가 ‘법화경의 작’이 되고 말았기 때문이라고 통찰하셨습니다.

불법은 승부입니다. 대성인은 “법화경의 이생(利生)을 시험하여 보시라. 니치렌도 강성하게 천(天)에 고하겠노라.” (어서1084쪽)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제일체의 기원과 단결로 반드시 정사(正邪)를 만천하에 밝히고자, 가장 사랑하는 제자에게 힘차게 말씀하셨습니다.

시종일관 대성인은 이케가미 형제에게 마성(魔性)에 당당히 정면으로 맞서며 ‘공격적인 자세로 살도록 가르치셨습니다. 수동적인 자세가 되거나 마음이 약해지면, 마(魔)가 점점 더 세력을 키웁니다. “결코 겁을 내면 안 된다.”고 지도하셨습니다.

도다 선생님은 이렇게 열렬히 말씀하셨습니다. “어려움을 회피하는 겁쟁이가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도다 슬하에는 그런 인간이 없으리라 여긴다.” “학회는 사자의 단체다. 사자의 모임이다. 겁쟁이는 필요 없다!”

본문

강성하게 이를 악물고 해이(懈弛)하는 마음이 없을지어다. 이를테면 니치렌이 헤이노사에몬노조 앞에서 거동(擧動)하고 말하였듯이 조금도 두려워하는 마음 없을지어다.

와다의 아들이 된 자나 외카사노카미의 아들이 된 자, 마사카도, 사다토의 부하(部下)가 되었던 자는 부처가 되는 길은 아니지만 수치(羞恥)를 생각하기에 목숨을 아끼지 않는다는 풍습(風習)이나라. 어쨌든 한번의 죽음은 일정(一定)이니 비겁한 행동으로 남에게 웃음거리가 되지 마실지어다. (형제초 1084쪽6행 ~10행)

현대어역

강성하게 이를 악물고, 방심하지 말아야 한다. 이를테면 니치렌이 헤이노사에몬노조 앞에서 당당히 행동하고, 딱 잘라 말했듯이 조금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어야 한다.

호조 씨와 벌인 전투에서 패한 와다 요시모리 일족이 된 자, 호조 도키요리와 싸워 패한 미우라 와카시노가미 일족이 된 자, 다리노 마사카도의 가신이나 이베노 사다토의 가신이 된 자는 부처가 되는 길은 아니었지만, 자신이 당할 수치를 생각했으므로 목숨을 아끼지 않았다. 그것은 무사의 관례다. 사람은 특별한 일이 없어도 반드시 죽는다. 흥한 모습을 보여 남에게 웃음거리가 되지 말아야 한다.

‘강성하게 이를 악물고 헤이하는 마음이 없을지어다’

대성인은 신앙 때문에 역경에 직면한 이케가미 형제에게 ‘결코 두려워하는 마음, 이부하는 태도가 없어야 한다.’ ‘결코 방심하지 말아야 한다.’고 거듭 격려하셨습니다. 우리가 신앙을 하는 목적은 무슨 일이 있어도 흔들지 않고, 유연하고도 행복한 대경애를 확립하기 위함입니다.

이 문단에서 대성인이 이케가미 형제에게 말씀하고자 하신 점 또한 ‘어떤 고난에 직면해도 미동조차 하지 않는 인격을 바로 지금 구축하라.’는 격려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니치렌 불법은 사제(師弟)를 근간으로 하는 종교입니다. 스승이 사자왕이라면, 사자의 자식인 제자도 사자왕이 되어야 합니다. ‘나를 보라.’ ‘내 뒤를 이어라.’ 이 말씀은 곧 스승의 엄명입니다.

“이를 태면 니치렌이 헤이노사에몬노조 앞에서 거동하고 말하였듯이”라는 말씀과 같이 ‘내가 엄연히 싸운 것처럼 여러분도 당당히 싸워주기 바란다.’ 는 심정으로 불이(不二)의 실천을 관철하도록 지도하셨습니다.

여기에서 대성인이 헤이노사에몬노조 앞에서 행동하신 일은 1271년9월 다쓰노구치법난 때 하신 국주간효(國王諫曉)와 사도유죄에서 사면되고 나서 1274년 4월에 하신 국주간효를 가리킵니다.

대성인은 다쓰노구치법난 때, 헤이노사에몬노조에게 이렇게 사자후(獅子吼)하셨습니다. “니치렌은 일본국의 동량(棟梁)이다. 나를 죽인다는 것은 일본국의 기둥을 쓰러뜨리는 것이로다.” (어서 287쪽)

그리고 사도유죄에서 사면되고 나서 하신 간효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왕지(王地)에 출생하였으므로 몸은 따르고 있는 듯하지만 마음까지도 따를 수가 없는 것이니라.” (어서287쪽) 즉 이 말씀은 가마쿠라 막부가 다스리는 땅에 태어난 이상, 몸은 막부를 따르는 듯하지만 마음은 결코 따르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참으로 ‘두려워하는 마음’ ‘이부하는 마음’을 완전히 떨쳐 낸 위풍당당한 대선언입니다. 그런 스승의 싸움을 ‘모범’으로 삼아 일어난 불이의 제자에게 두려움은 있을 수 없습니다. ‘나처럼 싸우라.’는 스승의 투쟁에 직결하면, 자신이 지닌 무한한 역용(力用)을 이끌어 낼 수 있습니다. 대성인이 <선시초>에서 말씀하신 이 구절은 유네스코(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가 편찬한 <<어록 인간의 권리>>에 실렸습니다.

또 “어쨌든 한번의 죽음은 일정(一定)이나”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내가 반세기 이상 신심을 지속하며 깊은 감명을 받은 여러 성훈 중 하나입니다. 사람으로 태어난 이상 언젠가는 반드시 죽습니다. 누구든지 이 도리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요는 한 번뿐인 이 목숨을 무엇을 위해 쓰느냐가 중요합니다.

대성인은 청년 난조 도키미쓰에게 “이왕이면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법화경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시라. 이슬을 대해(大海)에다 넣고 먼지를 대지(大地)에 묻는다고 생각하시라.” (어서 1561쪽)고 말씀하셨습니다.

도다 선생님은 “죽음은 일시적이고 삶은 영원하다. 창가학회 동지도 바이흐로 광선유포라는 커다란 깃발을 내걸고 일어섰다. 바이흐로 광선유포해야 할 때다. 용감해야 한다.”라며 오직 홀로 묘법유포라는 깃발을 들고 일어서서 75만 세대 절발을 완수하셨습니다.

또 선생님은 “영취산(靈鷲山)에서 석존의 제자들과 자리를 함께했을 때 ‘말법의 청년은 아무지지 못하다.’고 웃음거리가 되면 지용보살로서 부끄럽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참으로 “비겁한 행동으로 남에게 웃음거리가 되지 마실지어다.”라는 대성인의 지남과 일맥상통하는 질타였습니다.

본문

석가여래(釋迦如來)는 태자(太子)로 계실 때, 아버지 정반왕(淨飯王)이 태자를 아끼시어 출가(出家)를 허락하지 않으셨느니라. 사문(四門)에 이천명(二千名)의 병사(兵士)를 두고 지키셨지만 마침내 부모의 뜻을 거역하고 집을 나가셨느니라. 일체는 부모에게 따라야 하는 것이기는 하나 부처가 되는 길은 따르지 않는 것이 효양(孝養)의 본(本)이로다. (형제초 1085쪽6행~8행)

현대어역

석가여래가 태자이셨을 때, 태자를 아끼는 아버지 정반왕이 출가를 허락하지 않았다. 사방으로 난 성문에 병사 2000명을 배치하고 지키게 했지만, 끝내 태자는 부모 뜻을 어기고 집을 나왔다. 모든 일은 부모 뜻을 따라야 하겠지만, 부처가 되는 길은 부모 뜻을 따르지 않는 것이 효양의 근본이 아닐까.

참된 효양의 자세를 가르치다

지금까지 불법의 법리를 근본으로 ‘불퇴전의 신심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하신 대성인은 제자 확인하듯 ‘동생 무네나가 일이 너무 걱정되기 때문에’라는 말씀과 함께 여러 가지 고사(古事)를 인용해 거듭 격려하셨습니다.

대성인은 늘 진지한 승부에 임하듯 격려하셨습니다. 상대방이 진심으로 이해하고 일어설 때까지 격려를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어떻게든 제자가 결코 마에 패하지 않고 진실한 문자로 일어설 수 있도록, 어떤 때는 엄하게 어떤 때는 차근차근하게 자애와 지혜가 가득 넘친 지도를 거듭하셨습니다.

마와 싸우고, 마를 물리친 사람이 불법의 스승입니다. 그러므로 제자가 마에 맞서는 투쟁을 시작하려면 스승에게 신심을 배우는 길 밖에 없습니다. 제자가 스승에게 감응(感應)해 스스로 분기해야 비로소 사제불이 종교를 완성할 수 있습니다. 대성인은 제자가 장마에 맞서 완전히 승리할 수 있도록 장문에 걸친 고사와 설화를 잇달아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옛날부터 충효의 본보기로 여기고 있는 백이(伯夷), 숙제(叔齊)를 비롯해 석존과 천태대사(天台大師)를 보기로 들어,

불도(佛道)를 방해하려는 부모 뜻을 따르면 안 된다고 밝히셨습니다.

또 일본 조정에 있던 형제의 일화를 비롯해, 법화경에 나오는 정장(淨藏)과 정안(淨眼) 형제의 일화, 은사(隱士)와 열사(烈士)의 고사를 보기로 들어, 이케가미 형제가 마음을 합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거듭 강조하셨습니다. 그 중에서도 석존이 아버지 정반왕의 뜻을 거스르고 출가한 이야기는 신앙이나 효양이냐 하는 문제로 괴로워하는 형제에게 중요한 가르침이었습니다. 본디 ‘신앙’과 ‘효양’은 어느 한쪽을 선택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오히려 니치렌 불법은 효양의 중요성을 설해 밝힌 법입니다. 또 무엇이 참된 효양인지 가르칩니다.

대성인은 “일체는 부모에게 따라야 하는 것이기는 하나 부처가 되는 길은 따르지 않는 것이 효양의 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이 성불하는 일이 최고로 효양하는 일입니다. “오직 나 일인만이 성불함이 아니라 부모도 또한 즉신성불(卽身成佛)하리나”(어서 984쪽)하고 말씀하셨습니다.

학회에도 아버지, 어머니가 신심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열심히 활동하는 동지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초조하게 생각할 필요도 없고, 신앙을 강요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집안에서 누군가 한 사람이 진지하게 신심에 힘쓰면, 본말구경(本末究竟)하여 똑같이 집안과 가족이 영원히 승리하고 번영할 것이 틀림없기 때문입니다.

도다 선생님은 청년회에서 “중생을 사랑해야 하는 싸움이다. 그러나 부모조차 사랑하지 않는 청년이 많은데 어찌 남을 사랑할 수 있겠는가. 그런 무지비한 자신을 극복하고 부처의 자비로운 경지(境地)를 터득하는 인간 혁명의 싸움이다.”라고 강조하셨습니다. 부모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없으면 자신의 인간혁명도 사회변혁도 이룰 수 없습니다. 은사의 이 심정은 그대로 내 심정이기도 합니다.

대성인은 일화를 소개하며, 이케가미 형제가 단결하여 투쟁하는 모습을 “미래까지의 설화(設話)로 무엇이 이보다 더하리오”(어서1086쪽)하고 상찬하셨습니다. 대성인 제자로 일어서서 마성과 싸우는 신심 드라마를 엮어 낸 문하 한 사람 한 사람의 활약은 그대로 ‘미래까지의 설화’가 됩니다.

사실 이케가미 형제가 단결하여 신심을 관철하고, 두 번에 걸친 의절을 극복했을 뿐 아니라 마침내 아버지를 신심으로 이끈 ‘체험담’이 후세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희망을 주었는지 모릅니다. 마찬가지로 현재 학회원 한 사람 한 사람의 신앙 체험이 얼마나 후세의 모범이 될 지 아무도 상상하지 못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엮는 ‘승리의 설화’를 실현하는 길이 ‘사제의 갈’입니다. ‘자기중심’이면 마를 물리치고 승리할 수 없습니다. 광선 유포를 하는 스승과 함께 일어서는 일은 확고한 자기를 구축하는 ‘정도(正道)’입니다. 그리고 자기 가슴속에서 ‘행복의 갈’을 찾아낸 사람은 결코 패하는 일이 없습니다.

민중 시인 휘트먼은 <<열린 길의 노래>>에서 이렇게 읊었습니다.

“더 이상 난 행운을 찾지 않으리, 나 자신이 행운이므로”

“대지(大地), 그것이면 족하다.

별자리가 더 가까울 필요도 없다.”

어딘가 멀리 있는 별을 붙잡으려 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에 승리하는 원천은 자기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도다 선생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이사쿠, 들개가 짚는 듯이 아무리 심한 욕을 듣고 비난을 받더라도 결코 동요하지 마라! 그런 하찮은 일에 결코 분동하지 마라! 영웅의 길을 걸어야 한다. 위인의 길을 걸어야 한다. 우리가 신봉하는 니치렌 대성인이 받으신 난에 비하면, 모두 구우일모(九牛一毛, 하찮은 일)에 지나지 않는다.

나는 60여 년을 이런 결심으로 싸웠습니다. 대난은 ‘사제의 갈’을 걷는 명예로운 훈장입니다. 다음은 후계자인 청년이 이 창가의 길을 뒤따르기 바랍니다. ■

형제초(兄弟抄)(하)

단연코 이겨라! 스승은 승리를 기다린다!

강의

“생명을 행복으로 향하게 하는 부처의 거처(居處)로 할 것인지 반대로 불행으로 향하게 하는 마(魔)가 사는 곳으로 할 것인지 어느 한쪽을 선택해야 한다. 자진해서 마의 준동을 몰아내고 퇴치해야 비로소 행복과 광선유포가 있다.”

6월은 창가(創價)의 아버지 마키구치 쓰네히사로 초대 회장이 탄생하신 달입니다. 마키구치 선생님은 마에 맞서 싸우는 속에 일생성불과 광선유포의 신심이 있음을 몸소 투쟁하는 모습으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1938년 거의 매달 마키구치 선생님에게 격려와 지도가 담긴 편지를 받은 어느 청년교사가 이렇게 술회했습니다. “세 번에 한번은 ‘행해(行解)를 기이(既已) 힘쓰면 삼장사마(三障四魔)가 분연히 다투어 일어난다..’고 써서 보내 주셨습니다.” 마키구치 선생님은 끊임없이 이 청년뿐 아니라 회원에게 삼장사마와 끝까지 싸우는 신심을 강조하셨습니다. 마와 싸우는 신심이 바로 니치렌 대성인 불법의 진수이기 때문입니다.

창가확화는 이렇듯 장마(障魔)를 물리치는 마키구치 선생님의 실천을 원류로 하여 이제껏 니치렌 대성인 불법을 올바르게 끝까지 여설수행(如說修行)하고 있습니다. 마키구치 선생님의 분신인 제자 도다 조사이 선생님도 시종일관 모든 마와 끝까지 싸우는 과사현정(破邪顯正)의 지휘를 하셨습니다.

감옥에서 나오신 도다 선생님은 마키구치 선생님을 옥사에 이르게 한 권력의 마성(魔性)에 승리할 것을 맹세하고, ‘묘법(妙法)의 암굴왕(巖窟王)’이 되어 감연히 광선의 깃발을 홀로 내걸었습니다. 그 스승을 지킨 사람은 나입니다. 이윽고 사제(師弟)가 삼장사마의 열풍(烈風)을 물리치고, 도다 선생님이 제2대 회장에 취임하셨습니다. 이 지상에서 비참과 불행을 근절하고자 빈곤, 증오, 폭력에 따른 고뇌를 해결하기 위해 인간의 근원악(根原惡)인 무명(無明)을 물리치는 전대미문의 종교혁명을 개시하셨습니다.

그리고 용감히 마군(魔軍)에 정면으로 맞서는 75만이라는 지용의 진열을 불러내고, 삼류(三流)의 강적(強敵)을 물리치며 ‘입정안국(立正安國)’의 요새를 완벽히 구축 하셨습니다. 또 ‘원수폭 금지선언’을 비롯해, 인류의 마성을 근절하는 치열한 투쟁도 전개하셨습니다. 그리고 중문에 등지를 튼 시악과 끝까지 싸우고, 인간정신의 ‘일홍(-一紅)’이 되는 모든 마성에 추격의 손을 늦추지 말라는 유명(遺命)을 제자에게 마지막으로 지도하셨습니다.

참으로 ‘마에 맞선 싸움’이 대성인의 성훈대로 초대, 제2대, 제3대의 투쟁을 일관하는 학회지도의 골수입니다. 현재도 그리고 미래도 이 신심을 계승하면 광선유포를 반드시 실현할 수 있습니다. 그 방정식을 가르치신 어서가 지금 배우는 <형제초>입니다. 이번에는 ‘삼장사마에 맞서는 투쟁 ‘이체동심(異體同心)’ ‘사제불이(師弟不二)’ 신심을 연찬하겠습니다.

본문

그러므로 천태대사(天台大師)의 마하지관이라고 하는 글은 천태일기(天台一期)의 대사(大事)이고 일대성교(一代聖敎)의 간심(肝心)입니다. (중략) 더욱이 마하지관의 제 오 권의 일념삼천(一念三千)은 한창 더 깊이 들어간 법문(法門)입니다. 이 법문을 말하면 반드시 마(魔)가 출대(出臺)하느니라. 마가 다투어 일어나지 않으면 정법(正法)이라고 알지 말지어다. 제 오 권에 가로되 ‘행해(行解)를 기위(既爲) 힘쓰면 삼장사마(三障四魔)가 분연히 다투어 일어난다. 내지 따르지 말지며 두려워 말지어다. 이에 따르면 비야호로 사람으로 하여금 악도(惡道)에 향하게 하고 이를 두려워하면 정법(正法)의 수행(修行)을 방해하느니라.’ 등 운운. 이 석(釋)은 니치렌(日蓮) 자신에게 해당될 뿐만 아니라, 문가(門家)의 명경(明鏡)이니 삼가 배우고 전(傳)하여 미래의 자량(資糧)으로 삼을지어다. (형제초 1087쪽10행~18행)

현대어역

그러나 천태대사의 <마하지관>이라는 글은 천태의 생애에 걸친 중대시며, 석존일대의 중요한 가르침을 서술한 것이다. (중략) <마하지관> 제5권에서 말하는 일념삼천의 법문은 더한층 깊이 파고든 법문이다. 이 법문을 설할 때는 반드시 마가 나타난다. 마가 다투어 일어나지 않으면 정법이라고 알 수 없다. <마하지관> 제5권에는 “불법을 수행함에 따라 이해를 깊게 하면 삼장사마가 분연히 다투어 일어난다. 그러나 이 삼장사마를 결코 따르면 안 된다. 두려워하면 안 된다. 이 삼장사마를 따르면 사람을 반드시 악도로 향하게 만든다. 이를 두려워하면 정법 수행을 방해한다.”고 써어 있다. 이 <마하지관>의 석(釋)은 니치렌의 몸에 해당될 뿐 아니라 우리 일문의 명경(明鏡)이다. 삼가 배우고 전해 미래에 걸친 양식으로 삼아야 한다.

‘문가의 명경’ ‘미래의 자량

대성인은 대난에 직면한 이케가미 형제에게 주는 <형제초>를 끝맺으며, 삼장사마가 출현한다고 설하는 <마하지관(摩訶止觀)>의 글월을 통해 단연코 마에 패하면 안 된다고 지도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대성인은 <형제초>에서 법화경의 신앙을 수지한 사람에게 왜 난이 다투어 일어나는지 여러 각도에서 상세히 서술하셨습니다. 그것을 전제로 거듭 신심은 ‘삼장사마에 맞서는 싸움임을 확인하셨습니다.

먼저 대성인은 천태대사의 <미하지관> 제 5권을 들어 ‘일념삼천(一念三千)의 법문(法門)’이 불교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밝히셨습니다. ‘일념삼천은 만인성불을 밝히는 법화경 사상의 진수를 관심(觀心)이라는 생명변혁의 실천지표로 표현한 법리(法理)입니다. 천

태대사는 <미하지관> 제 5권 ‘정수지관(正修止觀)’의 장(章) 서두에서 드디어 불법의 궁극적 법리인 일념삼천 법문을 밝히기에 앞서, 먼저 삼장사마를 두려워하며 퇴전하면 안 된다고 경중을 올렸습니다.

대성인은 이 점에 날카롭게 주목하셨습니다. 즉 “이 법문을 말하면 반드시 마(魔)가 출래(出來)하느니라. 마가 다투어 일어나지 않으면 정법(正法)이라고 알지 말지어다.” 라는 말씀처럼 올바른 불법을 실천하면 반드시 마가 나타난다는 확신과 각오로 감연히 마를 물리치고 생명을 변혁해야 한다는 진지한 승부의 지표를 설하셨습니다. 먼저 ‘행해를 기우 힘쓰면’ 이라고 했습니다. 이는 ‘경전을 더욱 깊이 이해하고, 그 이해를 바탕으로 한 수행을 갖췄을 때’라는 뜻입니다. 즉 드디어 생명을 변혁하고자 본격적인 수행에 들어가는 때이므로 삼장사마가 다투어 일어납니다. 우리 신앙으로 말하면 ‘행학(行學)의 이도(二道)’에 힘쓰고 ‘드디어 전산을 할 때 반드시 삼장사마가 다투어 일어난다는 뜻입니다. 대성인은 범부에서 부처가 되는 갈림길에 섰을 때 삼장사마가 일어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음은 삼장사마가 “분연히 다투어 일어난다.” 고 있습니다. ‘분연’은 뒤섞여서 어지러운 모습을 뜻합니다. 참으로 “분연히 다투어 일어난다.”는 삼장사마가 뒤섞여서 다투듯 나오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삼장사마는 허를 찌르고, 두려움이 들게 하며, 유혹하고, 싫증나게 하며, 피곤하게 만들고, 방심하게 만드는 등 분연히 책동합니다.

천태대사는 이 삼장사마에 정면으로 맞서는 신심의 핵심을 명쾌하게 두 가지로 들었습니다. 그것은 “따르지 말지마” 그리고 “두려워 말지어다.”입니다. 마를 따르면 그 사람은 악도(惡道)로 떨어집니다. 마를 두려워하면 정법 수행을 방해합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지혜와 용기가 승리의 근간입니다. 마를 따르지 않고, 마를 마라고 간파하는 지혜 그리고 마를 두려워하지 않고, 마에 단호히 정면으로 대항하는 용기입니다. 요컨대 남묘호렌계교의 창제행이 마를 부수는 지혜와 용기의 원천입니다. 왜냐하면 묘법의 역용(力用)이 무명을 즉 ‘법상’으로 바꾸고, “난이 음을 가지고 인락” (어서 750쪽)이라는 경애를 열기 때문입니다.

대성인은 다른 어서에서 삼장사마가 나온다는 이 ‘지관의 글월을 인용하시고 나서, 바로 다음에 나오는 “뿔뿔이 금산(金山)을 바리고 중류(衆流)가 바다로 들어가며, 장작이 불을 더욱 돋구고 바람은 구라(求羅)를 크게 함과 같다.”는 구절도 함께 인용하셨습니다. (어서 916쪽) 삼장사마와 싸우면 신심이 연미됩니다. 그것은 마치 황금산이 더욱 빛나고, 큰 바다가 더욱 풍요로워지며, 불이 더욱 활활 타오르고, 구라가 더욱 커지는 것과 같습니다.

법화경에 대한 이 강성한 신심이 바로 변독위약(變毒爲藥)의 묘용(妙用)을 낳습니다. ‘재앙을 행복’으로 바꿉니다. 대성인은 “법화경의 행자는 불과 구라와 같으며 장작과 바람은 대난과 같다.” (어서 1136쪽), “대난이 오면 강성한 신심은 더욱더 기뻐하느니라.” (어서 1448쪽)고 말씀하셨습니다. 대난은 법화경 행자의 생명을 강하게 합니다. 대난에 용감하게 정면으로 맞서야 비로소 불계 생명이 더욱더 빛납니다. 대성인은 이 ‘난즉성불’의 계도를 밝히고, 이케가미 형제에게 끝까지 싸우는 각오를 촉구하셨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삼장사마와 싸우고, 완전히 승리하는 계도는 스승이신 어분불 니치렌 대성인이 몸소 걸으신 길입니다. 참으로 “니치렌 자신에게 해당하는 실천입니다. 그리고 이케가미 형제에게 스승의 뒤를 이어 같은 영광의 대도를 걸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니치렌 자신에게 해당될 뿐만 아니라, 문가(門家)의 명경(明鏡)이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이케가미 형제가 실천하고 승리한 모습이 뒤를 잇는 문하들의 미래 영원한 본보기가 됩니다. 그러므로 “삼가 배우고 전하여 미래의 자랑으로 삼을 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도 마키구치 선생님, 도다 선생님에게 배운 ‘마와 싸우는 신심’을 삼가 배우고, 전체 창가회회가 만대에 걸쳐 발전하는 인(因)을 지금 바로 구축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본문

이 석(釋)에 삼장(三障)이라고 함은 번뇌장(煩惱障), 업장(業障), 보장(報障)이나, 번뇌장이라고 함은 탐진치(貪瞋癡) 등에 의하여 장애(障礙)가 출래(出來)하느니라. 업장이라 함은 처자(妻子) 등에 의하여 장애가 출래하느니라. 보장이란 함은 국주(國主) 부모(父母) 등에 의하여 장애가 출래하느니라. 또 사마(四魔) 중에서 천자마(天子魔)라고 하는 것도 그와 같으니 지금 일본국에서 나도 지관(止觀)을 득(得)하였노라, 나도 지관을 득하였노라고 말하는 사람들 중에 누가 삼장사마(三障四魔)가 다투어 일어난 사람이 있느냐. (형제초 1088쪽1행~ 4행)

천대어역

이 석(釋)에 있는 ‘삼장(三障)’은 번뇌장(煩惱障), 업장(業障), 보장(報障)을 일컫는다. 번뇌장은 탐,진,치 등으로 방해가 나타난다. 업장은 처자 등으로 방해가 나타난다. 보장은 국주나 부모 등으로 방해가 나타난다. 또 ‘사마(四魔)’ 중에서 천자마(天子魔)도 마찬가지다. 지금 일본에서 ‘나도 지관(止觀)을 체득했다.’ ‘나도 지관을 체득했다.’ 고 말하는 사람들 중에 대체 누구에게 삼장사마가 다투어 일어나고 있는가.

삼장사마와 싸우는 ‘진정한 신심’

어서 대성인은 이케가미 형제를 위해 삼장사마의 구체적인 모습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삼장사마와 끊임없이 싸우는 대성인과 문하만이 진실로 정법을 실천하는 계승자임을 밝히셨습니다. 가장 먼저 ‘삼장’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장애’는 불도 수행을 방해하고 선근(善根)을 해치는 작용입니다. 경전에 따라 많은 종류를 인용했는데, 열반경 등에서는 번뇌장, 업장, 보장이란 삼장을 설하셨습니다. ‘번뇌장’은 탐(貪), 진(瞋), 치(癡) 등 그 사람 자신에게 갖춰진 번뇌가 신심 수행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번뇌는 그 사람의 생명력을 약하게 하고, 마음을 이상하게 하며, 향상하고자 하는 기력을 잃게 합니다. ‘업장’은 자기 생명에 새겨진 악업의 영향력이 신심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그릇된 행동으로 불도수행에서 스스로 멀어져 떠납니다. ‘보장’은 과거세 악업의 과보로 생기는 장애를 말합니다. 악세나 나쁜 환경에서 태어나는 일은 악업에 따른 가장 큰 과보입니다. 대성인은 이 어서에서 업장을 “처자 등에 의하여 장애”라고, 보장을 “국주 부모 등에 의하여 장애”라고 구체적으로 밝히셨습니다.

그것은 현실에서 이케가미 형제가 직면해 있는 사태에 들어맞게 명료하게 말씀하신 것이라고 보입니다. 다만 여기에서 확인해야 할 점은 처자나 국주 또는 부모가 신앙을 방해하는 일은 어디까지나 자신의 신심을 방해하는 ‘악연(惡緣)’에 지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퇴전해 버리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자기 마음에 달린 문제입니다. 처자, 국주, 부모 그 자체가 절대적인 악의 존재라는 뜻이 아닙니다. 자신이 승리하면 모두 선지식(善知識)이 됩니다.

덧붙여 말씀 드리면 자신을 변혁하면 타자(他者)의 생명도 변혁할 수 있습니다. 아서서 ‘사마(四魔)’에 관해 말씀하셨습니다. ‘마’는 산스크리트어 ‘마라’의 음을 베낀 ‘마라(魔羅)’를 줄인 말이고, 살자(殺者), 능탈명자(能奪命者), 파괴(破壞) 등으로 한역(漢譯)합니다. 신심하는 사람 자신의 생명 내부에서 생명 그 자체를 빼앗고, 마음을 파괴하려는 작용입니다.

경론(經論)에 따라 여러 가지 마를 살하지만 <대지도론(大智度論)> 등에서는 번뇌마(煩惱魔), 음마(陰魔), 사마(死魔), 천자마(天子魔)라는 사마(四魔)를 들었습니다. ‘번뇌마’는 번뇌가 중생의 마음을 뇌란(惱亂)하고 지혜의 생명을 빼앗는 것입니다. ‘음마’는 오음(五陰, 육체나 마음)이 조화를 이루지 못해 마음에 오뇌(懊惱)가 생겨서 신심을 파괴하는 것이며 병마(病魔) 등도 포함합니다. ‘사마’는 수행자가 생명을 빼앗기는 것이며, 수행자의 죽음으로 주위 사람이 신심에 의심을 품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자마’는 타화자재천자마(他化自在天子魔), 즉 제육천(第六天)의 마왕이 신심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대성인은 사마 중에서 천자마만 거론하셨습니다. 그 까닭은 이케가미 형제가 현실에서 직면해 있는 과제와 직접 관련된 점으로 범위를 좁히셨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육천의 마왕에 정면으로 맞서는 신심에 관해서는 지금까지 나온 <형제초> 범위에서 거듭 지도해 주셨습니다.

여기에서는 이 삼장사마를 일으키고 물리칠 수 있는 사람은 나치런 대성인과 대성인 문헌뿐이라고 강조하셨습니다. 다시 말해 “누가 삼장사마가 다투어 일어난 사람이 있느냐”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지관(止觀)을 득(得)하였노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많다. 그러나 대체 누구에게 삼장사마가 다투어 일어나고 있던 말인가. 대성인 자신과 문화를 제외하고 달리 없지 않느냐는 말씀입니다.

이 숭고한 투혼을 이어받아 ‘누가 삼장사마가 다투어 일어난 사람이 있느냐’ 라는 글월을 현대에 증명한 것은 다름이던 창가의 사제(師弟)가 일으킨 투쟁이며 학회원이 이룬 실천입니다. 마키구치 선생님은 창가교육학회 제 5회 총회에서 이 <형제초> 구절을 인용해 사자후(師子吼)하셨습니다. “중전의 일련정종(日蓮正宗) 신자 중에서 ‘누가 삼장사마가 다투어 일어난 사람이 있느냐’하고 물어야 한다.” “마가 일어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을 지도하는 것은 ‘악도(惡道)로 사람을 보내는 옥졸(獄卒)이 아닌가. 그렇다면 마가 일어나느냐 일어나지 않느냐로 신자(信者)와 행자(行者)를 구별할 수 있지 않겠는가.

자기 한 사람을 위해 신앙하는 소선(小善) 생활을 하는 사람에게는 결코 마가 일어나지 않는다. 이와 반대로 보살행이라는 대선(大善) 생활을 하면 반드시 마가 일어난다. “우리는 연꽃이 진흙 속에서 나와 청정함을 지키는 것처럼 소선 중선(中善)의 방법사(謗去者) 속으로 적전상륙(敵前上陸)하여 감연히 대악을 적으로 삼아 싸우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삼장사마가 분명히 일어나고, 또 일어나기 때문에 행자라고 일컫는다.” 자신만의 작은 이익을 바라며, 마에 맞서는 싸움을 두려워하고 피하는 겁쟁이 신자가 되면 안 됩니다. 일생성불 그리고 광선유포라는 커다란 이익을 위해 신명을 걸고 삼장사마와 맞서 싸우는 사람이 바로 참된 ‘행자’입니다. 그리고 우리 학회원 여러분이 바로 현대의 영예로운 ‘행자’입니다.

본문

이에 따르면 바야흐로 사람으로 하여금 악도(惡道)에 향하게 한다고 함은 다만 삼악도(三惡道)뿐만 아니라 인천(人天), 구계(九界)를 모두 악도라고 썼습니다. 그러므로 법화경을 제외한 회엄, 아함, 방등, 반야, 열반, 대일경 등이 아니라, 천태종(天台宗)을 제외한 나머지 칠종(七宗)의 사람들은 사람을 악도에 향하게 하는 옥졸(獄卒)이며 천태종의 사람들 중에도 법화경을 믿는 착하고 사람을 이전(彌前)으로 보내는 것은 악도로 사람을 보내는 옥졸이 아니라. (형제초 1088쪽4행~ 6행)

현대어역

“이에 따르면 반드시 사람을 악도(惡道)로 향하게 한다.” (마하지관) 단지 지옥계, 아귀계, 축생계라는 악도뿐 아니라 인계나 천계 그리고 불계(佛界)를 제외한 구계(九界)를 모두 악도라고 쓴 것이다. 그러므로 법화경을 제외하고 화엄경, 아함경, 방등경, 반야경, 열반경, 대일경 등이 이에 해당한다. 천태종을 제외하고 다른 일곱 종파의 사람들은 사람을 악도로 향하게 하는 자옥의 악귀다. 천태종 사람들 중에서도 법화경을 믿는 듯하면서 실은 사람을 법화경 이전의 가르침으로 향하게 하는 자는 역시 사람을 악도로 몰아넣는 자옥의 악귀다.

사람들을 악도로 떨어뜨리는 옥졸에 맞선 투쟁

대성인은 거듭 <마하지관>에 나오는 “이에 따르면 바야흐로 사람으로 하여금 악도에 향하게 한다.” 는 글월을 인용하셨습니다. 사람들을 삼장사마로 악도에 떨어지게 하는 것은 악지식에 해당하는 여러 종파의 악승들입니다. 대성인은 그런 무리는 틀림없이 사람들을 삼악도에 이전경의 구계로 향하게 하는 ‘옥졸’이라고 갈파하셨습니다. 그와 더불어 본디 법화경을 중히 여기는 천태종일지라도 법화경을 믿는 듯 하면서 오히려 법화경을 믿는 사람들의 신앙을 버리게 하는 것은 ‘악도로 사람을 보내는 옥졸’이라고 단언하셨습니다.

간치(建台) 연간에 대성인은 일본에 법화경 방법(謗去)이라는 근본원인을 만든 천태종 좌주(座主) 지카쿠(慈覺)와 지쇼(智證)에 대해 더욱 날카롭게 파괴(破折)하셨습니다. 법화경을 지켜야 할 그 사람들이 자신의 종파에 진언을 받아 들어 “법화경을 죽이는 사람” (아서 1081쪽)이 되고 말았습니다. 대성인은 독기심입(毒氣深入)하여 온 나라가 방법을 하는 시대에, 이른바 ‘적전상륙(敵前上陸)’하여 사람들이 지자(智者)라고 생각하고 의지하는 승려를 ‘근원의 악이라고 책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부처와 마왕과의 합전(合戰)보다도 못지 않느냐” (아서 313쪽)는 원리대로 삼장사마가 격렬하게 나타나는 것은 필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맨 앞에서 나치런 대성인과 함께 일어난 사람이 이케가미 형제를 비롯해 진정된 제자들입니다. 대성인은 ‘정의를 흥통하는 사제 ‘공전(共戰)’을 거듭 강조하셨습니다.

본문

이제 두분들은 은사(隱士)와 열사(烈士)와 같으니 한 사람이라도 빠지면 성취하지 못하느니라. (중략) 이 법문(法門) 때문이라면 실사 지아비에게 살해 당할지라도 후회하지 말지어다. 일동(一同)으로 지아비의 마음을 간(諫)한다면 용녀(龍女)의 뒤를 이어 말대야세(末代葉世)의 여인성불(女人成佛)의 모범이 되시리라. 이와 같이 한다

면 설사 어떠한 일이 있을지라도 니차렌(日蓮)이 이성(二聖), 이천(二天), 십나찰(十羅刹), 석가(釋迦), 다보(多寶)에게 말하여 순차생(順次生)에 부처가 되게 해 드리겠소 (형제초 1088쪽7행~15행)

현대어역

지금 여러분 형제 두 사람은 은사와 열사 같다. 한 사람이라도 없으면 불도를 성취할 수 없다. (중략) 이 법문을 위한다면 설령 남편에게 해를 입는 일이 있을지라도 후회하면 안 된다. 부인들이 서로 마음을 합해 남편의 신심을 간하면 두 사람은 용녀의 뒤를 잇고, 말법약세 여성들에게 성불의 모범이 될 것이다. 이렇게 행동하시면 설령 무슨 일이 있을지라도 니차렌이 이성(二聖), 이천(二天), 십나찰녀(十羅刹女), 석가(釋迦), 다보(多寶)에게 말씀드려 다음 세상에서는 반드시 성불의 경애를 얻게 할 것이다.

형제, 부부의 단결이 곧 승리의 인

마성과 싸우는 신심의 핵심은 '사제불야'와 '이체동삼'입니다. 대성인은 이 어서를 끝맺으며 그 급소를 단적으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가장 먼저 이체동삼의 단결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려 주셨습니다. 먼저 이케가미 형제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일은 형제 두 사람의 단결입니다. 마는 분단을 기도합니다. 이번 의찰사건도 아버지가 형제 두 사람을 동시에 의절했다면 부모와 자식이 신앙상으로 의견이 맞지 않아 충돌했을 것이고, 오해가 풀리면 해결될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형을 의절하고 동생에게 가독 상속으로 유혹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은 분명히 이간책이며 잠으로 재육친의 미왕이 일으키는 작용이라고 할 수 밖에 없습니다. 마를 물리칠 수 있는 것은 '선(善)의 스크램'뿐입니다.

“한 사람이라도 빠지면 성취하지 못하느니라.” 즉 형제가 단결하는 일이 바로 마성의 침입을 막는 최고의 금성철벽(金城鐵壁)이 됩니다. 그리고 대성인은 형제의 부인에게도 용기 있는 신심을 관찰해야 한다고 지도하셨습니다. ‘이 법문을 위한다면 설령 남편에게 해를 입는 일이 있을지라도 후회하면 안 된다. 부인들이 서로 마음을 합해 남편의 신심을 간하면 두 사람은 용녀(龍女)의 뒤를 잇고, 말법약세 여성들에게 성불의 모범이 될 것이다.’ 유사시에 여성의 신심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정말 깊이 배독해야 할 글입니다.

그 점을 바탕으로 일가회락의 신심을 구축하는 데 초조해 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단 한 사람이라도 모범을 수지하는 일은 가족과 집안 모든 사람을 비추는 태양이 떠오른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 공덕은 모든 권속에게 미칩니다. 중요한 점은 ‘가족을 모두 행복하게 하겠다.’는 기원이고 확신입니다. 대성인은 “사물(事物)에 따르면 서 사물을 따르게 하는 몸이니라.” (어서 1088쪽), “일동(一同)으로 자야비의 마음을 간한다만” 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부인이 총명하게 의연한 신심을 관찰하면 반드시 마를 부수고 가족 모두 성불이라는 대경애를 나타낼 수 있다고 격려하신 말씀입니다. 형제의 아버지가 드디어 정법에 귀의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대성인 지도대로 행동하는 부인의 지혜로운 내조도 있었다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본문

마음의 스승이 될지언정 마음을 스승으로 삼지 말라 함은 육파리밀경(六波羅蜜經)의 문(文)이 아니라, 설사(說敍) 어떠한 괴로운 일이 있을지라도 꿈으로 돌리고 다만 법화경(法華經)의 일만 사색(思索) 하사라. (형제초 1088쪽15 ~ 16행)

현대어역

“마음의 스승은 되어도 자기 마음을 스승으로 삼으면 안 된다.” 이것은 육파리밀경에 나오는 경문이다. 설령 마음을 괴롭히는 어떤 일이 있을지라도 꿈이라 여기고 단지 법화경의 일에만 전념하기 바란다.

‘마음만이 중요’ 라는 승리의 인생을

“마음만이 중요” (어서 1192쪽) 합니다. “마음이야말로 소중” (어서 1316쪽) 합니다. ‘마음’ 에는 생명에 더할 나위 없는 존극성을 여는 힘이 있습니다. 한편 무명에 동요해 타락하는 것 역시 ‘마음’입니다. 따라서 모든 일의 근간은 ‘마음’을 변혁하는 일입니다. 그 때 범부가 동요하는 자신의 ‘마음’을 기준으로 삼으면 삼장사미라는 열풍(熱風)이 부는 힘준한 산등성이를 오르지 못합니다.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성불이라는 정상을 응시하며 ‘마음의 스승’을 끝까지 구도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마음의 스승은 될지언정 마음을 스승으로 삼지 말라’는 구절입니다. ‘마음의 스승’ 다시 말해 단연코 동요하지 않는 부동(不動)의 근거는 ‘밥’ 뿐입니다. 그러므로 ‘밥’을 깨닫고 흥통하는 부처가 설해 남긴 ‘경잔이 중요합니다. 우리로 말하면 ‘어본근본’ ‘어사근본’의 자세가 ‘마음의 스승’을 구도하는 일이 됩니다. 그리고 ‘밥’과 우리를 연결하는 것이 불법을 실천하는 ‘스승’이라는 존재입니다. 자기중심의 만심이 아니라 사제불이라는 구도의 신심을 끝까지 관찰하는 일이 다름 아닌 ‘마음의 스승’을 구도한 삶의 자세입니다. 그리고 어디까지나 ‘마음의 스승’ 다시 말해 ‘밥’을 근본으로 한 삶을 관찰해야 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설령 아무리 마음을 번잡스럽게 하는 일이 생겨도 꿈이라고 생각하고 오직 법화경에만 전념하세요.” 어떤 현상도 영원이라는 장대한 규모에서 보면 모두 한 때의 꿈과 같습니다. ‘밥’은 영원한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삼장사미에 패해서 ‘밥’에서 멀어지면 영원히 후회를 남깁니다. 오직 “법화경의 일만”, 오직 광선유포를 응시하며 영원한 승리를 위해 신앙을 관찰하라는 말씀입니다. 현대에 “다만 법화경의 일만”이라는 ‘마음의 스승’을 구도하는 삶의 자세를 건설하게 걸어 온 학회원은 모두 훌륭하게 승리의 실증을 나타냈습니다.

일본과 세계 모든 곳에 또 ‘인류의 보배’입니다. ‘밥’을 근간으로 또 투철한 ‘사제불야’로 자기 수명을 전환하고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는 행복한 경애를 확립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사회변명과 세계평화를 위해 있는 힘을 다하고, 자타(自他) 함께 행복 실현이라는 무상(無上)의 인생을 걸으셨습니다. 보배 같은 이 학회원을 일본뿐 아니라 전 세계 지성도 찬탄하는 시대에 들어섰습니다.

본문

그 중에도 니차렌(日蓮)의 법문(法門)은 옛날에는 믿기 어려웠으나 이제는 전전(前前)에 일러 두었던 일이 이미 부합(符合)하므로 까닭없이 비방하던 사람들도 후회하는 마음이 있으리라. 설령 차후에 믿는 남녀(男女)가 있을지라도 그대들과 바꾸어 생각할 수는 없느니라. (중략) 이 편지는 특별히 효에노사칸전에게 보내노라. 또 다이후노사칸전의 부인(夫人)과 효에노사칸전 부인에게 잘 말하여 들려 주도록 하शल지이다. (형제초 1088쪽16행~1089쪽 3행)

현대어역

그 중에서도 니차렌의 법문을 예전에는 믿기가 어려웠지만, 지금은 훨씬 전부터 밀해 놓은 일이 적중했기 때문에 이유도 없이 비방한 사람들도 후회하는 마음이 일어날 것이다. 설령 앞으로 신앙하는 남녀가 있을지라도 여러분과 바꿀 수 없다고 생각한다. (중략) 이 편지는 특히 효에노사칸님 앞으로 보낸다. 또 다이후노사칸님의 부인과 효에노사칸님의 부인에게도 아주 잘 들려주시기 바란다. 들려 주시기 바란다.

모든 핵심은 '사제불야' 신심

대성인은 이 어서를 끝맺으며 다시 한번 '사제불야'의 중요성을 가르치셨습니다. 인간 마음은 천차만별로 움직입니다. 그 중에는 대성인의 예언이 적중하는 현증(現證)을 보고 비방하던 일을 가두어들이고 후회하는 마음을 지닌 사람도 있었습니다. 반대로 신심을 하면서도 박해가 두려워 퇴전하고, 게다가 처음부터 비방하던 사람들보다 한층 더 심하게 헐뜯고 비방하는 마음을 지닌 사람도 많았습니다. 마음이 얇은 인간, 퇴전하고 반역한 인간, 겁쟁이 인간, 이렇듯 인간의 마음은 무섭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성인은 똑바로 사제의 길을 걸은 이에게가미 형제와 부인들에게 “설령 차후에 믿는 남녀가 있을지라도 그대들과 바꾸어 생각할 수는 없느니라.”는 말씀까지 해주셨다고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성인은 아무리 사나운 폭풍이 불어도 미동조차 하지 않고 배신자들을 유연히 내려다보며 오직 광선유포의 대도(大道)를 관철한 문하들이 바로 진정한 제자라고 최대로 찬탄하셨습니다.

'사제'가 곧 인생에서 무상(無上)의 보배입니다. 도다 선생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일생성불이라는 너른 하늘로 유유히 날아 오르려면 난(難)이라는 열풍을 향해 날아 올라야 한다. 난에 지지 않는 신심이 바로 영원한 행복성(城)을 구축하는 힘이다. 신심으로 극복하지 못할 난은 결코 없다.” 도다 선생님의 결연한 이 확신이 바로 화회정신이고 절복정신이며 미와 싸우는 공격정신입니다.

어디까지나 신심이 가장 중요합니다. 대성인은 이에게가미 형제에게 “반드시 삼장사미라고 하는 장애가 나타나는데, 현자(賢者)는 기뻐하고 우자(愚者)는 물러남이 이것 이니라.” (어서 1091쪽)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현자는 기뻐하고” 라는 신심에 서면 삼장사미라는 세찬 바람은 우리 생명을 뒤덮는 숙명의 '구름'을 날려 버립니다. 반드시 맑게 갠 하늘에 대한희의 무지개가 뜰 것입니다. 거기에 비로소 '정의와 '행복'과 '승리'라는 태양이 찬연히 빛난다고 확신하며 위풍당당하게 대난에 도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삼장사미를 물리치는 제자의 승리가 바로 스승의 기원이자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형제초 강의 끝) ■